

최종보고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제 출 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본 보고서를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직무대행 김 성 진

본 보고서에 수록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의 내용
등은 향후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제할 수 없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방법	8
1. 자문회의 및 AHP 조사	8
2. 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 수집	8
3. 통계분석	9
제3절 연구 기대효과	10
제4절 연구 흐름도	11
제2장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요	13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15
1. 추진 배경	15
2. 추진 경과	15
제2절 지역문화지표 선정	17
1. 이전 지역문화지표의 특징	17
2.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선정	18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23
1. 지역문화지표 가중치 및 지수산출	23
2. 지역문화실태조사 실시(자료수집)	26
3. 자료 분석	29
4. 지역격차 분석	30
제3장 2014 기준 지표별 현황분석	33
제1절 정책지표	35
1. 수립 및 실행	36
2. 정책환경	45
3. 정책예산	51
제2절 자원이표	56
1. 문화유산	57
2. 기반시설	60
3. 자원활용	74

CONTENTS _ 목차

제3절 활동지표	82
1. 활동현황	83
2. 활동인력	86
제4절 향유지표	99
1. 지역주민	100
2. 소외계층	112
제 4 장 지역문화지수 분석	121
제1절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수 분석 결과 I : 종합지수	123
1. 지자체간 종합지수 분석	123
2. 다양한 분석기준을 적용한 지역문화종합지수 비교	133
제2절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수 분석 결과 II : 대분류별	137
1. 정책지수	137
2. 자원지수	141
3. 활동지수	145
4. 향유지수	149
제3절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수 분석 결과 III : 격차분석	153
1. 지역격차의 개념	153
2. 지역간 격차분석 결과	153
제4절 종합 결과	159
1.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159
2. 지역문화실태조사 대분류별 지수 분석 결과	159
3. 지역간 격차분석 결과	159
제 5 장 종합분석 및 향후 과제	161
제1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63
1. 대분류별 종합분석 및 시사점	163
2. 격차분석 주요결과 및 시사점	170
제2절 향후 과제	172
참고문헌	175
[부록]	179

표 차례

〈표 II-1〉 2014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위한 최종지표 및 자료수집 출처	22
〈표 II-2〉 최종가중치 산출 결과표	25
〈표 II-3〉 최종 지역문화지수 산출결과	26
〈표 II-4〉 지역문화실태조사 온라인 입력 세부 일정	28
〈표 II-5〉 시·군·구(자치구) 단위 인구 구분	30
〈표 III-1〉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부문 세부지표	35
〈표 III-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무 현황	37
〈표 III-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역	38
〈표 III-4〉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사업 선정 현황	40
〈표 III-5〉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사업 선정 지역	40
〈표 III-6〉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현황	42
〈표 III-7〉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유무 현황	42
〈표 III-8〉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지역	43
〈표 III-9〉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순위	44
〈표 III-10〉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유무 현황	46
〈표 III-11〉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지역	47
〈표 III-12〉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유무 현황	49
〈표 III-13〉 문화관련 조례 제정 지역	49
〈표 III-14〉 기준연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수집 필드	52
〈표 III-15〉 기초자치단체 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현황 (시·군·구 비교)	52
〈표 III-16〉 기초자치단체 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현황 (특별·광역시, 도 비교)	52
〈표 III-17〉 기초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이 평균 이상인 지역	53
〈표 III-18〉 인구 천 명당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현황	54
〈표 III-19〉 천 명당 기준연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이 평균 이상인 지역	55
〈표 III-20〉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부문 세부 지표	56
〈표 III-21〉 자치단체 지정 문화재의 종류	57
〈표 III-22〉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지정 현황	58
〈표 III-23〉 시도별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58
〈표 III-24〉 2014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기초자치단체 순위	59
〈표 III-25〉 2014년 등록문화재 보유 기초자치단체	59
〈표 III-26〉 2014년 문화재자료 보유 기초자치단체	60

표 차례

〈표 III-27〉 문화보급·전수시설 포함 범위	61
〈표 III-28〉 지자체 평균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62
〈표 III-29〉 2014년 문화기반시설 수 기초자치단체 순위	63
〈표 III-30〉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64
〈표 III-31〉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	65
〈표 III-32〉 2014년 생활문화시설 수 기초자치단체 순위	66
〈표 III-33〉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	67
〈표 III-34〉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유무 현황	69
〈표 III-35〉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내 장애인좌석 준수 여부 현황	71
〈표 III-36〉 시도 내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내 장애인좌석 준수여부 및 좌석비율 평균	72
〈표 III-37〉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현황	75
〈표 III-38〉 시군구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지역축제 예산 현황	77
〈표 III-39〉 시군구별 일인당 장서 수 증가율 현황	79
〈표 III-40〉 2014년 도서관 장서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80
〈표 III-41〉 2014년 일인당 장서 수 증가율 순위	81
〈표 III-42〉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부문 세부 지표	82
〈표 III-43〉 시군구별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현황	85
〈표 III-44〉 시도별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평균 및 총 개수	85
〈표 III-45〉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	88
〈표 III-46〉 전국 기초자치단체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수 (상위 11개 시·군·구)	88
〈표 III-47〉 건물면적에 의한 사서직원 배치기준(기본 인원)	89
〈표 III-48〉 장서수에 의한 사서직원 배치기준(추가 인원)	89
〈표 III-49〉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수집 필드(예시)	90
〈표 III-50〉 일관 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현황	91
〈표 III-51〉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93.57%) 이상인 지역	91
〈표 III-52〉 문화관광해설사 수 현황	92
〈표 III-53〉 시도별 평균 문화관광해설사 수	93
〈표 III-54〉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수(상위 10개 시·군·구)	93
〈표 III-55〉 시군구별 문화복지전문인력 수 현황	95
〈표 III-56〉 특별·광역시 및 도 소속 기초자치단체 문화복지전문인력 수 현황	95
〈표 III-57〉 전국 문화복지전문인력 수(상위 9개 시·군·구)	95

표 차례

〈표 III-58〉 시군구별 문화예술교육사 수 현황	97
〈표 III-59〉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평균 및 총 인원수	98
〈표 III-60〉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부문 세부 지표	99
〈표 III-61〉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101
〈표 III-62〉 기초자치단체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건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	102
〈표 III-63〉 시군구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평균	104
〈표 III-64〉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 횟수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105
〈표 III-65〉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현황	107
〈표 III-66〉 기초자치단체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가 평균 이상인 지역	107
〈표 III-67〉 전국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108
〈표 III-68〉 기초자치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110
〈표 III-69〉 기초자치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추진 건수 현황	110
〈표 III-70〉 전국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건수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111
〈표 III-71〉 시군구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현황	113
〈표 III-72〉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이 평균 이상인 지역	114
〈표 III-73〉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순위	115
〈표 III-74〉 기초자치단체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추진 현황	117
〈표 III-75〉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진행 건수	117
〈표 III-76〉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건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	117
〈표 III-77〉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현황	119
〈표 IV-1〉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123
〈표 IV-2〉 종합지수 단계 구분	123
〈표 IV-3〉 시 대상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127
〈표 IV-4〉 군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128
〈표 IV-5〉 구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129
〈표 IV-6〉 서울특별시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130
〈표 IV-7〉 특별·광역시 대상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131
〈표 IV-8〉 광역도 대상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132
〈표 IV-9〉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지역 간 비교기준	133
〈표 IV-10〉 인구 50만 명 이상/미만 시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 (상위 10개)	134

표 차례

〈표 IV-11〉 인구 10만 명 이상/미만 군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 (상위 10개)	134
〈표 IV-12〉 도시-농촌-도농통합형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 (상위 10개)	135
〈표 IV-13〉 재정자립도 상-중-하 지역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 (상위 10개)	136
〈표 IV-14〉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수 순위 (상위 10개)	137
〈표 IV-15〉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수 순위 (상위 10개)	141
〈표 IV-16〉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지수 순위 (상위 10개)	145
〈표 IV-17〉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수 순위 (상위 10개)	149
〈표 IV-18〉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문화지수 격차분석 결과	154
〈표 IV-19〉 특별·광역시-도간 지역문화지수 격차분석 결과	155
〈표 IV-20〉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문화지수 격차분석 결과	156
〈표 IV-21〉 시-군-구에 따른 지역격차 분석 결과	157
〈표 IV-22〉 도시-도농통합-농촌 간 지역격차 분석 결과	158
〈표 IV-23〉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결과	159
〈표 IV-24〉 지역문화실태조사 대분류별 지수 분석 결과	159
〈표 IV-25〉 지역간 격차분석 결과	159
〈표 V-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적 지역격차 분석 결과	170
〈표 V-2〉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문화격차 분석 결과 (종합)	171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흐름도	11
[그림 II-1]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표) 추진경과	16
[그림 II-2] 지역문화지표 선정 원칙	19
[그림 II-3] 2013 지역문화지표와 2015 지역문화지표(조정안) 비교	21
[그림 II-4] 대분류 가중치	24
[그림 II-5] 중분류 가중치	25
[그림 II-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설명회 사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7
[그림 II-7] 지역문화실태조사 온라인 DB 입력창(상) 및 출력창(하) 예시	28
[그림 II-8] 2013 지역문화지표 분석 결과의 시각화 사례	31
[그림 III-1]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현황	38
[그림 III-2]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현황	43
[그림 III-3]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자체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유무' 현황	47
[그림 III-4]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문화관련 조례 제정' 현황	49
[그림 III-5]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평균 및 총 개수	62
[그림 III-6]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64
[그림 III-7] 시도별 생활문화시설 평균 및 총 개수	66
[그림 III-8]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	67
[그림 III-9]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보유' 현황	69
[그림 III-10]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 설치' 현황	72
[그림 III-11] 시도별 '평균 이상 공연장 가동일 수 보유 기초자치단체 수' 현황	75
[그림 III-12]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현황	76
[그림 III-13]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현황	78
[그림 III-14]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현황	80
[그림 III-15] 시도별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총 개수	85
[그림 III-16]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인구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현황	102
[그림 III-17]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현황	104
[그림 III-18]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현황	113
[그림 III-19]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평균 현황	120
[그림 IV-1]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24
[그림 IV-2]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25

그림 차례

[그림 IV-3]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26
[그림 IV-4] 시 단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 (전국과 비교)	127
[그림 IV-5] 군 단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 (전국과 비교)	128
[그림 IV-6] 구 단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 (전국과 비교)	129
[그림 IV-7] 서울특별시 지역문화지수(종합) 정규분포표 (전국과 비교)	130
[그림 IV-8] 특별자치·광역시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 (전국과 비교)	131
[그림 IV-9] 광역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 (전국과 비교)	132
[그림 IV-10]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38
[그림 IV-11]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수 결과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39
[그림 IV-12]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수 결과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40
[그림 IV-13]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42
[그림 IV-14]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수 결과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43
[그림 IV-15]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수 결과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44
[그림 IV-16]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46
[그림 IV-17]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지수 결과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47
[그림 IV-18]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지수 결과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48
[그림 IV-19]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50
[그림 IV-20]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수 결과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51
[그림 IV-21]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수 결과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52
[그림 V-1] DB 자료를 시각화한 사례 (그래프 및 지역문화지도)	174

0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1. 자문회의 및 AHP 조사
2. 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 수집
3. 통계분석

제3절 연구 기대효과

제4절 연구 흐름도

1 연구 배경

▶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가용성 미흡

- 지역의 문화적 환경 개선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투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지역문화 관련 기초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지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및 행정자료가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형식이 상이하여 자료의 수집·통합 및 분석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 따라서 정책 추진의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 통계 및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문화 발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 필요

- 지역문화 성과평가 및 문화격차 해소 등은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분야이므로, 발전현황 과정을 정기적으로 조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추이를 파악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함.
- 때문에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역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지역문화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육성 등이 명시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제정, 같은 해 7월 29일 시행됨.
-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선 및 추진함.
- 이로써 정부 지원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방문화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의 문화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지역문화실태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각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1) 현황 파악

▶ 전국의 지역문화 현황 표준화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

- 전국의 지역문화 현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파악하여, 지역별 문화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지역문화 발전 방향 제시 및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확보

-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
-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지역문화 환경 및 문화시설과 관련된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근거자료 확보가 가능함.
-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 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확보함.

2) 수준 진단

▶ 표준화된 지역문화지표를 통한 지수화 등 통계분석 실시

- 既 수행된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과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가능 지표로 체계화함.
-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수화가 가능하도록 방법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 현황분석 및 수준진단

- 지역의 문화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확대, 유지, 보완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의 목적, 수단, 대상자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단순히 순위를 나열하기 위한 분석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적 강약점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의 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함.

3) 성과 평가

▶ 표준화된 기준 지표로 기초 단위 지역의 문화정책 성과 평가

- 이전 조사와 동일한 지표에 한하여 문화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단기적 성과평가 및 발전현황에 대한 추세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히 지역문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동일한 척도의 자료가 미흡했던 바,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지역문화 실태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인하여 장기적 관점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의 지원사항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측정도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4) 지원기준 마련

▶ 지역문화 수준을 진단,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지원 기준 제시

- 대도시 위주의 문화시설 확충 및 인력과 재원의 편중 등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함.
- 지표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 정책, 지원, 활동, 향유의 각 영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위인 지역을 파악, 문화적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열위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역문화 발전 정책 방안 제시

-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
-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이용행태, 만족도, 이동거리 및 수단, 선호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의 배치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5) 자료 구축

▶ 지역문화 관련 자료의 지속적 축적

- 기존 지역문화지표 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어렵고 객관성 있는 정보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역문화 DB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조사에 활용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 관련 정보·통계자료의 안정적 구축, 객관적 정보공개에 따른 지역주민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 도모함.

▶ 실효성 있는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

-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을 지향점으로 할 때, 거시적 관점에서는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의 추이를 파악하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주목하는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함.
- 지역문화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야 함.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분석 및 결정에 있어서 실효적인 정책적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 관련 데이터를 입력 및 축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사를 실시함.

▶ 자료의 다양한 활용

- 정보 수요자에게 직관적이고 가시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 그래프, 차트, 이미지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지역문화 및 문화기반시설의 현황 및 분석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수집된 원자료가 다양한 주제의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1 자문회의 및 AHP 조사

1) 자문회의

▶ 기존 ‘지역문화지표’ 검토 및 재설정

▶ 선행연구에서 조정된 ‘지역문화지표’ 를 토대로 사업의 검증 및 보완을 위해 지역문화 분야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 지역문화 관련 전문가에 의한 세부 지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에 수행된 『지역문화지표 재설정 및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를 통해 조정된 지역문화지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본 연구에 적용될 세부 지표를 결정함.

2) AHP 조사 (지표별 가중치 부여)

▶ 지역문화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 도출을 위한 AHP 조사

-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각 평가요인의 중요도에 따라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정책, 관광산업 등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 및 중앙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함.
- 부문별로 집계한 지표 값을 표준화한 후, 가중치를 반영하여 지역문화지수를 산출함.

2 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 수집

-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성된 행정자료를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취합한 것으로, 신규통계 생산이 아닌 ‘행정자료 수집’이라 할 수 있음.

1) 자치단체 직접 입력

▶ 지역문화 DB 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자료 수집

- 자치단체 문화관련 부서 공무원(담당자)은 온라인 입력시스템을 통해 원자료를 입력함.
- 27개 지역문화 세부지표 중 15개 지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입력하며, 2개 지표는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공동 수집함.

2) 정부통계, 행정자료 등 기존 2차 자료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 공시자료 등을 통한 자료 수집

- 27개 세부지표 중 11개 지표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지자체별 기준연도 예산서 등 기존 정부 통계 및 행정자료를 연구기관에서 수집하여 입력함.

3 통계분석

1) 기초통계분석 및 지표값의 표준화

▶ 빈도, 비율, 평균값 등의 추출을 통한 기초통계분석

- 지역문화지표 각 세부지표에 해당하는 양적·질적 현황을 기초자치단체별로 파악하기 위해 빈도, 비율, 평균값 등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함.

▶ 추출한 지표값의 표준화: Z-score 변환

- 추출한 지표값을 지표 성격에 따라 단위 지역의 인구, 면적 등을 반영하여 가공하고, 가공한 값은 Z-score 값으로 변환하여 표준화함.

2) 지역문화지수 산출 및 분석

▶ AHP 조사 결과 반영 및 지수 산출

-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AHP 조사의 결과 값으로 분류별 가중치를 도출, 지표 값에 반영하여 전체 지역문화지표의 지수를 산출함.

▶ 지역격차분석 진행

-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보다 세부적인 통계적 검정 및 비교분석을 수행함.

▶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역문화 관련 정보구축 실현

- 지속적으로 동일지표를 적용한 조사를 통해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문화 통계자료 및 DB가 구축될 것이며, 이를 활용한 시계열적 분석도 가능할 것임.
- 지역문화 DB는 지역문화정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정책과정 상의 책임성을 진단할 객관적 기초 통계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문화정책 관련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여건 및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주요 문화인프라 및 정책사업의 유형별 이용행태, 만족도, 이동거리 및 수단, 선호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및 정책사업의 배치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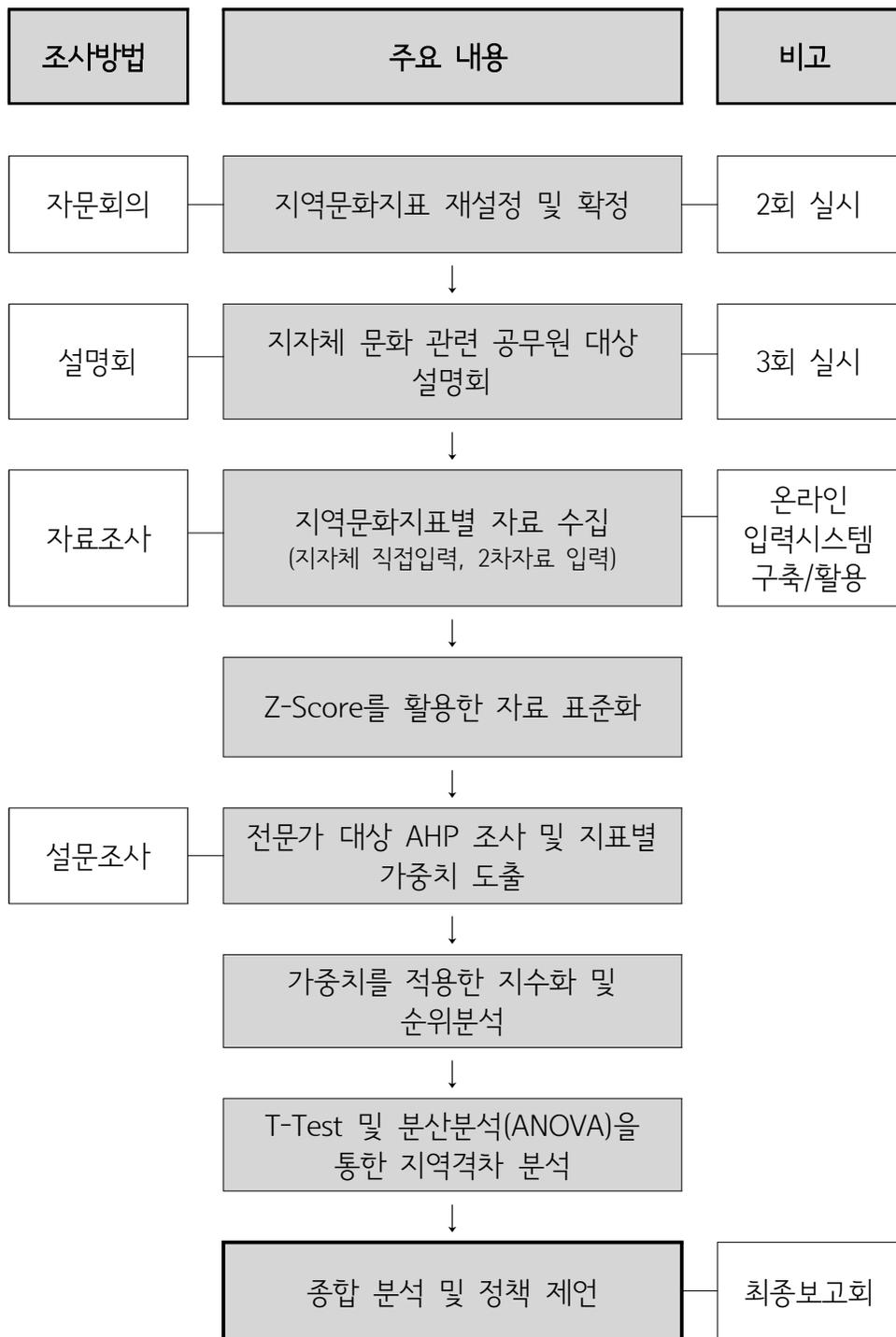
▶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정책 발전 도모

-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지역의 문화수준과 지역 간 문화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지역 차원에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함.

▶ 지역문화 격차해소 시책 마련,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방향제시, 이와 관련된 필요예산의 확보와 배분 근거 확보

- 지역 간 문화격차로 인한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이의 지원에 필요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효율적 배분의 근거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가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제 4 절 연구 흐름도



[그림 1-1] 연구흐름도

02

제2장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제2절 지역문화지표 선정

1. 이전 지역문화지표의 특징
2.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선정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지역문화지표 가중치 및 지수산출
2. 지역문화실태조사 실시(자료수집)
3. 자료 분석
4. 지역격차 분석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지역문화 현황 파악 및 수준 측정에 관한 필요성 제기

- ‘문화융성’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여건이 개선되고 추진 역량은 강화되어야 함.
- 다방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위주의 문화시설 확충, 문화 프로그램, 인력·재원 등의 불균형 등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 지역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지역문화환경 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관련 통계가 정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음.
- 지역문화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화정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며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초 통계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의 본격적 추진

-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2013년 두 차례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지표’를 도출하고 이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평가하는 ‘지역문화지표 지수화사업’을 추진.
- 나아가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내 ‘지역문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조항의 설치로 정례적인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근거를 확보함.

2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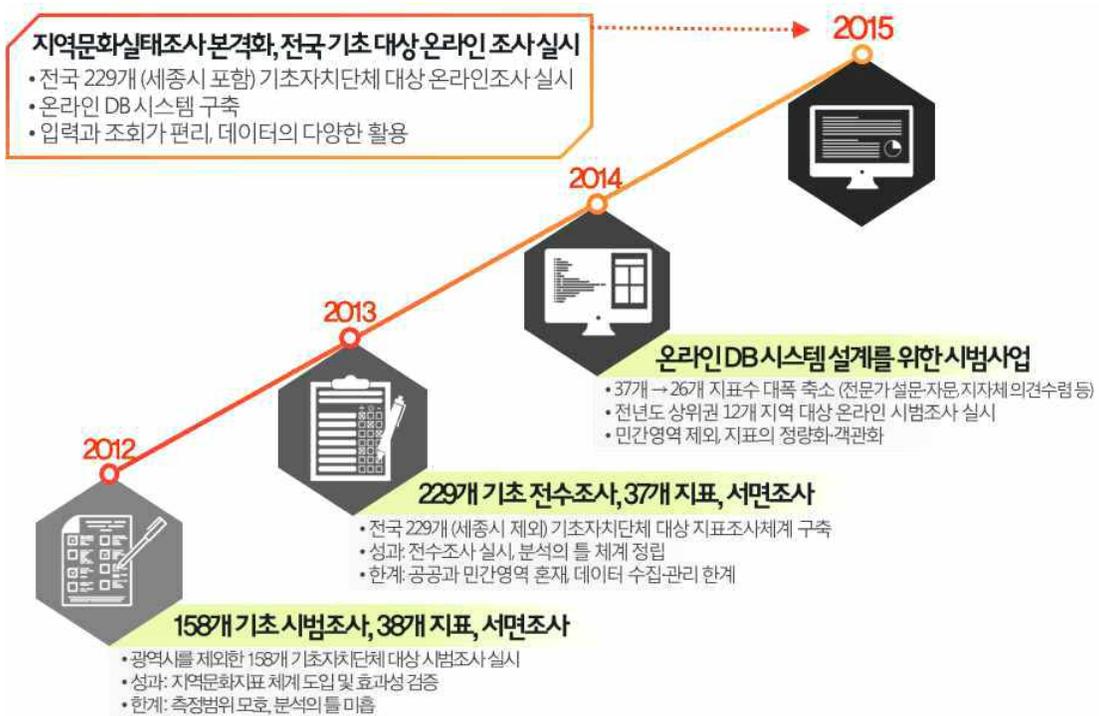
▶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연구 (2012, 2013)

-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역문화 현황 분석 및 환경진단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지역문화와 관련된 객관적 기초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2012년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 지표’를 도출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평가하는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시범사업’이 추진됨.
 -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광역도에 속한 158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실시
- 2013년에는 2012년 시범사업의 ‘지역문화지표’를 일부 보완하고, 특별·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서 본격화된 조사 실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지역문화실태조사 공식화

-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 그리고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공포 2014.1.28., 시행 2014.07.29.)
-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의 문화여건 진단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데(제11조)*,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역문화지표’사업이 ‘지역문화실태조사’로 명칭 변경되어 실시됨.



[그림 II-1]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표) 추진경과

제 2 절 지역문화지표 선정

1 이전 지역문화지표의 특징

▶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2012) : 5개 대분류, 14개 중분류, 38개 세부지표

- 2012년 시범조사 시 지역문화지표는 5개 대분류, 14개 중분류, 38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 기초자치단체¹⁾를 대상으로 문화정책, 자원, 활동 등에 관한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 객관적 방법으로 가공·분석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서 그 의의가 큼.
- 다만 시범사업 대상지에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외되었다는 점과 지표에 대한 검증 및 분석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2013) : 4대 대분류, 12개 중분류, 37개 세부지표

- 2013년에는 4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37개 세부지표로 수정·보완함.
-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은 전국 229개²⁾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전국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문화지표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음.
- 또한 문화격차를 검증함에 있어 다양한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문화 분석도구로서의 기능을 보장함.

1) 특별시 및 광역시 구를 제외한 도단위 시·군, 광역시의 군단위 포함

2)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종시가 제외됨.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출범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 당시 타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됨

2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선정

1) 선정 원칙

▶ 공공성

- 지역문화지표는 지역의 문화사업 중 전달체계 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범위로 한정함.
- 즉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여하는 ‘공공문화정책(public cultural policy)’의 영역을 지역문화지표의 기본 범위로 정함.
 -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민간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문화 사업은 영리목적의 사업이 많으며 지역별로 확연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표에서 제외

▶ 대표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지역의 문화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분야를 지역문화지표로 선정함
 -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상관없이 상호 비교가 가능한 보편적인 지역문화의 요소를 지표로 선정함.
- 지표의 측정 항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한, 형평성을 갖춘 지표를 선정함.

▶ 조사의 실현가능성

-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자료인 경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질적 자료, 지역특정적 지표는 배제하고 계량화되고 보편타당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함.
 - 객관성이 확보된 현황자료 또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 등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함.
- 수집·분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동일한 형태로 수집이 가능한 자료인지를 고려함.



[그림 II-2] 지역문화지표 선정 원칙

2) 지역문화지표의 특징

▶ 『2014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2015) : 4대 대분류, 10개 중분류, 27개 세부지표

- 2013년의 전수조사 결과, 일부 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분류체계는 유지하되 대표성과 보편성이 부족한 지표는 삭제하여 4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27개 지표로 수정·보완함.
- 본 조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재되어 있던 2013 지역문화지표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의 요소로 포함된 경우 중요한 지역문화 지표로 선정하여 추가함.
 - (예)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생활문화시설 자료를 수집하는 지표가 신규 선정
- 지역문화의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문화지표의 지표명 또는 범위가 수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표 내용을 재설정함.
 - (예) 문화이용권(2013년)에서 문화누리카드(2014년)로 지표명이 변경

▶ **지표 항목의 기준연도는 2014년으로 설정**

- 모든 지표는 지표 성격에 따라 시점 또는 기간 기준으로 집계하며, 집계 시점은 2014년 말, 집계 기간은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임.
 - 시점 자료 예) 문화기반시설 수, 기간 자료 예) 문화프로그램 건수

3)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를 위한 지표 재설정

▶ 『지역문화지표 재설정 및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14) 수행

▶ **지역문화지표 재설정 및 지수화 방법론 체계화**

-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및 『2013 지역문화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에 적용된 지표에 기반하되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의 환경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문화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지표를 재설정함.
- 지표 재설정시, 지역문화 관련 전문가(지역문화재단, 지방연구원, 교수진, 내부연구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표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추진하여, 지표 선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임.
 - 최종 설문대상자(총 30명) : 지역문화재단(10명), 지방연구원(9명), 교수진(4명), 내부연구진(7명)
- 기초자치단체 정책담당자인 문화 관련 부서의 담당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전화인터뷰를 통해 변경된 지역문화지표(안)를 검토했고, 이후 기초자치단체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
- 이상의 과정을 통해 4개 대분류 내 26개 세부지표로 지역문화지표를 조정함.

▶ **본 조사 지표 확정을 위한 재설정 작업 진행 : 자문회의 등**

- 『지역문화지표 재설정 및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14)에서 선정된 지표를 최대한 유지하되, 지역 문화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함.
- 그간 진행된 연구와 「지역문화진흥법」의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에 적합한 지표 재설정 작업을 진행함
 - 진흥법 제정 및 법률 용어 변화와 지역의 환경 변화, 데이터 수합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지표, 핵심 정책사업 관련 성과측정 필요 지표 등을 고려하여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 자문회의 및 정책 담당자 의견을 반영한 결과, 26개 지표에서 27개 지표로 최종 지표선정 조정을 진행하고 자료수집 출처 기준을 추가함.
 - 전체적 지표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전제조건 등의 변화로 세부항목 등에 반영이 필요한 항목 수정
 - 중분류명 일부 변경(정책실행→수립 및 실행 / 정책실행→정책환경)

▶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를 위한 지표 확정

4개 대분류 27개 지표로 조정

- 2013 지역문화지표는 37개 항목으로 다소 지표간 중복성과 자료수집의 낮은 효율성 지적
- 사업의 신뢰도를 위해 기존의 4개 대분류 체계 유지
- 지표의 수는 최대한 간소화하는 대신 각 지표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



[그림 II-3] 2013 지역문화지표와 2015 지역문화지표(조정안) 비교

〈표 II-1〉 2014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위한 최종지표 및 자료수집 출처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 정책	수립 및 실행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무*	지자체 직접 입력
		2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지자체 직접 입력
		3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지자체 직접 입력
	정책 환경	4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유무*	지자체 직접 입력/ 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제공 자료 등
		5	문화관련 조례 제정 유무*	지자체 직접 입력
	문화 예산	6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비율	기준년도 지자체 예산계획서
		7	천 명당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규모	기준년도 지자체 예산계획서
문화 자원	문화 유산	8	기초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수	문화재청 홈페이지 '우리지역문화재' 자료 수집
	기반 시설	9	문화기반시설 수*	지자체 직접 입력/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0	생활문화시설 수	문제부자료/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자료
		11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우수유시설 설치 유무*	지자체 직접 입력
		12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준수여부 및 좌석비율*	지자체 직접 입력
	자원 활용	13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수*	지자체 직접 입력
		14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전국지역축제총괄표
15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제공 자료	
문화 활동	활동 현황	16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자료
	활동 인력	17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지자체 직접 입력
		18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제공 자료
		19	문화관광해설사 수*	지자체 직접 입력
		20	지역문화전문인력 수 ① 문화복지전문인력* ② 문화예술교육사*	지자체 직접 입력
문화 향유	지역 주민	21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지자체 직접 입력
		22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제공 자료
		23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규모*	지자체 직접 입력
		24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지자체 직접 입력
	소외 계층	25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자료
		26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지자체 직접 입력
		27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지자체 직접 입력

*표기가 되어있는 지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화 DB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지표임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지역문화지표 가중치 및 지수산출

1) 가중치 산출 방법 : AHP 분석³⁾

- AHP 분석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일 경우, 개별 평가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 중 하나임.
- AHP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계층화하고, 이들 간에 상대비교를 통해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음.
- 이처럼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시 매우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전문가 조사

-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대분류 및 중분류의 세부요인들을 쌍대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설계하였으며, 지역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일관성 있는 응답을 통한 조사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출연 연구원의 문화 분야 연구원 및 대학 교수진을 대상으로 진행함.

▶ 가중치 산출

-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 값으로 요인별 기하평균값을 산출하고 이 값을 요인들 간 비교하여 그 가중치를 도출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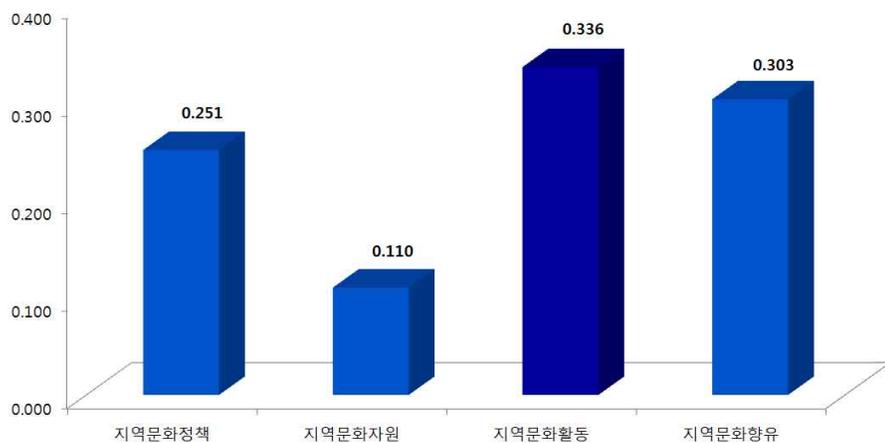
3) AHP(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계층화된 다수의 평가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하는 하나의 방법임. 두뇌가 단계적 또는 위계적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Thomas L. Saaty 교수가 고안한 모델이며,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 및 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게 됨. '계층분석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AHP기법은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해관계가 상이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화하는, 즉 객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AHP 분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Consistency Index(CI)'인데, 이는 설문 대상자가 일관성 있는 응답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값이 0.1 이하일 경우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응답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CI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HP 분석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함.
- 최종 도출된 요인간 가중치의 총합은 1이 되어야 함.

2) 가중치 산출 결과

▶ 대분류 : 활동(0.336) > 향유(0.303) > 정책(0.251) > 자원(0.110)

-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대분류 가운데 '지역문화활동'의 가중치가 0.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유'(0.303), '정책'(0.251), '자원'(0.110)의 순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요인들 가운데 지역문화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적이고 1차적인 주체인 문화 관련 전문인력과 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줌.



[그림 II-4] 대분류 가중치

▶ 지표별 가중치 : 활동인력(0.249) > 지역주민(0.192) > 정책예산(0.136) 순

- 중분류 가중치 값에 대분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 값을 도출한 결과, 지역문화활동의 활동인력(0.24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문화향유의 지역주민(0.192), 지역문화정책의 정책예산(0.136) 순임.

대분류 가중치 상 지역문화자원의 가중치가 가장 낮음에 따라 최종 가중치에서도 이에 속하는 지표들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I-5] 중분류 가중치

참고로 2013년도 연구의 AHP 분석 결과에서 대분류 중요도는 정책>향유>활동>자원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활동이 높아졌고 정책은 다소 낮아졌으나 중분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남.

<표 II-2> 최종가중치 산출 결과표

대분류		중분류		최종 가중치 (A×B)
요 인	가중치(A)	요 인	가중치(B)	
지역문화정책	0.251	수립 및 실행	0.242	0.061
		정책환경	0.218	0.055
		정책예산	0.540	0.136
지역문화자원	0.110	문화유산	0.138	0.015
		기반시설	0.329	0.036
		자원활용	0.533	0.059
지역문화활동	0.336	활동현황	0.259	0.087
		활동인력	0.741	0.249
지역문화향유	0.303	지역주민	0.634	0.192
		소외계층	0.366	0.111
총 합	1.000	총 합	4.000	1.000

3) 지수 산출

▶ 표준화된 지표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지수를 산출

- 분류별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인구수(명)와 문화예산비율과 같이 척도와 범위가 다른 각 지표를 합산하기 위해 지표별 표준화 과정이 필요함.
- 원자료를 표준화시킨 값(Z-score⁴)에 최종 도출된 가중치를 곱하여 중분류별 지수를 산출하고 네 개 대분류 값을 모두 더해 '지역문화지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함.
- SPSS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지표 값을 Z-score값으로 환산함.

〈표 II-3〉 최종 지역문화지수 산출결과

대분류	중분류	최종가중치	지역문화지수 산출공식	
지역문화정책	수립 및 실행	0.061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242=A^1$	정책지수 = $A^1+A^2+A^3$
	정책환경	0.055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218=A^2$	
	정책예산	0.136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540=A^3$	
지역문화자원	문화유산	0.015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138=B^1$	정책지수 = $B^1+B^2+B^3$
	기반시설	0.036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329=B^2$	
	자원활용	0.059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533=B^3$	
지역문화활동	활동현황	0.087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259=C^1$	활동지수 = C^1+C^2
	활동인력	0.249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741=C^2$	
지역문화향유	지역주민	0.192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634=D^1$	향유지수 = D^1+D^2
	소외계층	0.111	표준화된 지표 값 $\times 0.366=D^2$	
총 합		1.000	정책지수+자원지수+활동지수+향유지수=지역문화종합지수	

2 지역문화실태조사 실시 (자료수집)

1) 지역설명회 개최

▶ 지자체 문화 관련 공무원 대상 조사 취지 및 방법 설명

- 지역문화실태조사 소개와 원활한 행정자료 수집을 위해 4차에 걸쳐 전국 229개 자치단체 대상 지역설명회를 개최함.(2015.10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변경된 지표에 대한 설명과 최초 도입한 온라인 DB 입력 사이트 이용자 교육 등을 위해 조사 대상인 229개 자치단체 문화관련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설명회 참석을 요청하였음.
- 온라인 DB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과 시스템 입력 교육, 각 자치단체 별 아이디·패스워드 및 입력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함.

4) Z-score는 표준점수(Standard score)라고 하기도 하며, 평균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구함. 측정치 X와 평균치(Mean)의 차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나눈 수임



[그림 1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설명회 사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 본 조사 실시

▶ 229개 자치단체(기초 228개, 세종시)를 대상으로 행정자료 수집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 정책·자원·활동·향유 관련 행정자료 수집을 진행함.

▶ 기초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이 공동 입력 진행

-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총 지표는 27개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 단독 입력하는 지표 15개, 기초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이 공동 입력하는 지표 2개, 연구기관이 기존 통계 및 행정자료를 입력하는 지표는 9개임.
- (자치단체 입력) 각 기초자치단체별 고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부여되고 관계자가 직접 지역문화 D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각 지표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자료를 입력함.
- (연구기관 입력)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한 통계 및 현황자료는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온라인 DB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일괄적으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자료를 업로드함.

▶ 지역문화 DB 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자료 수집

- 지역문화지표에 해당하는 27개 세부지표의 각 자료를 온라인 DB 시스템을 통해 수집함.
- 지난 2개년 동안 실시된 ‘지역문화지표’ 관련 조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자료 수집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으며 발견된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 이에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시간 지역문화 정보 교환이 가능한 온라인 DB 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를 수집함.
- 온라인 DB 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원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입력 매뉴얼을 제작, 각 지자체의 입력자에게 배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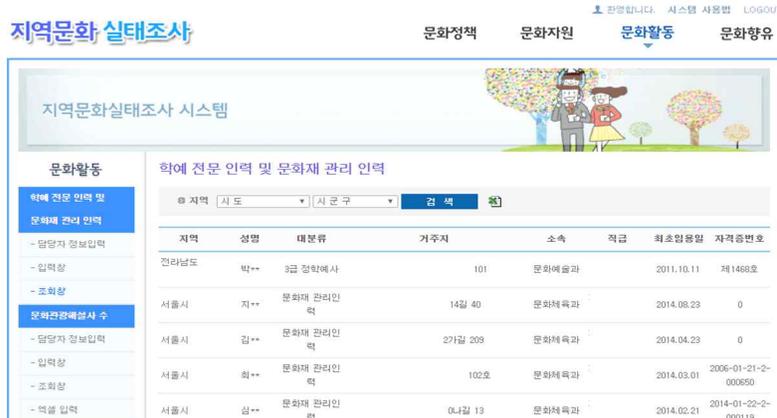
▶ **지자체별 순차적 입력**

- 자료 입력은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인 컴퓨터 서버 활용을 위하여 지역별 순차적으로 실시함.

〈표 II-4〉 지역문화실태조사 온라인 입력 세부 일정

차수	광역시도명	해당 기초자치단체 수	조사 기간
1차	광주, 전남, 전북	41개	2015.12.07.~2015.12.27.
2차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대전	50개	2015.12.28.~2016.01.03.
3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70개	2016.01.04.~2016.01.17.
4차	서울, 인천, 경기	68개	2016.01.18.~2016.01.31.
계	17개 광역시도	229개 기초자치단체	2015.12.07.~2016.01.31

*기입력 지표 중 보완 및 조정이 필요한 지표는 담당자 개별연락 후 조정 진행



[그림 II-7] 지역문화실태조사 온라인 DB 입력창(상) 및 출력창(하) 예시

3 자료 분석

1) 현황분석

▶ 수집된 27개 지표를 활용한 지역문화 현황분석

- 지역문화지표 각 세부지표별 현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 시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 지역의 문화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확대, 유지, 보완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의 목적, 수단, 대상자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단순 순위 매김이 아닌 지역 여건 및 문화적 특성 발굴에 초점

- 1위부터 229위까지 단순 순위 나열을 지양하며, 인구수, 재정자립도, 도시-농촌-도농통합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유형별 분석을 수행함.
- 본 지표의 최종 목적은 각 기초자치단체별 문화수준의 순위매김을 통한 비교가 아닌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표준 기준 설정 및 비교분석

▶ 다양한 비교분석 기준을 적용한 지역 간 문화역량비교

▶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 지역간 격차 분석에 있어 흔히 적용되는 기준이 수도권-비수도권임.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인구 및 주요 경제지표 등 전 영역에서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군구 지역임.

▶ 인구규모별 비교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4.1.1.기준)에 따라 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군·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구분함.

〈표 II-5〉 시 · 군 · 구(자치구) 단위 인구 구분

시	50만 명 이상 ⁵⁾	30-50만 명	10-30만 명	10만명 미만
	15	11	41	11
군	10-21만 명	5-10만 명	3-5만 명	3만 명 미만
	5	30	33	14
구 (자치구)	50-70만 명	30-50만 명	30만 명	
	8	32	2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4.01.01.기준)

▶ 도시-농촌-도농통합간 비교

- (도시 및 농촌 구분)전 행정구역이 동으로 표시된 기초자치단체는 도시, 읍 또는 면으로 표시된 지역은 농촌으로 구분함.
- (도농통합시) 지방자치법에 의거 1995년부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한 도농통합시가 설치되었으며, 2012년 기준 도농통합시는 총 59개임. 이 가운데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54개 표본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함.

▶ 재정자립도 기준 비교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수행 및 정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판단, 본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제시함.
- 회계연도 2014년 기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상(재정자립도가 높은 집단, n=77), 중(재정자립도가 중간인 집단, n=76), 하(재정자립도가 낮은 집단, n=76) 세 집단으로 구분함.

4 지역격차 분석

▶ T-test, 분산분석(ANOVA)을 통한 지역격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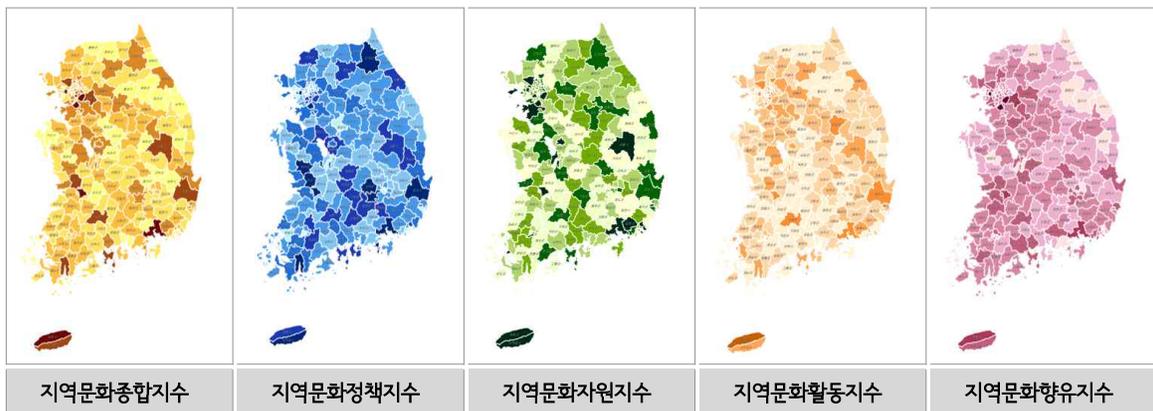
-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의 지역적 편중 및 과밀화로 인한 불균형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적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열위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

5) 50만 명 이상 거주 시: 수원(1,148,157), 창원(1,083,731), 성남(979,534), 고양(990,571), 용인(941,477), 부천(863,720), 안산(713,666), 청주(672,904), 전주(650,082), 남양주(618,305), 안양(607,877), 천안(591,089), 화성(530,251), 김해(522,049), 포항(519,467)

-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의 지원사항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측정도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번 2014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2014)에서는 2013년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조사와 동일하게 변동된 지표에 맞는 변이계수 적용 및 T-test와 분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정을 수행함.
 -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2012)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편차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이계수’를 적용함.
 -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2013)에서는 변이계수가 지닌 일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시행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시·도, 도시·농촌·도농복합 등의 집단 간 지역격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통계적인 검정을 진행함.

▶ 자료의 시각화

- 지리정보시스템(GIS), 각종 차트 및 그래프 등 다양한 분석 툴(tool)을 활용하여 시각화된 이미지를 제공함.
- 지역문화 DB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 심볼, 표 등을 통해 시각화된 이미지를 얻어냄으로써 수요자에게 직관적이고 가시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림 11-8] 2013 지역문화지표 분석 결과의 시각화 사례

03

제3장 2014 기준 지표별 현황분석

제1절 정책지표

1. 수립 및 실행
2. 정책환경
3. 정책예산

제2절 자원이표

1. 문화유산
2. 기반시설
3. 자원활용

제3절 활동지표

1. 활동현황
2. 활동인력

제4절 향유지표

1. 지역주민
2. 소외계층

제1절 정책지표

지표의 의미

- 각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의지, 정책 수행을 위한 환경 및 그에 따른 지원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문항들이 포함됨.
- 지역문화정책 지표는 문화 관련 종합계획 및 사업 수립 및 실행, 정책 환경, 문화예산 등 **3개 중분류 내 7개 지표**로 구성됨.

세부 지표

〈표 III-1〉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부문 세부지표

중분류	세부 지표	자료 출처
수립 및 실행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무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건수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정책환경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유무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자료 등 ¹⁾
	문화관련 조례 제정 유무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문화예산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비율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제공자료 ²⁾
	천 명당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규모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제공자료 ³⁾

1)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자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법체처 관련조례 자료를 함께 활용함

2)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公示된 기준연도 예산서(공개 예산서)에서 직접 수집함

3)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公示된 기준연도 예산서(공개 예산서)에서 직접 수집함

1 수립 및 실행

-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무
- ②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 관련 사업 선정 건수
- ③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무

▶ 지표의 의미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지역의 문화진흥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법에 근거하는 법정계획 이외의 문화 관련 종합계획 수립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체적으로 지역문화정책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집행과 실현 의지가 있음을 의미함.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문화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시행계획 등) 이외에 별도로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계획을 의미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는 계획을 의미함(「지역문화진흥법」 제6조1항).
-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한 계획임(「지역문화진흥법」 제6조4항).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조사를 위해 개설한 지역문화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입력 사이트 (<http://tour.go.kr/newloculture>) (이하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함.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계획명, 수립일, 소관부서 정보 수집

- 각 기초자치단체의 관내 부서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계획 및 수립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각 필드에 입력함.
- 문화 관련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립한 계획도 포함함.

▶ 현황 분석

▶ 229개 중 35개 지역(15.28%)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미수립 기초자치단체가 80%를 넘어서고 있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 설정과 체계적 정책계획 수립에 관한 지자체의 인식이 여전히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구(29.0%)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수가 가장 많았으며, 군(9.8%)과 시(9.0%)가 뒤를 이어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성과 체계성 수립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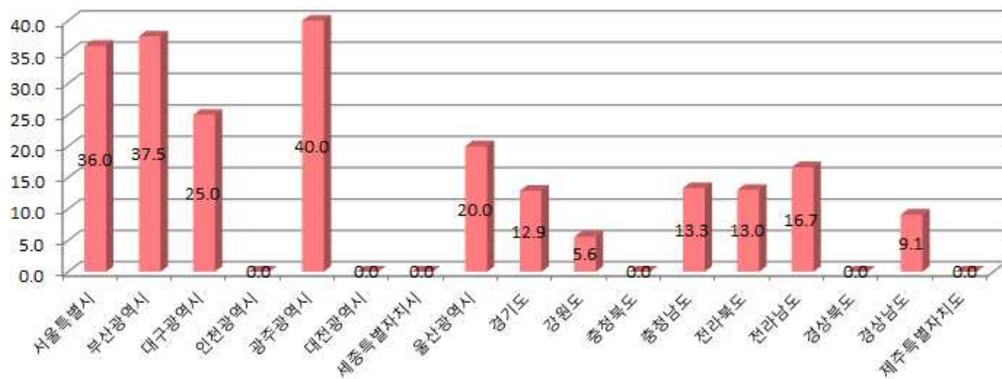
〈표 III-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무 현황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유	7(9.0%)	8(9.8%)	20(29.0%)
	무	71(91.0%)	74(90.2%)	49(71.0%)
2012	유	16(21.1%)	14(16.7%)	18(26.1%)
	무	60(78.9%)	70(83.3%)	51(73.9%)

- ▶ 시도별 수립지역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전체 5개 자치단체 중 2곳이 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높은 비율(60.0%)을 보임

- 광주광역시에 이어 부산광역시(6개, 37.5%), 서울특별시(9개, 36.0%), 울산광역시(1개, 20.0%), 전라남도(3개, 16.7%) 순으로 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한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특별·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III-1]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현황

<표 III-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7)	경기도(3)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강원도(1)	원주시
	전라북도(1)	전주시
	전라남도(1)	목포시
	경상남도(1)	창원시
군 (8)	경기도(1)	양평군
	충청남도(2)	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2)	진안군, 장수군
	전라남도(2)	곡성군, 장성군
	경상남도(1)	거창군
구 (20)	서울특별시(9)	중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6)	영도구, 동래구, 해운대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2)	북구, 달서구
	광주광역시(2)	동구, 서구
	울산광역시(1)	북구
계	35개 기초자치단체	

2)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 지표의 의미

▶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의 문화사업을 매칭시키기 위한 노력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문화 관련 정책 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지역의 사업과 매칭하려는 자치단체장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함임.

▶ 지표의 정의

▶ 문화관련 사업

- 문화관련 공모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과에서 직접 계획 또는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지칭함.
- 국비-시군구비, 도비-시군비, 국비-도비-시군구비 매칭사업 경우에 해당됨.

▶ 반드시 시군구비와 국비, 도비가 매칭된 사업만이 해당

- 반드시 시군구비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비 또는 도비 가운데 하나 이상 포함된 문화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됨.
- 사업에 국비와 도비만 포함, 시군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외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기준연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명시된 ‘문화예술관련 매칭공모사업’의 예산내역을 국비, 도비, 시군비 각 항목에 기입함.
- 또는 중앙정부 또는 특별·광역시에 공모한 사업 계획서 등 사업명과 사업비의 확인이 가능한 공식문서 상의 내역을 기입함.
- 사업비의 경우, 국비, 도비, 시군비의 합이 총사업비와 동일해야 하며, 국비, 도비, 시군비 모두 다 포함될 수도 있고, 국비와 시군비 또는 도비와 시군비만 포함될 수도 있음. 단, 시군비로만 시행하는 사업은 본 지표에 해당하지 않음.

▶ 현황분석

▶ 2014년 한 해 동안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1.89건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발주 문화관련사업 선정·수행

● 현황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1.89건의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발주 문화관련사업이 선정·추진되었음.

- (시 단위) 2.47건 > (군 단위) 1.95건 > (구 단위) 1.16건

〈표 III-4〉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사업 선정 현황

(단위: 건)

구분	전국	시	군	구
평균	1.89	2.47	1.95	1.16

〈표 III-5〉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사업 선정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4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광명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여주시, 부천시, 안산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주시, 나주시,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군 (47)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강원도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 철원군, 정선군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경상남도	거창군, 의령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구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서구,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북구, 달서구
	인천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계	120개 기초자치단체	

▶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20개(52.4%)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 사업을 선정

- 세종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관내 2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주광역시(4개, 80%)와 충청남도(11개, 73.3%)가 뒤를 이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하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표별 현황분석 시 본문에 별도의 비율을 표기하지 않음

3)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 지표의 의미

▶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파악 가능

-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문화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한 문화사업의 건수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자체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기준연도 본예산에 배정이 된 문화관련 사업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발주 문화사업’과는 달리 본 지표의 문화관련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경우를 말함.
- 사업 착수일이 2014년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만을 포함함.(전년도 연속사업 제외)

▶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없이 100%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

- ‘기준연도 본예산에 배정이 된 문화관련 사업’으로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없이 100%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만 해당함.
- 사업의 수행 주체가 본청이 아닐지라도, 예산의 출처가 기초자치단체이며 소속기관, 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사업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100%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의 ‘사업명-총사업비(시군구비)-총사업기간’으로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함.

▶ 현황 분석

▶ 2014년 한 해 동안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9.49건의 자체문화사업 추진

- 2014년 한 해 동안 1개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9.49건의 자체 기획 문화 사업을 추진함.
 - (시 단위) 14.79건 > (군 단위) 7.62건 > (구 단위) 5.71건
- 사업 추진의 유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사한 추진 비율을 보였으나,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건수가 가장 많았음.

〈표 III-6〉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현황

구분	전국	시	군	구
평균	9.49	14.79	7.62	5.71

(단위: 건)

▶ 229개 중 152개(66.38%)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문화사업을 추진함

- 시군구간 추진 유무 현황을 비교해 보면, 시(69.23%)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추진율(69.2%)을 보이고 있으며, 구 단위 (65.2%), 군 단위 (65.22%) 순으로 나타남.

〈표 III-7〉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유무 현황

구분	전국	시	군	구
유	152 (66.4%)	54 (69.2%)	53 (64.6%)	45 (65.2%)
무	77 (33.6%)	24 (30.8%)	29 (35.4%)	24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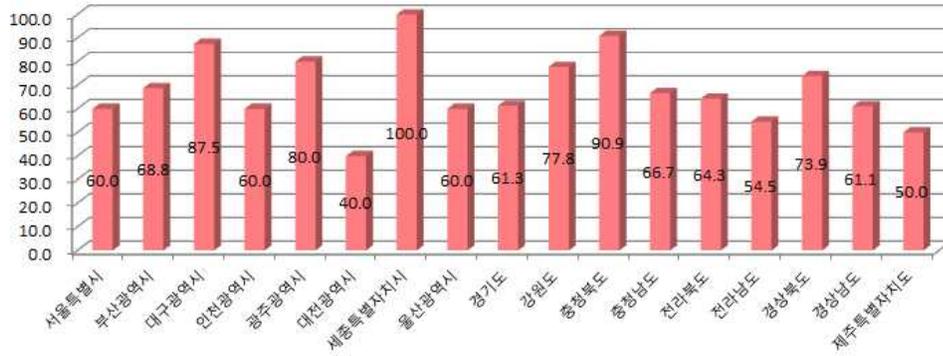
▶ 시군구간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문화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

- 평균 66.4%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사업 추진 노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시군구간 추진 비율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군구별로 자체 기획 문화사업이 고루 추진되고 있음.

▶ 광역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문화사업 추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북도(90.9%)

- 세종시를 제외한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관내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개에서 자체 문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자체사업 추진율을 보임. 이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III-2]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현황

<표 III-8>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54)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시	
	경기도(17)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구리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양주시, 여주시	
	강원도(5)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충청북도(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청남도(6)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라북도(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라남도(4)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경상북도(8)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상남도(4)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도(1)	서귀포시	
군 (53)	대구광역시(1)	달성군	
	인천광역시(1)	옹진군	
	울산광역시(1)	울주군	
	경기도(2)	양평군, 가평군	
	강원도(9)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7)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4)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전라북도(4)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전라남도(8)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9)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7)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구 (45)	서울특별시(15)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11)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6)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광역시(5)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광역시(4)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2)		중구, 유성구	
울산광역시(2)		중구, 남구	
계		152개 기초자치단체	

▶ 경기도 부천시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자체 문화사업 추진

- 경기도 부천시는 2014년 한 해 동안 총 116건의 자체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함. 이어 경기도 수원시(93건), 경상남도 창원시(89건) 순으로 나타남.

〈표 III-9〉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순위

(단위: 건)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1	경기도 부천시	116
2	경기도 수원시	93
3	경상남도 창원시	89
4	강원도 동해시	77
5	강원도 강릉시	75
6	전라남도 광양시	70
7	경기도 성남시	55
8	경기도 하남시	53
9	전라남도 진도군	46
10	전라남도 장흥군	45

4) 시사점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사업 계획 수립 등의 활발한 추진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지역문화진흥 추진(계획수립)은 다소 미비한 편임.
 - 기초자치단체는 단발성 이벤트 사업보다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효적 문화사업의 추진 필요

-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협업하거나 자체 기획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융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됨.
 - 다만 단발적인 이벤트성 문화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의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사업 기획·추진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임.

2 정책환경

- ①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유무
- ② 문화 관련 조례 제정 유무

1)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유무

▶ 지표의 의미

▶ 문화진흥기관의 설립 유무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파악

- 지역문화진흥기관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조직의 기능과 운영의 원칙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임.
- 문화진흥기관은 지역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인가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 유관기관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수준 및 관심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현재 기초지역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하고 관여하는 문화정책의 대부분을 구현하는 주체이자 주민과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지표의 정의

- ▶ 지역문화진흥기관에는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산업(콘텐츠) 관련기관 및 조례에 의해 출연한 기관 및 조직 포함
- ▶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콘텐츠) 기관
 - 지역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문화재단으로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에 등록된 문화재단만을 포함함.
 - 기초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콘텐츠)기관을 의미함.
- ▶ 조례에 의해 출연 또는 지원하는 기관 및 조직
 - 문화관련 위원회 등 조례를 근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및 조직을 의미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및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공동입력)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기관명-주소-연락처-대표자(위원장)’로 이루어진 ‘조례에 의해 출연 또는 지원하는 기관 및 조직’ 관련 정보를 입력함.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등록자료 수집

-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콘텐츠)관련기관 정보는 연구기관에서 입력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2014년 기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유무를 조사함.

▶ 현황 분석

▶ 229개 중 89개(38.9%)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설치된 기관의 총 수는 13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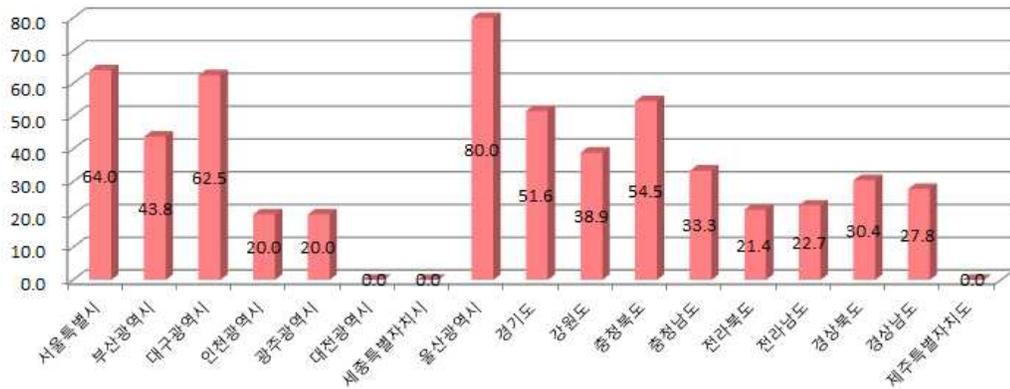
-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2012년 조사와 달리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및 ‘조례에 의해 출연 또는 지원하는 기관 및 조직’이 포함되어 문화진흥기관 수가 증가함(34개 → 133개).

〈표 III-10〉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유무 현황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유	38 (48.7%)	18 (22.0%)	33 (47.8%)
	무	40 (51.3%)	64 (78.0%)	36 (52.2%)
2012	유	24 (31.6%)	4 (4.8%)	7 (10.1%)
	무	52 (68.4%)	80 (95.2%)	62 (89.9%)

- 광역자치단체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와 관내 5곳 기초자치단체 중 4곳에 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경기도가 50% 이상의 높은 설치율을 보였음.
- 지역문화진흥기관이 설치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고 문화정책 구상과 사업실행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고 체계적일 것으로 예상됨.

(단위: %)



[그림 III-3]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자체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유무' 현황

<표 III-11>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38)	경기도(16)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군포시, 화성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강원도(3)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청북도(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청남도(5)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라북도(2)	전주시, 익산시
	전라남도(1)	목포시
	경상북도(3)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경상남도(5)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군 (18)	대구광역시(1)	달성군
	인천광역시(1)	강화군
	강원도(4)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충청북도(3)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전라북도(1)	부안군
	전라남도(4)	담양군, 강진군, 영암군, 진도군
	경상북도(4)	청송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구 (33)	서울특별시(16)
부산광역시(7)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4)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광역시(1)		부평구
광주광역시(1)		서구
울산광역시(4)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계	89개 기초자치단체	

2) 문화관련 조례 제정 유무

▶ 지표의 의미

▶ **문화정책에 대한 실행력 및 성과획득을 위한 노력 여부 확인 가능**

- 문화예술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은 지역의 문화정책과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 **지표의 정의**

▶ **법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문화관련 조례 및 규칙**

-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부서 내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조례의 경우 포함하며, 소관부서를 필히 명시하여야 함.
- 단, 규칙과 개정은 제외하며, 조례의 제정일이 자료수집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조례명-제정일-조례번호-관리책임부서’로 이루어진 ‘문화관련 조례 제정 유무’ 관련 정보를 입력함.
- 이때 입력하는 조례 및 규칙 정보는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현황 분석**

▶ **2014년 한 해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약 0.28건의 문화관련 조례를 제정**

- 2014년 한 해 동안 한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0.28건의 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조례를 제정함.

▶ **229개 중 49개(21.4%)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관련 조례를 제정**

-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4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군구별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비율이 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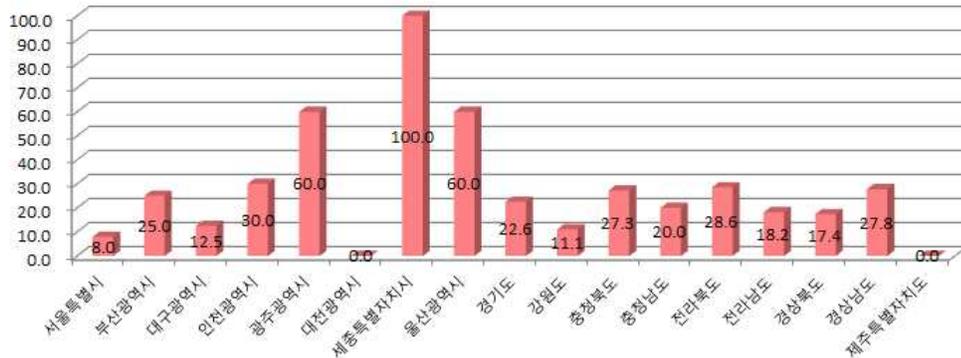
〈표 III-12〉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유무 현황

구분	전국	시	군	구
유	49 (21.4%)	18 (23.1%)	17 (20.7%)	14 (20.3%)
무	180 (78.6%)	60 (76.9%)	65 (79.3%)	55 (79.7%)

▶ 광역자치단체별 현황분석 결과 광주·울산광역시의 조례 제정이 활발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4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역시도별 현황 분석 결과 광주·울산광역시 소속 지자체의 조례제정 비율이 가장 높았음

(단위: %)



[그림 III-4]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문화관련 조례 제정' 현황

〈표 III-13〉 문화관련 조례 제정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18)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시
	경기도(6)	부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구리시, 하남시
	충청남도(2)	보령시, 서산시
	전라북도(2)	전주시, 정읍시
	경상북도(3)	김천시, 영주시, 경산시
군 (17)	경상남도(5)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인천광역시(1)	강화군
	울산광역시(1)	울주군
	경기도(1)	가평군
	강원도(2)	홍천군, 양구군
	충청북도(3)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1)	금산군
	전라북도(2)	완주군, 순창군
	전라남도(4)	보성군, 강진군, 함평군, 신안군
	경상북도(1)	예천군
	경상남도(1)	함안군
	구 (14)	서울특별시(2)
부산광역시(7)		서구, 남구, 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1)		동구
인천광역시(2)		중구, 남구
광주광역시(3)		동구, 서구, 남구
울산광역시(2)		동구, 북구
계	49개 기초자치단체	

3) 시사점

▶ 시군 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지역문화진흥기관은 지방문화원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 복리와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조사에 비해 전국적으로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지역 비율이 대폭 증가(14.8%→38.9%)하였으나,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특별·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진흥기관이 주로 설치된 경향을 보임.
-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대로 예산지원, 운영컨설팅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문화정책 추진의 기반인 문화 관련 조례 제정의 활성화

- 문화 관련 조례 제정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문화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2014년에 전국 229개 자치단체(세종시+기초자치단체) 중 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49곳에(21.4%)에 그침.
 - 박근혜정부 들어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법률이 제정된 만큼 중앙과 지방간 정책집행의 연계성 확보, 체계적인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차원의 문화 관련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예산

- ① 기준연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 ② 천 명당 기준연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1) 기준연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 지표의 의미

▶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산비율을 통해 전체 정책사업 대비 문화정책의 비중을 간접적으로 파악

-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문화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비율을 파악하여 지자체 전체 정책 사업 중 문화 분야의 비중을 분석할 수 있음.
- 문화 관련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역문화정책 추진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 되므로, 이를 파악함으로써 전체 정책사업 중 문화관련 정책의 비중을 확인함.

▶ 지표의 정의

▶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 기준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 2014년도 기초자치단체 본예산(당초예산)의 '기능별 세출총괄표'상의 예산내역을 기준으로 함.
- 본 지표 '총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연도 연간 예산 총액을 의미함
- '문화관련예산'은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의 문화 및 관광(060)의 세목인 문화예술(061), 관광(062), 체육(063), 문화재(064) 가운데 문화예술, 문화재의 합으로 함(관광, 체육 제외).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각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기준연도 예산서 자료 기준 수집

- 각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예산서의 본예산(당초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참조하여 직접 수집함.

〈표 III-14〉 기준연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수집 필드

구분	총예산 (A)	문화예술 (①)	문화재 (②)	문화관련 예산 (B=①+②)	비율 (C=B/A*100)
방법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자동연산)	(자동연산)
예시	200,000	2,000	1,200	3,200	1.6%

▶ 현황 분석

▶ 총 예산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은 평균 1.93%이며, 시(2.4%) > 군(2.0%) > 구(1.2%)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초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체 229개 자치단체 평균 문화예산(문화+문화재)은 1.93%로 나타남.
 - 시는 평균 2.43%, 군은 2.02%, 구는 1.2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시는 0.15%, 구는 0.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에 비해 문화 관련 예산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다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III-15〉 기초자치단체 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현황 (시·군·구 비교)

(단위: %)

기준연도	평균	시	군	구
2014	1.93	2.43	2.02	1.24
2012	2.04	2.58	2.02	1.52

▶ 특별·광역시보다 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문화예산 비중(기초자치단체 평균)이 특별·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가 1%대 중반(1.31%)인 반면, 도 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2%(2.23%)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산 비중은 평균 0.07%p 상승함(2.16%→2.23%)

〈표 III-16〉 기초자치단체 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현황 (특별·광역시, 도 비교)

(단위: %)

구분	특별·광역시	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1.31	2.23

*광역시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문화예산 평균으로 광역자치단체 자체 문화예산은 아님

▶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이 229개 자치단체 평균(1.93%) 이상인 자치단체는 98개임.

〈표 III-17〉 기초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이 평균 이상인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47)	경기도(19)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파주시, 구리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오산시, 여주시, 과천시	
	강원도(3)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청북도(2)	청주시, 제천시	
	충청남도(5)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전라북도(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전라남도(4)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경상북도(5)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경상남도(2)	통영시, 밀양시	
	제주특별자치도(2)	제주시, 서귀포시	
	군 (38)	부산광역시(1)	기장군
대구광역시(1)		달성군	
인천광역시(1)		강화군	
울산광역시(1)		울주군	
경기도(2)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5)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충청북도(3)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충청남도(4)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전라북도(2)		무주군, 고창군	
전라남도(6)		구례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경상북도(7)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경상남도(5)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구 (13)		서울특별시(2)	성동구, 광진구
		부산광역시(2)	금정구, 강서구
	대구광역시(1)	수성구	
	인천광역시(3)	중구, 연수구, 부평구	
	광주광역시(2)	동구, 남구	
	대전광역시(1)	유성구	
	울산광역시(2)	중구, 북구	
	계	98개 기초자치단체	

2) 천 명당 기준연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 지표의 의미

- ▶ 지역 주민 수를 감안한 예산 규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느끼는 문화정책의 수준을 파악

● 기초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의 비율이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정책의 위상을 의미한다면, 인구 천 명당 문화관련 예산 규모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표의 정의

- ▶ 문화 관련 예산 및 기초자치단체 인구 수

- ‘문화관련 예산’은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의 문화 및 관광(060)의 세목인 문화예술(061), 관광(062), 체육(063), 문화재(064) 가운데 문화예술, 문화재의 합으로 함(관광, 체육 제외).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각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기준연도 예산서 및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 각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예산서의 본예산(당초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참조하여 직접 수집 (문화관련예산 비율 지표의 예산과 동일)
- 2014년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함.

※ 천 명당 문화관련 예산 규모

$$= 2014년 문화관련 예산총액 \times \frac{1,000(명)}{\text{기초자치단체 총인구수}}$$

▶ 현황 분석

▶ 인구 천 명당 문화관련 예산은 군 > 시 > 구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 천 명당 문화관련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80,289천 원으로 나타남.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시 평균 72,836천 원, 군 평균 142,653천 원, 구 평균 14,600천 원으로 인구 대비 문화관련 예산액은 군이 가장 높음.
- 2012년 현황과 비교해 보면, 인구 천 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의 규모는 시, 군, 구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8〉 인구 천 명당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72,836	142,653	14,600
2012	평균	68,474	126,076	14,562

- ▶ 인구 천 명당 문화관련 예산규모가 229개 자치단체 평균(80,289천원) 이상인 자치단체는 87개인 것으로 확인

〈표 III-19〉 천 명당 기준연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이 평균 이상인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21)	경기도(4)	안성시, 하남시, 여주시, 과천시	
	강원도(1)	강릉시	
	충청북도(1)	제천시	
	충청남도(3)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전라북도(3)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전라남도(2)	순천시, 나주시	
	경상북도(4)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경상남도(2)	통영시, 밀양시	
	제주특별자치도(1)	서귀포시	
	군 (65)	부산광역시(1)	기장군
인천광역시(1)		강화군	
경기도(2)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9)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6)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6)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전라북도(7)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11)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경상북도(12)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구(1)		부산광역시(1)	강서구
계		87개 기초자치단체	

3) 시사점

▶ 문화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 추진

- 2012년 기준 조사보다 본 조사에서의 인구 천 명당 문화정책 예산규모 평균액은 약 5,939천 원 상승(74,350천 원→80,289천 원)함.
 -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예산 비율(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은 평균 1.93% 수준이며, 229개 중 98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국적으로 평균 2% 이상의 문화재정 확보율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단순히 문화예산 증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보한 문화재정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독려와 유도가 필요함.

제 2 절 자원 지표

지표의 의미

-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기반시설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의 조성여부와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하여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잠재적 역량을 측정하고자 함.
- 지역문화자원 지표는 문화유산, 기반시설, 자원활용 등 **3개 중분류 내 8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세부 지표

〈표 III-20〉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부문 세부 지표

중분류	세부지표	자료출처
문화유산	지자체 지정 문화재 수	문화재청 자료
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 수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¹⁾
	생활문화시설 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등 ²⁾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유무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준수여부 및 좌석비율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자원활용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일인당 장서 수 증가율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인구현황 ³⁾

1) 기초자치단체에서 DB페이지에 입력한 자료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를 함께 활용함

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3)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행정자치부 기준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1 문화유산

① 기초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수

1) 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수

▶ 지표의 의미

▶ 지역 내 전통문화재 발굴 및 보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를 반영

- 지정문화재의 지정, 보호 및 관리는 각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세부내용을 조례로 지정 후 추진되므로 일정 정도 문화재 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 내 문화재의 발굴·지정·보전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 지표의 정의

▶ 지자체 지정문화재에는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를 포함

- ‘지자체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달리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하여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의미함(〈표 III-20〉 참조).

〈표 III-21〉 자치단체 지정 문화재의 종류

구분	정의	종류
시도지정 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
등록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근대문화유산 등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재청의 자치단체 지정문화재 자료정보를 직접 수집함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우리지역문화재’에서 해당 자료를 수집함.
- 2014년 한 해 동안 지정된 지정 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의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정보를 수집함.

▶ 현황 분석

▶ 2014년 한 해 동안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지정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80 개 지자체에서 문화재를 지정함

-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시도지정문화재(하위분류 4개)’를 등록한 지자체는 35개(15.3%), ‘등록문화재’는 40개(17.5%), ‘문화재자료’는 24개(10.5%) 지자체에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2〉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지정 현황

(단위: 개, %)

기준연도	구분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2014	지자체 수(평균)	35(15.3)	40(17.5)	24(10.5)

①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 2014년 한 해 시도지정문화재를 등록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35개(15.3%)

- 시도지정문화재의 하위분류별로 살펴보면, 시도지정 ‘유형문화재’를 등록한 지자체는 23개(10.0%)이며,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는 6개(2.6%), 시도지정 ‘기념물’은 10개(4.4%), 시도지정 ‘민속문화재’는 1개(0.4%)의 자치단체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됨.

〈표 III-23〉 시도별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시·도명	A	B	C	D	총계	시·도명	A	B	C	D	총계
서울	10	2	6	-	18	경기	2	-	-	1	3
부산	15	3	-	-	18	강원	3	-	-	-	3
대구	-	-	-	-	-	충북	3	-	4	-	7
인천	-	-	2	-	2	충남	1	1	-	-	2
광주	-	-	-	-	-	전북	-	-	-	-	-
대전	1	-	-	-	1	전남	-	-	1	-	1
세종	4	-	-	-	4	경북	2	-	-	-	2
울산	3	-	-	-	3	경남	17	-	-	-	17
						제주	-	-	-	-	-

A: 시도지정유형문화재 B: 시도지정무형문화재
C: 시도지정기념물 D: 시도지정민속문화재

▶ 2014년 가장 많은 시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남도 합천군

-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남 합천군이 2014년 한해 동안 11건의 시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여 가장 많았음.

〈표 III-24〉 2014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기초자치단체 순위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정 문화재수
1	경남 합천군	11
2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경남 하동군	6
5	부산 기장군	5
6	세종시	4
7	서울 종로구, 부산 서구, 강원 평창군	3

(단위: 개)

② 등록문화재 현황

▶ 2014년 한 해 등록문화재를 등록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40개(17.5%)

- 시 단위의 경우 총 19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으며, 군 단위 10개, 구 단위 11개로 2012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군 단위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내 7개 기초자치단체가 등록문화재를 등록하여 가장 많았고 하나의 등록문화재도 지정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3곳(인천, 세종, 충북)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25〉 2014년 등록문화재 보유 기초자치단체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19)	경기도(6)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충청남도(3)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전라북도(3)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전라남도(2)	목포시, 순천시
	경상북도(1)	문경시
	경상남도(3)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1)	제주시
군 (10)	경기도(1)	양평군
	강원도(1)	평창군
	충청남도(2)	예산군, 서천군
	전라북도(4)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경상북도(1)	청도군
	경상남도(1)	의령군
	구 (11)	서울특별시(3)
부산광역시(2)		금정구, 동구
대구광역시(1)		동구
광주광역시(2)		동구, 북구
대전광역시(2)		중구, 유성구
울산광역시(1)		중구
계	40개 기초자치단체	

③ 문화재자료 현황

▶ 2014년 한 해 문화재자료를 등록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24개(10.5%)

- 시 단위의 경우 총 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군 단위 9개, 구 단위 7개로 구 단위의 문화재자료 보유 현황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내 7개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재자료를 등록하여 가장 많았고 하나의 등록문화재도 지정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3곳(인천, 세종, 충북)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26〉 2014년 문화재자료 보유 기초자치단체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8)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시
	경기도(3)	고양시, 안산시, 의왕시
	강원도(2)	원주시, 태백시
	전라북도(1)	군산시
	경상북도(1)	경주시
군 (9)	부산광역시(1)	기장군
	울산광역시(1)	울주군
	경기도(1)	가평군
	강원도(1)	평창군
	경상북도(2)	의성군, 칠곡군
	경상남도(3)	의령군, 고성군, 거창군
구 (7)	서울특별시(1)	종로구
	부산광역시(3)	서구, 남구, 금정구
	인천광역시(2)	연수구, 서구
	광주광역시(1)	북구
계	24개 기초자치단체	

2 기반시설

- ① 문화기반시설 수
- ② 생활문화시설 수
- ③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유무
- ④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준수여부 및 좌석비율

1) 문화기반시설 수

▶ 지표의 의미

- ▶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및 지역 간 문화격차 수준 파악에 용이

-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정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함.
 - 이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보장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본 지표의 조사 결과는 중앙정부의 경우 지역에 산재된 문화시설의 현황과 실태 파악에 유용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문화기반시설의 범위

- 2012년 기준 조사에서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작은도서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관련 기반시설을 통합하여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로 범위를 재설정함.
- 본 지표의 선정기준에 의해 민간의 영역은 제외하며, 공적 투자 및 지원이 전제되는 시설 및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연간 『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보급·전수시설을 포함함.
- 2014년 기준 조사에서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 문화보급·전수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시설의 상세분류(제2조 제2항)에 준하여, 해당시설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만을 포함함.

〈표 Ⅲ-27〉 문화보급·전수시설 포함 범위

상위시설명	세부시설명	설 명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 가능한 시설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및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공동입력)

▶ DB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문화보급·전수시설-시설명-주소-연

락처'로 이루어진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관련 정보를 입력함.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등록자료 수집

- 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정보는 연구기관에서 입력함.

▶ 현황 분석

▶ 문화기반시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세종시 포함) 전체(229개)에서 운영, 1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7.5개의 문화기반시설 운영

- 2014년 기준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7.5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 단위는 평균 10.6개, 군 단위 평균 5.6개, 구 단위 평균 6.1개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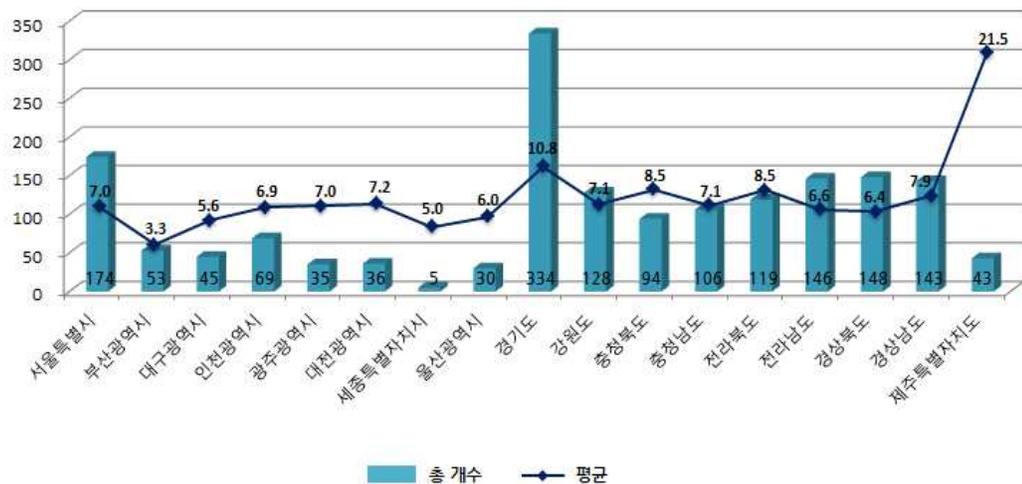
〈표 III-28〉 지자체 평균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10.6	5.6	6.1

(단위: 개)

- 광역시도 내 문화기반시설의 총 개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34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순임.
 -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숫자를 보인 곳은 울산광역시로, 총 5개 기초자치단체에 30개 문화기반시설이 분포한 것으로 분석됨.
- 광역시도별 관 내 기초자치단체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 평균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내 1개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21.5개로 가장 많았음.

(단위: 개)



[그림 III-5]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평균 및 총 개수

▶ **문화기반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와 창원시**

- 문화기반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이며, 각각 25개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함.
- 그 뒤를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4개, 충청북도 청주시 23개, 경기도 부천시 22개, 경기도 고양시 21개 등임.

〈표 Ⅲ-29〉 2014년 문화기반시설 수 기초자치단체 순위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문화기반시설 수
1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5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4
4	충청북도 청주시	23
5	경기도 부천시	22
6	경기도 고양시	21
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9
8	경기도 용인시	18
9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17
11	경기도 성남시·안산시·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16
15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진도군	15

(단위: 개)

▶ **각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분석**

- 2012년 기준 조사의 문화기반시설 수 지표분석 기준인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분석을 본 조사 결과에도 적용함.
-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 수의 조사는 각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수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의 기준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기준 인구 수를 적용하여 현황 분석을 실시함.

※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text{문화기반시설 수} \times \frac{100,000(\text{명})}{\text{기초자치단체 총인구수}}$$

▶ **인구 십만 명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문화기반시설 수는 평균 6.93개**

- 인구 십만 명당 평균 6.93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시 단위에서는 평균 4.96개, 군 단위 평균 12.69개, 구 단위 평균 2.29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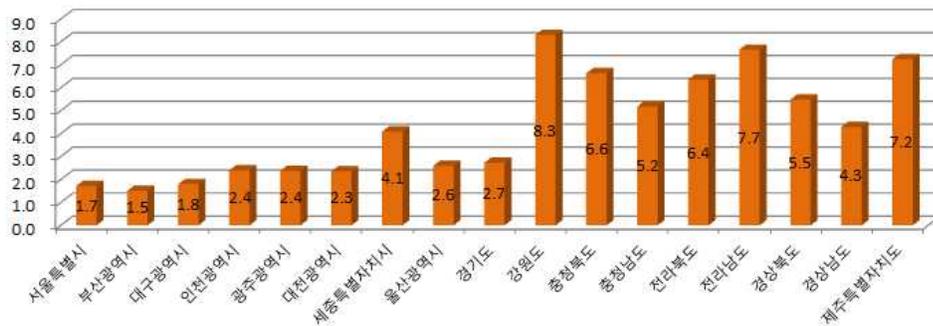
〈표 Ⅲ-30〉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6.93	4.96	12.69	2.29

(단위: 개)

- 인구 십만 명당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로 약 8.3개임. 다음으로 전라남도 7.7개, 제주특별자치도 7.2개 순임.

(단위: 개)



[그림 Ⅲ-6]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2) 생활문화시설 수

▶ 지표의 의미

▶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평가

-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해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파악함.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함.
- 민간 부문은 제외하며, 공공 투자 및 지원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함.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을 포함함.
 - 「지역문화진흥시행령」 제2조의1호, 4호(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및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작은도서관 수의 합계를 생활문화시설 수로 활용.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유관기관 통합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수집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및 2014년 기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 생활문화시설 정보를 수집함.

▶ 현황 분석

▶ 생활문화시설은 전국 자치단체 전체(229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7.9개 보유

- 2014년 기준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7.9개의 생활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한편 시 단위 평균 9.7개, 군 단위 평균 3.7개, 구 단위 평균 10.9개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표 III-31〉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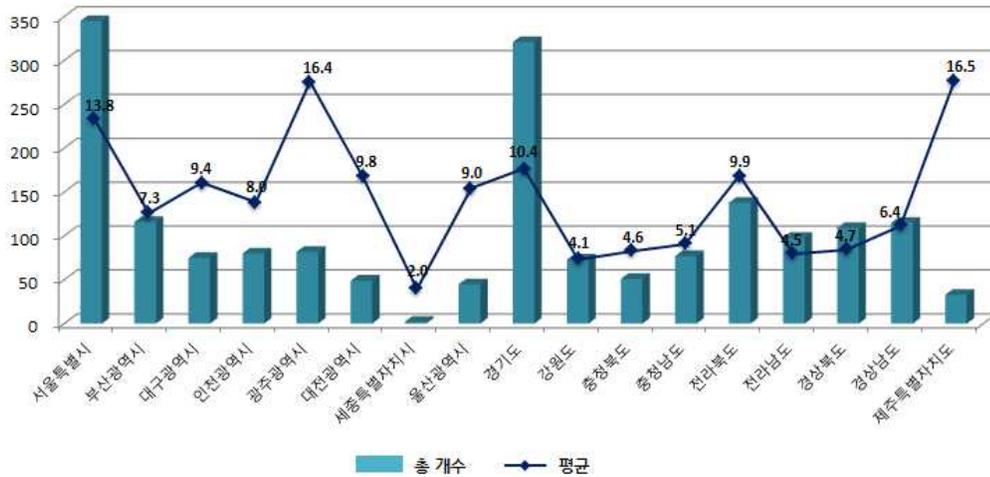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9.71	3.68	10.87

(단위: 개)

▶ 광역시도별 현황 분석 결과 서울·경기 지역에 생활문화시설 다수 분포

- 광역시도 내 생활문화시설의 총 개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345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경기도가 321개로 뒤를 이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생활문화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 광역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생활문화시설 수 평균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내 1개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16.5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광역시 16.4개, 서울특별시 13.8개로 뒤를 이음.

(단위: 개)



[그림 III-7] 시도별 생활문화시설 평균 및 총 개수

▶ 생활문화시설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

- 생활문화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창원시로, 총 43개를 보유하고 있음.
- 그 뒤를 이어 경상북도 포항시 39개, 광주광역시 북구 37개, 경기도 성남시 32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30개 순임.

<표 III-32> 2014년 생활문화시설 수 기초자치단체 순위

(단위: 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생활문화시설 수
1	경상남도 창원시	43
2	경상북도 포항시	39
3	광주광역시 북구	37
4	경기도 성남시	32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강서구, 전라북도 전주시	30
8	서울특별시 양천구	28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7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구	23
12	경기도 남양주시	22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김해시	21

▶ 각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 분석

- 2012년 기준 조사 시 문화기반시설 수 지표분석 기준인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결과를 이번 조사에도 적용함.
-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대비 생활문화시설 수 분석은 각 지역의 시설 이용자인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시설 수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의 2014년 기준 인구수를 적용하여 현황 분석을 실시함.

※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text{생활문화시설 수} \times \frac{100,000(\text{명})}{\text{기초자치단체총인구수}}$$

▶ **인구 십만 명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생활문화시설 수는 평균 5.28개**

- 인구 십만 명당 기초자치단체 평균 5.28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시 단위 평균 3.73개, 군 단위 평균 7.99개, 구 단위 평균 3.80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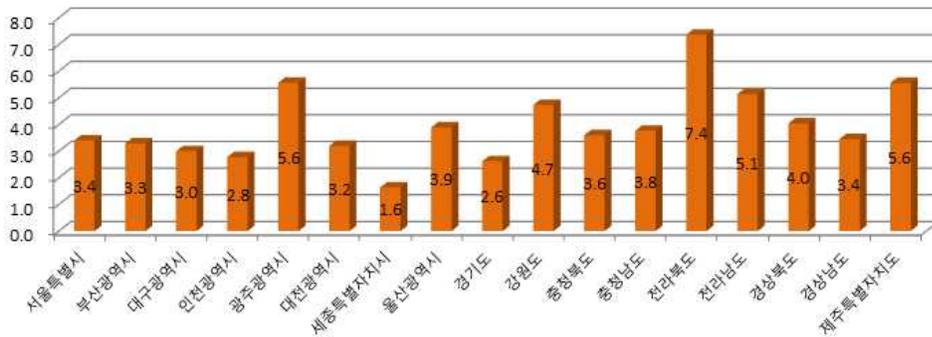
〈표 Ⅲ-33〉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5.28	3.73	7.99	3.80

(단위: 개)

-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라북도가 인구 십만 명당 가장 많은 생활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순임.

(단위: 개)



[그림 Ⅲ-8]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

3)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유무⁶⁾

▶ **지표의 의미**

▶ **문화향유의 양성평등권 확보를 위한 양적·질적 수준 파악**

- 문화시설의 여성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여성, 특히 임산부의 안전·편리·배려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6) 2014년 수정 지표임 (2012년 기준 조사 시 '대표공연장 및 전시장 어린이 보호·수유시설 유무')

- 문화시설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 모유수유 공간 등 육아 관련 시설이 확보되면 보육문제로 문화생활에 제약을 겪는 영유아 동반 여성도 편리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음.
- 문화향유의 양성평등권 실현 차원에서 문화시설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확보는 지역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특히 확보여부와 더불어 시설수준 및 서비스와 같은 질적인 부분 또한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지표의 정의

▶ 공연장 및 전시장

- 공연장은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지칭함.
- 전시장은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지칭함.

▶ 모유수유시설 설치 유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법적인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임.
- 이에 의거,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의미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대분류(공연장/전시장 택1)-시설명-주소-모유수유시설 개수'로 이루어진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관련 정보를 입력

▶ 현황 분석

▶ 전국적으로 60개(26.2%) 기초자치단체만이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에 모유수유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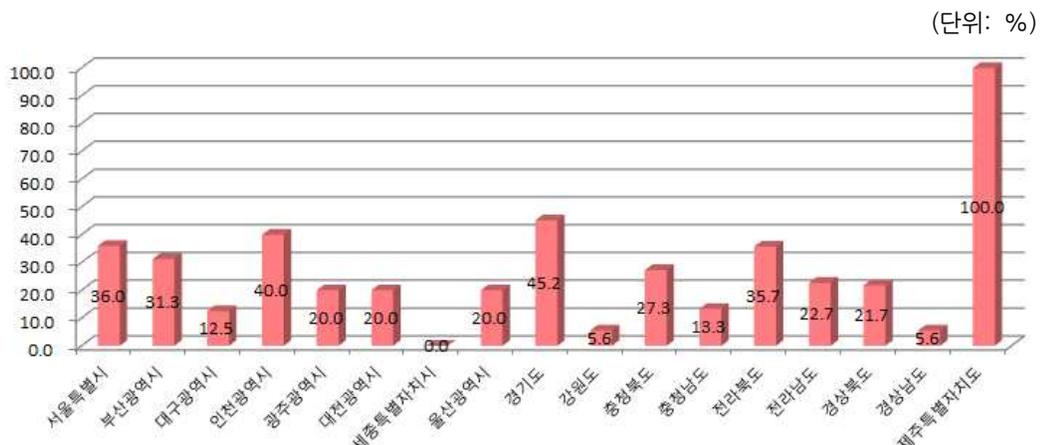
-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26.2%인 60개 자치단체의 공공 공연장 및 전시장에 모유수유시설을 갖추고 있음. 시 단위의 경우 26개(33.3%), 구 단위의 경우 15개(27.5%)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연장 및 전시장에 모유수유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 군 단위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18.3%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설보완 및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III-34〉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유무 현황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유	60 (26.2%)	26 (33.3%)	15 (18.3%)	19 (27.5%)
	무	169 (73.8%)	52 (66.7%)	67 (81.7%)	50 (72.5%)

▶ 제주도 관내 공연장 및 전시장은 모두 모유수유시설을 갖춘 반면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설치 문화시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의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율이 높았음(45.2%).
- 전국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인 광역시도는 총 7개임.
 - 즉 제주·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상 외의 낮은 설치 수준



[그림 III-9]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보유' 현황

4) 공연장 장애인 좌석의 법적 준수여부 및 좌석비율⁷⁾

▶ 지표의 의미

▶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 여부 확인

- 문화향유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장애인 전용(휠체어 사용) 좌석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의 문화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 이의 설치여부는 장애인의 권익 향상,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배려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지표의 정의

▶ 장애인 좌석 및 장애인 좌석 비율 산식

-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 설치의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준수여부 및 좌석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장애인 좌석’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으로, 관람장의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수가 2천 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장애인 좌석 비율 산식

$$\text{장애인 좌석 비율}(\%) = \frac{\text{공연장내 장애인 좌석 수}}{\text{공연장내 총 좌석 수}} \times 100$$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공공설립·운영 공연장의 ‘시설명-장애

7) 2012년·2014년 기준 조사 동일 지표임

인좌석 유무-총 좌석 수-장애인좌석 수' 정보를 입력하면, DB입력 페이지에서 장애인 좌석 비율을 자동연산함.

- 기초자치단체 내 속한 공공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공연장(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제외)의 장애인 좌석 설치 유무를 입력함.
- 장애인 좌석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공연장의 총좌석수만 입력함
- 장애인 좌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공연장의 총좌석수와 장애인 좌석수를 입력하면 장애인 좌석의 비율이 자동 연산됨.

▶ 현황 분석

▶ 전국적으로 161개(70.3%)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설립·운영 공연장에 장애인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 단위 73.1%, 군 단위 64.6%, 구 단위 73.9%의 기초자치단체 내 공공설립·운영 공연장에 장애인 좌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 좌석 설치는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나, 68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설립·운영 공연장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 좌석을 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군 단위는 설치율이 64.6%로 전체 평균(70.3%) 이하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공공 공연장 장애인좌석 설치비율 상승

- 2012년 기준 지역문화지표 조사의 경우 152개(66.4%) 기초자치단체 내 공공 공연장에서 장애인좌석을 보유했으나, 이번 2014년 기준 조사는 총 161개(70.3%)로 장애인 좌석 설치 공연장 수 및 설치비율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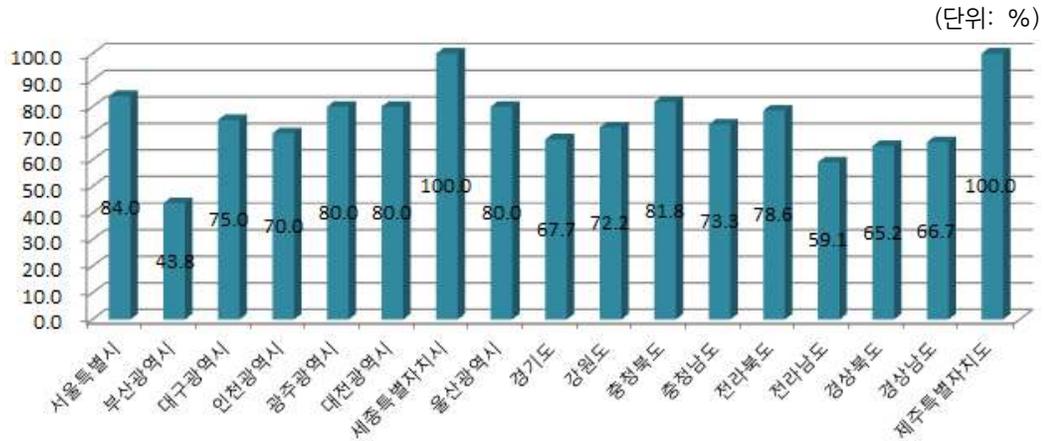
〈표 III-35〉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내 장애인좌석 준수 여부 현황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유	161 (70.3%)	57 (73.1%)	53 (64.6%)	51 (73.9%)
	무	68 (29.7%)	21 (26.9%)	29 (35.4%)	18 (26.1%)
2012	유	152 (66.4%)	57 (75.0%)	49 (58.3%)	46 (66.7%)
	무	77 (33.6%)	19 (25.0%)	35 (41.7%)	23 (33.3%)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공연장의 장애인 좌석 설치비율 100%

- 제주의 관내 공연장 장애인 좌석 설치 비율은 2012년 기준 조사와 동일하게 100%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충북의 공연장 내 장애인좌석 설치비율은 80%를 넘음.

반면 부산, 전남, 경북, 경남은 70% 이하의 설치율을 보여 개선이 필요함.



[그림 III-10]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 설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법적 기준 준수도 100%. 부산은 설치된 공연장 중 43.8%만이 법적 기준 준수

- 장애인좌석 설치유무와 더불어 법적 기준 준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지표임.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장애인 좌석은 전체 좌석 중 1% 이상임.
- 광역시자치단체별로 관내 기초자치단체 공공공연장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연장은 모두 준수하고 있었음.
 - 서울, 충북, 광주, 대전은 80%를 넘어선 반면, 부산은 43.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표 III-36> 시도 내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내 장애인좌석 준수여부 및 좌석비율 평균

(단위: %)

시·도명	준수여부	좌석비율	시·도명	준수여부	좌석비율
서울	84.0	1.10	경기	67.7	0.81
부산	43.8	0.83	강원	72.2	1.15
대구	75.0	0.91	충북	81.8	1.31
인천	70.0	1.14	충남	73.3	0.75
광주	80.0	1.41	전북	78.6	1.96
대전	80.0	1.05	전남	59.1	0.96
세종	100.0	1.38	경북	65.2	0.87
울산	80.0	1.07	경남	66.7	1.35
			제주	100.0	1.02

5) 시사점

▶ 군 단위 지역민의 문화기반시설 이용 제약 해소 필요

- 현황분석 결과 시군구별 문화기반시설 수는 시 단위 평균 10.6개, 군 단위 5.6개, 구 단위 6.1개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자립도, 인구 수, 면적 등의 측면에서 도시 규모가 비교적 작고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군 단위의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문화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생활문화시설 확충,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 사업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생활문화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 생활문화시설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마련,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작은영화관 및 도서관 등이 포함되며, 지역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한 구심점임.
- 생활문화시설은 서울·경기권에 많은 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을 보면 특별·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보다 도(道)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더 많았음.
- 생활문화시설은 주민 입장에서 문화향유의 중요한 채널이며, 지역문화 진흥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음. 특히 민간차원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지역(주로 군)은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문화향유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설 확충 필요

-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비율은 전국 평균 26.2%, 장애인좌석 준수여부 70.3%로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전반적인 설치율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지역적인 편차는 여전히 존재함. 특히 모유수유시설 설치비율의 경우 제주·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대체로 낮은 설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설 보완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모든 주민에게 사회적 차별이 없는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3 자원활용

- ①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수
- ①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 ②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1)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 지표의 의미

▶ 각 기초자치단체에 배치된 문화시설의 실질적인 활용 정도 파악 가능

- 문화시설의 설치만으로 그 지역의 문화활동이 활발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시설의 활용 및 가동 빈도를 파악하여 수요자(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문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지표에서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등록된 문예회관 내 공연장의 가동일 수를 파악하여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공연, 교육, 기타행사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의 노력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2014년 기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등록된 문예회관

- ‘문예회관’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등록된 문예회관을 기준으로 하며, 문예회관 내 공연장이 여러 개일 경우, 공연일수가 가장 많은 공연장 1곳을 기준으로 함.
- 문예회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가운데 공연일수가 가장 많은 공연장 1곳을 기준으로 함.

▶ 공연장 가동일수 산식

- 기초자치단체 공연장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가동된 일수는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공연장 가동일 수 산식

$$= \text{공연일수} + \text{공연준비일수} + \text{기타 행사일수}$$

- 공연일수: 공연이 1회 이상 있었던 날짜의 수를 의미 (하루에 3회 공연이 있었다 해도 1일로 산정)
- 공연준비일수: 공연을 위한 사전준비(무대제작 및 철거)에 소요된 일수
- 기타행사일수: 영화상영, 일반행사, 학생발표회, 대중음악 및 연예 등이 해당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등록 문예회관 혹은 지자체 운영 대표 공연장의 ‘문예회관 명(공연장 명)-공연장 명-공연일수-공연준비일수-기타행사일수’ 정보를 입력하면, DB입력 페이지에서 ‘공연장 가동일수’를 자동 연산함.

▷ 현황 분석

▶ 문예회관을 비롯한 자치단체 공연장은 평균 151.65일 가동

- 문예회관 내 공연장 및 대표 공연장은 2014년 연중 평균 151.65일 가동된 것으로 확인됨.
- 시·군·구별 평균 가동일 수를 살펴보면, 시 단위는 평균 206.05일, 군 단위는 95.38일, 구 단위는 157.03일로 나타나 시 단위의 평균 가동일 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함.

〈표 III-37〉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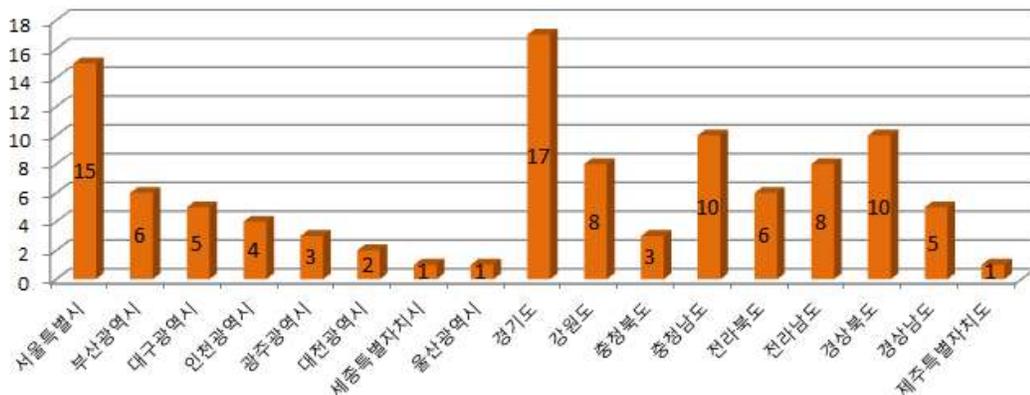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206.05	95.38	151.03
2012	평균	204.20	100.45	194.32

(단위: 일)

▶ 총 10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균 가동일 수 이상으로 공연장을 가동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평균 공연장 가동일 수인 151.65일 이상 공연장을 가동한 자치단체는 105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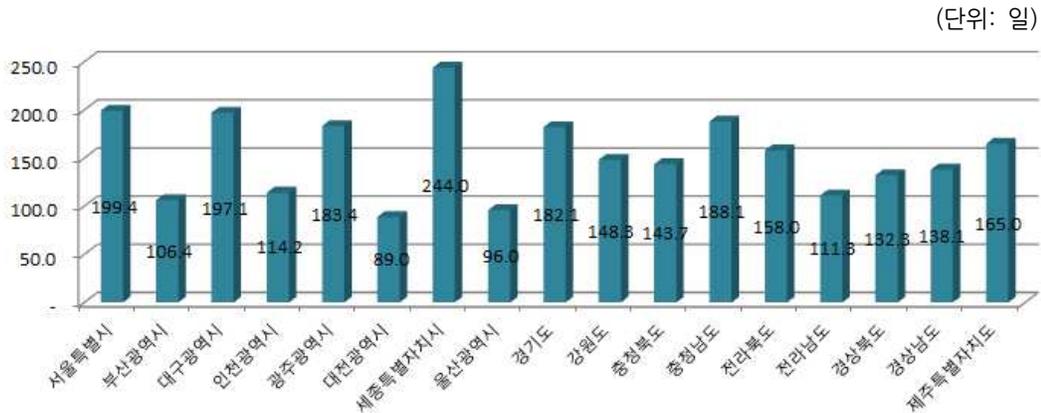
(단위: 개)



[그림 III-11] 시도별 ‘평균 이상 공연장 가동일 수 보유 기초자치단체 수’ 현황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순으로 관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공연장 가동 일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 가동일 수인 151.65일 이상 공연장을 가동한 광역시도는 8개임.
- 전국 평균 이상 공연장 가동일 수 광역시도 : 세종, 서울, 대구, 충남, 광주, 경기, 제주, 전북



[그림 III-12]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현황

2)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 지표의 의미

▶ 지역축제 예산은 지역축제의 양적·질적 성과를 포괄하는 지표

- 지역문화자원으로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및 향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 기초자치단체마다 축제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 양적 증가가 지역축제의 긍정적 성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축제의 수로만 파악을 할 경우 무분별한 축제의 양적 확대만을 부추기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역축제의 평균예산을 적용하여 파악함.

▶ 조작적 정의

▶ 지역축제의 범위

- 본 지표의 축제는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문화체육관광부)'에 명시된 축제만을 기준으로 함.
- 이는 각 시도에서 매 년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를 종합한 총괄자료임

-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에 해당하는 대상축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 지자체 주관(주최)하는 축제, 지자체에서 경비 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등이 포함됨

▶ 지역축제 평균예산

- 지역축제의 양적·질적 성장 모두를 일정 포괄하며,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로 평균예산의 개념을 적용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지역축제총괄표」를 기준으로 작성

-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에 명시된 지역축제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집하여 지역축제명과 축제예산 총액을 DB 시스템에 입력함
 - 최종적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1개 축제 평균 예산이 자동적으로 계산됨
- ‘지역축제명-축제예산’을 입력한 후 지역축제예산의 총합계를 지역축제 수로 나누어 축제 1개 당 평균예산을 자동 연산함

▶ 현황 분석

▶ 전국 지역축제 예산은 평균 약 846백만 원, 시군구 중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지역축제 예산이 가장 많음

- 2014년의 전국 지역축제예산 평균은 846백만 원임. 이 중 시 단위는 평균 1,230백만 원, 군 단위 962백만 원, 구 단위 275백만 원으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지역축제 예산이 가장 많음.

〈표 III-38〉 시군구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지역축제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1,230	962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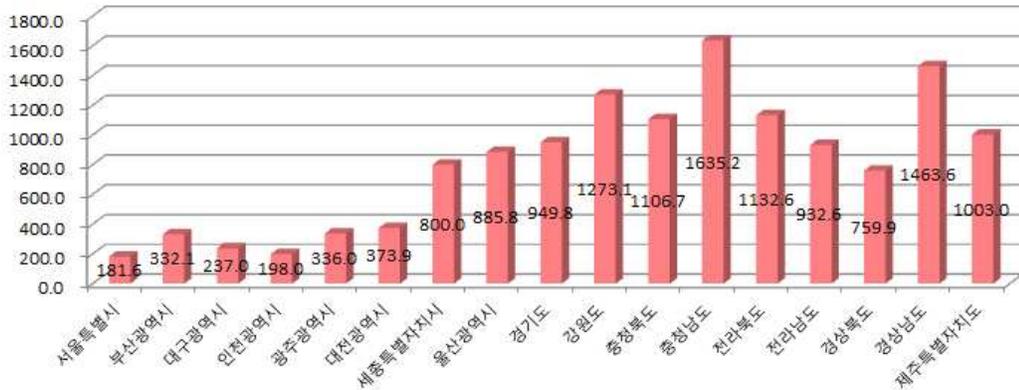
▶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순으로 관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지역축제 예산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광역시 지역의 지역축제예산액보다 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지역축제

예산액이 많은 것을 확인함.

- 평균 축제예산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충청남도(1,635.2백만 원)이며, 서울시가 가장 적은 평균 축제예산(181.5백만 원)을 보였음.

(단위: 백만원)



[그림 III-13]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현황

3)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 지표의 의미

▶ 장서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통해 발전 및 노력의 정도를 파악

- 장서수의 증가율은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발전의지와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장서수의 증가율은 단편적인 장서의 수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도서관 관련 사업 예산의 증가, 출판업의 활성화로 인한 출판물의 증가,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 등과 깊은 연관이 있음.
- '도서관 장서 수' 보다는 전년대비 장서의 증감정도를 확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발전의지 및 노력의 정도를 파악함.

▶ 도서관

- 도서관은 운영주체가 공공에 속하는 일반 및 어린이 도서관으로 제한함.

▶ 장서수 및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산식

- 장서 수는 도서관통계시스템상 각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비도서(전자저널, 전자도서, 시청각자료 등) 수를 합산함.

※ 일인당 장서 수 증가율 산식

$$= \frac{\text{전년도도서관 전체 장서수}}{\text{전년도 기초자치단체 총인구수}} - \frac{\text{기준연도도서관 전체 장서수}}{\text{기준연도 기초자치단체 총인구수}}$$

▶ 자료수집방법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공공도서관 통계현황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공공도서관 통계현황을 바탕으로 각 도서관별 도서자료(인쇄자료)수, 향토자료수, 비도서자료수, 전자자료수, 연속간행물 수를 합산하여 총장서수를 산정함.
 - 기초자치단체 내 각 도서관의 총장서수를 모두 합산하여 지자체 전체 총장서수를 구함.
- ‘총장서수-인구수-일인당장서수’를 전년도(2013년 기준) 및 기준연도(2014년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함.
- 일인당 장서 수의 경우 총 장서수와 인구수 기입 시 시스템에서 자동 연산됨.
 - 총 장서 수 : 기준연도 및 전년도 지자체 내 각 도서관의 도서자료(인쇄자료)수, 향토자료수, 비도서자료수, 전자자료수, 연속간행물 수를 합산하여 지자체가 보유한 총장서수를 산정함.
 - 인구 수 : 행정자치부의 기준연도 및 전년도 기초자치단체 인구 수

▶ 현황 분석

▶ 일인당 장서 수 증가율은 군>구>시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4년 기초자치단체당 일인당 장서 수 평균 증가율은 8.56%이었음.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군 단위 10.69%, 구 단위 8.55%, 시 단위 6.32%가 증가하여 군>구>시 순으로 증가율을 보임

〈표 III-39〉 시군구별 일인당 장서 수 증가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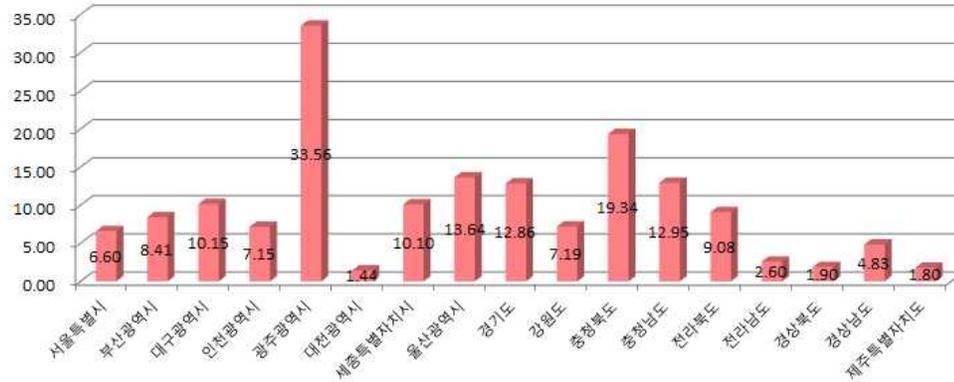
(단위: %)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6.32	10.69	8.55

▶ 시도별 분석 결과 장서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 시도별 관내기초자치단체의 장서 수 증가율 현황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의 장서 수 증가율은 33.5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이 뒤를 이음

(단위: %)



[그림 III-14]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현황

▶ 장서 수 증가율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기초자치단체는 67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23개, 군 단위 23개, 구 단위 21개로 전국 평균 장서 수 증가율인 8.4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총 67개로 나타남.

<표 III-40> 2014년 도서관 장서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23)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시
	경기도(16)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포천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충청남도(1)	서산시
	전라남도(1)	나주시
	경상북도(2)	김천시, 영천시
	경상남도(2)	창원시, 양산시
군 (23)	대구광역시(1)	달성군
	인천광역시(1)	강화군
	울산광역시(1)	울주군
	경기도(1)	연천군
	강원도(3)	홍성군, 횡성군, 인제군
	충청북도(4)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영동군
	충청남도(2)	금산군, 청양군
	전라북도(2)	장수군, 순창군
	전라남도(3)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2)	칠곡군, 울진군
	경상남도(3)	창녕군, 거창군, 합천군
	구 (21)	서울특별시(9)
부산광역시(6)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인천광역시(2)		남구, 남동구
광주광역시(3)		남구, 광산구, 동구
울산광역시(1)		중구
계	67개 기초자치단체	

▶ 2014년 기준 장서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

-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서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증가율 158.9%를 기록한 경기도 동두천시였으며, 10위권 내 지역은 시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표 III-41〉 2014년 일인당 장서 수 증가율 순위

(단위: %)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장서 수 증가율
1	경기 동두천시	158.90
2	충남 금산군	147.67
3	광주 동구	137.13
4	전북 순창군	97.17
5	충북 증평군	96.95
6	강원 횡성군	50.36
7	대구 달성군	50.16
8	충북 진천군	49.29
9	울산 울주군	46.74
10	부산 연제구	40.00

4) 시사점

▶ 공연장 가동률을 높여 주민 문화서비스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인 성장 발판 마련

- 공연장 평균 가동일 수는 151.7일이며, 평균 이상 공연장 가동일 수를 보인 기초자치단체는 105개로 파악됨.
- 기초자치단체는 공연장의 가동률을 높임과 동시에 양질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함.

▶ 특색있는 지역축제 개최로 주민 문화활동 확대 및 지역성 부각

-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축제 개최 등은 지양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여 향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해야 함.

▶ 편의를 고려한 장서 관리,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 필요

- 전국 1위의 장서 수 증가율을 보인 경기도 동두천시 등 상위 기초자치단체들은 전자자료(e-book) 보유량이 월등히 높았음.
- 도서관은 첨단기술의 결합과 이용자(주민) 중심의 장서 관리와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함.

제 3 절

활동 지표

지표의 의미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채용 혹은 지원하고 있는 문화전문인력 수와 확보율, 지역의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 지역 내 문화활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지표를 도입함.
- 지역문화활동 지표는 활동현황, 활동인력 등 **2개 중분류 내 5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짐. 본 지표의 활동인력(중분류) 중 지역문화전문인력 수(세부지표)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문화복지인력과 문화예술교육사 수의 합계로 구성됨.

세부 지표

〈표 III-42〉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부문 세부 지표

중분류	세부지표	자료출처
활동현황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¹⁾
활동인력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일 관 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²⁾
	문화관광해설사 수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지역문화전문인력 수	① 문화복지인력 ② 문화예술교육사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등록기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목록을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자료에서 정규사서직원 수 수집, 법정사서직원 수는 도서관법시행령 및 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1 활동현황

① 지역문화예술 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1)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 지표의 의미

▶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를 파악

- 지역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의 수는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인적 자본 정도 및 활동의 활성화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각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예술단체들은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단체의 수는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특히 최근 들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획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이 때문에 2012년 기준 조사에서는 문화예술법인의 수만을 파악했으나, 2014년 기준 조사에서는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임의단체와 더불어 관련 사회적 기업도 포함함.

▶ 지표의 정의

▶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문화예술단체의 법적형태의 종류로는 임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개인사업자,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함
- 본 지표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리스트’에 공개된 법인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임의단체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의 수를 파악함. 다만 개인사업자 등은 본 지표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범위이므로 제외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국·공립 예술단체, 국·공립 공연장의 위탁운영법인 및 민간 예술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증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함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http://www.artsdatabase.or.kr>) 사이트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2014년 12월 말 기준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함.
- 법인·단체·기업의 ‘단체명-소재지-설립일(등기기준)’ 자료를 수집함.

▶ 현황 분석

▶ 총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0개에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가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4.35개의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음.
 - 시 단위 : 4.36개, 군 단위 : 0.83개, 구 단위 8.54개
-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보다 특별·광역시에 소속된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들 내 법인·단체·기업 운영 수가 많음을 확인하였음.

〈표 III-43〉 시군구별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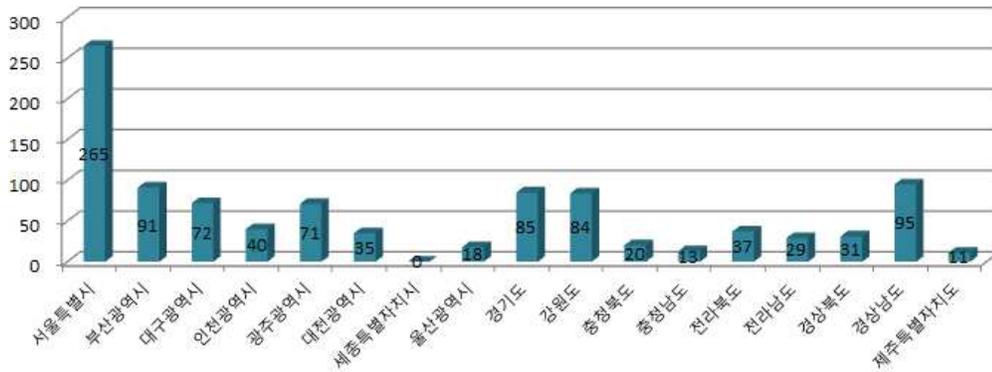
(단위: 개)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4.36	0.83	8.54

▶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내 법인·단체·기업의 수는 총 265개이며, 관내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10.60개의 법인·단체·기업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95개(관내 자치단체 당 5.28개), 부산광역시 91개(관내 자치단체 당 5.69개)로 뒤를 이음.

(단위: 개)



[그림 III-15] 시도별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총 개수

〈표 III-44〉 시도별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평균 및 총 개수

(단위: 개)

시·도명	평균	총계	시·도명	평균	총계
서울	10.60	265	경기	2.74	85
부산	5.69	91	강원	4.67	84
대구	9.00	72	충북	1.82	20
인천	4.00	40	충남	0.87	13
광주	14.20	71	전북	2.64	37
대전	7.00	35	전남	1.32	29
세종	0	0	경북	1.35	31
울산	3.60	18	경남	5.28	95
			제주	5.50	11

2 활동인력

- ①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 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 인력
- ②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 ③ 문화관광해설사 수
- ④ 지역문화전문인력 수

1)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 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 지표의 의미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운영의 전문성 및 문화재 보전에 대한 관심도 파악

-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 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문화재 보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파악함.
- 학예 전문인력 확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전시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직결됨. 따라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수준 높은 전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학예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재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함. 때문에 문화재의 유지·보수·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문화재 관리인력 확보도 지역문화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
- 기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예사의 수만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 범위가 좁았으나 본 조사에서는 인력의 소속, 직급, 최초임용일, 자격증 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지표의 정의

▶ 학예 전문 인력

- 학예사(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을 수집하며 관리하고 소장품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임. 이들은 관람객들에게 소장품이나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함.

- 학예 전문 인력에는 1·2·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 기타 지방학예사가 포함됨.

▶ 문화재 관리인력

- ‘문화재 관리인력’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수집·발굴·조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계약직, 별정직, 행정·기술직, 학예직, 기능직에 전담 및 겸임으로 고용된 인력을 포함함.
-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문화재 관리 인력은 문화재청의 문화재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집행적 업무를 수행함.
- 단, 문화재 관리에 대한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활동인 문화재 명예관리인제도, 문화재행정모니터제도, 한문화재한지킴이제도 등에 속한 지역주민은 ‘전문인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각 지역에 소속된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 인력의 ‘성명-해당 인력 대분류-소속-직급-최초임용일-자격증 번호’ 정보를 입력함.
- 본 지표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본청 및 소속기관 인력만을 포함하며, 국립기관 소속 인력 및 외주인력, 파견인력 등은 제외함.
- 또한 문화재 관리 인력은 문화재를 다루고 수집·발굴·조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하므로 단순 건물 경비인력은 제외함.

▶ 현황 분석

▶ 총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9%인 15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학예 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1.99명의 학예 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구 단위는 평균 0.81명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1인 미만의 학예 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표 III-45〉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

(단위: 명)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3.58	1.46	0.81

▶ 학예 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는 총 60명의 학예 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음. 이어 경상남도 창원시(33명), 경상북도 안동시(19명), 경기도 양평군(13명)의 순임.
- 본 조사에서는 학예 전문인력과 함께 문화재 관리인력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문화재 수가 많고 보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함.

〈표 III-46〉 전국 기초자치단체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수(상위 11개 시·군·구)

(단위: 개)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인력 수
1	경기도 수원시	60
2	경상남도 창원시	33
3	경상북도 안동시	19
4	경기도 양평군	13
5	충청북도 청주시	11
6	서울특별시 동작구	8
7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하동군	7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 양양군	6

2) 일관 당 법정 사서 직원 확보율

▶ 지표의 의미

▶ 도서관 인적자원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파악 가능

- 사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수집·평가·선택·목록·분류·열람·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서직원 확보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할 수 있음.
- 이에 공공도서관에 배치되어야 하는 사서의 최소기준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1관당 법정사서직원의 확보율을 조사함.

▶ 지표의 정의

▶ 정규 사서 직원 수 및 법정 사서 직원 수

- 정규 사서 직원 수는 지자체 운영 공공도서관의 직제상 도서관의 정규 사서직원의 정원수를 의미하며, 사서직으로 채용된 자만을 포함함.
 - 법정 사서 직원 수는 공공 도서관에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로 유지해야 하는 사서직원 수로, 건물면적에 의한 사서직원(기본 인원)과 장서 수(추가 인원)에 의한 사서직원을 합산하여 산출 가능함.
- 이는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2](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근거함.

▶ 일관당 법정 사서 직원 확보율 산식

※ 일관당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

$$\text{일관당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 = \frac{\text{정규 사서 직원 수}}{\text{법정 사서 직원 수}} \times 100$$

〈표 III-47〉 건물면적에 의한 사서직원 배치기준(기본 인원)

건물면적	사서수	건물면적	사서수	건물면적	사서수	건물면적	사서수
~ 559㎡	3명	660㎡ ~	4명	990㎡	5명	1,320㎡	6명
1,650㎡	7명	1,980㎡	8명	2,310㎡	9명	2,640㎡	10명
2,970㎡	11명	3,300㎡	12명	3,630㎡	13명	3,960㎡	14명
4,290㎡	15명	4,620㎡	16명	4,950㎡	17명	5,280㎡	18명
5,610㎡	19명	5,940㎡	20명	6,270㎡	21명	6,600㎡	22명
6,930㎡	23명	7,260㎡	24명	7,590㎡	25명	7,920㎡	26명
8,250㎡	27명	8,580㎡	28명	8,910㎡	29명	9,240㎡	30명
9,570㎡	31명	9,900㎡	32명	10,230㎡	33명	10,560㎡	34명
10,890㎡	35명	11,220㎡	36명	11,550㎡	37명	11,880㎡	38명

〈표 III-48〉 장서 수에 의한 사서직원 배치기준(추가 인원)

장서수	사서수	장서수	사서수	장서수	사서수	장서수	사서수
12,000권 ~	1명	18,000권	2명	24,000권	3명	30,000권	4명
36,000권	5명	42,000권	6명	48,000권	7명	54,000권	8명
60,000권	9명	66,000권	10명	72,000권	11명	78,000권	12명
84,000권	13명	90,000권	14명	96,000권	15명	102,000권	16명
108,000권	17명	114,000권	18명	120,000권	19명	126,000권	20명
132,000권	21명	138,000권	22명	144,000권	23명	150,000권	24명
156,000권	25명	162,000권	26명	168,000권	27명	174,000권	28명
180,000권	29명	186,000권	30명	192,000권	31명	198,000권	32명
204,000권	33명	210,000권	34명	216,000권	35명	222,000권	36명

※ 222,000권 초과시 6,000권 기준 1명씩 증가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자료에서 자료수집

- 정규사서직원 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 법정 사서직원 수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면적을 파악하고 일관당 총 장서 수⁸⁾를 파악하여 기준 사서직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법정 사서직원 총 수를 수집함.
- 연구기관에서 정규 및 법정 사서직원 수를 입력하여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을 시스템에서 자동 연산함.

〈표 III-49〉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수집 필드(예시)

구분	정규 사서직원 수 (A)	법정 사서직원 수 (B)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 (C= A/B *100)
방법	(직접입력)	(직접입력)	(자동연산)
예시	30	20	150

▶ 관련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 등)

- ① 법 제6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 현황 분석

▶ 일관 당 법정사서직원 전국 평균 확보율은 93.57%이며 구(232.76%) 시(41.42%) 군(26.05%)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일관 당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은 93.57%이며, 구 단위가 232.7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8)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지표의 총장서수 활용

〈표 III-50〉 일관 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현황

(단위: %)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93.57	41.42	26.05	232.76

▶ 전국 평균 이상 법정 사서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32개이며,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확보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서관 사서 수 확보는 서울특별시 관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특별시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17개가 전국 평균 이상 일관 당 법정 사서직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표 III-51〉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93.57%) 이상인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5)	경기도(5)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동두천시
군(1)	울산광역시(1)	울주군
구(26)	서울특별시(17)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7)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울산광역시(2)	중구, 남구
계	32개 기초자치단체	

3) 문화관광해설사 수

▶ 지표의 의미

▶ 지역의 문화·관광 내용을 생산 및 전달하는 주요 문화전문인력

-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정보를 생산하여 지역주민과 방문 관광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내외부로 전파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함.
- 지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수의 파악은 지역문화의 발전, 홍보 및 관광적 활용에 관한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문화관광해설사

-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의12)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제48조)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성명-거주지-소속-자격부여일’로 이루어진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정보를 입력함.
- 본 지표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활동한 인력에 대한 정보만을 입력함. 2015년 실태조사기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2014년에 활동하지 않은 인력은 조사에서 제외함.

▶ 현황 분석

▶ 문화관광해설사는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9.28명 고용되어 있음

-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9.28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용함.
- 시 단위에서 구 단위보다 약 6배 많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 단위 평균 15.15명, 군 단위 평균 9.43명, 구 단위 평균 2.46명
-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

〈표 III-52〉 문화관광해설사 수 현황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9.28	15.15	9.43	2.46
2012	평균	14.42	20.71	12.27	10.00

(단위: 명)

▶ 광역시도별 기초자치단체 평균 문화관광해설사 수 1위는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가 평균 39.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평균 15.61명), 충청북도(15.00명), 전라북도(14.07명) 순으로 나타남.

〈표 III-53〉 시도별 평균 문화관광해설사 수

(단위: 명)

시·도명	평균 해설사 수	시·도명	평균 해설사 수
서울	2.72	경기	15.61
부산	4.44	강원	6.78
대구	0.38	충북	15.00
인천	7.30	충남	9.33
광주	3.00	전북	14.07
대전	0	전남	12.82
세종	4.00	경북	11.26
울산	0	경남	9.06
		제주	39.50

- ▶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55개(67.69%)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관광해설사 보유
 - 경기도 수원시는 61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어 전국 1위
 - 경상북도 경주시가 55명, 제주도 서귀포시가 50명으로 뒤를 이음.

〈표 III-54〉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수(상위 10개 시·군·구)

(단위: 명)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해설사 수
1	경기도 수원시	61
2	경상북도 경주시	55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0
4	경상북도 안동시	49
5	인천광역시 강화군	46
6	충청북도 청주시	46
7	경기도 화성시	38
8	전라남도 진도군	36
9	전라북도 고창군	35
10	경기도 고양시	33

4) 지역문화전문인력 수

(1) 문화복지전문인력

▶ 지표의 의미

▶ **문화복지의 체계화에 기여, 지역의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 파악**

- 문화복지전문인력은 기존 문화(복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국민의 문화복지와 여가설계 전문 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인력으로, 자치단체의 실효적 문화복지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복지전문인력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문화복지전문인력**

- 문화복지전문인력은 선정 단체에서 응시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문화전문인력을 통칭함.
-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 매개 및 운영 등 문화복지 관련 업무, 문화복지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관련 기관 네트워킹 등을 수행함.
- 또한 지역별 문화복지 여건을 고려한 문화자원 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바우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문화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의미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성명-소속-전공명-담당업무'로 이루어진 '문화복지전문인력' 관련 정보를 입력함.
- 본 지표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활동한 인력에 대한 정보만을 입력함. 2015년 실태조사기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2014년에 활동하지 않은 인력은 본 조사에서 제외함.

▶ **현황 분석**

▶ **문화복지전문인력은 전국 총 56명,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0.24명 고용**

-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0.2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시 단위 평균 0.18명, 군 단위 평균 0.30명, 구 단위 평균 0.25명을 고용하고 있어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문화복지전문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음.
- 기타 문화관련 활동인력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수(평균 1명 이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55〉 시군구별 문화복지전문인력 수 현황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0.24	0.18	0.30	0.25

▶ **광역시도별 기초자치단체 평균 문화복지전문인력 수를 보면 충청북도가 가장 많았음**

- 충청북도는 평균 0.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평균 0.79명), 인천광역시(0.50명), 강원도(0.44명) 순임.
- 특별·광역시보다 도 단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 지역문화복지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56〉 특별·광역시 및 도 소속 기초자치단체 문화복지전문인력 수 현황

구분	특별·광역시	도
본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0.23	0.25

*광역시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문화복지전문인력 수 평균으로 광역자치단체 자체 수치는 아님

▶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1개(17.9%)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복지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충남 금산군이 가장 많은 문화복지전문인력 보유**

- 충청남도 금산군은 5명의 문화복지전문인력을 보유하여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인천광역시 서구가 4명,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음.

〈표 III-57〉 전국 문화복지전문인력 수(상위 9개 시·군·구)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역문화복지인력 수
1	충남 금산군	5
2	인천 서구	4
3	서울 은평구	3
4	부산 북구·사상구, 대구 동구,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익산시	2

(2) 문화예술교육사

▶ 지표의 의미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수행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지역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 문화향유 보장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은 필수적 요소임.
- 문화예술 전문성에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역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본 지표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문 기획자와 교수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성장시키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의미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27조의 2).
- 이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연구기관 자료 보완)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성명-거주지-등급-자격증 교부번호'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정보를 입력함.

- 본 지표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활동한 인력에 대한 정보만을 입력함. 2015년 실태조사기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2014년에 활동하지 않은 인력은 본 조사에서 제외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현황자료 수집**

- 기초자치단체에서 DB사이트에 입력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2014년도 기준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현황 및 자격취득자 주소 및 신청 지역 현황자료를 요청하여 비교·대조 작업을 진행함.

▶ **현황 분석**

▶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9.24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및 운영**

- 조사 결과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92개(83.84%)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 및 운영하고 있음.
 - 1개 기초자치단체 당 약 9.24명의 문화예술교육사 보유
-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시 단위 평균 11.91명, 군 단위 1.45명, 구 단위 15.49명을 고용하고 있어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운영하고 있었음.
- 군 단위는 시·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보유 수준을 보임.

〈표 III-58〉 시군구별 문화예술교육사 수 현황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9.24	11.91	1.45	15.49

(단위: 명)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현황 분석 결과 서울·경기 지역이 가장 많음**

- 서울특별시는 535명(평균 21.40명)으로 가장 많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기도 또한 377명(평균 12.16)명으로 많은 수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보유하고 있음.

▶ **시도별 평균 문화예술교육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

-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문화예술교육사 수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 평균 3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특별시(평균 21.40명), 전라북도(15.79명)가 그 뒤를 이음.

〈표 III-59〉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평균 및 총 인원수

(단위: 명)

시·도명	평균	총계	시·도명	평균	총계
서울	21.40	535	경기	12.16	377
부산	5.06	81	강원	3.00	54
대구	11.75	94	충북	3.55	39
인천	9.70	97	충남	4.27	64
광주	38.00	190	전북	15.79	221
대전	11.40	57	전남	3.64	80
세종	7.00	7	경북	3.78	87
울산	6.40	32	경남	4.72	85
			제주	8.50	17

5) 시사점

▶ 문화 활동인력 채용 및 육성시스템 마련 등 활동 지원 필요

- 문화 활동인력은 지역민 문화향유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체계화, 지역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함. 따라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활동인력의 활발한 활동은 필수 전제 사항임.
- 2012년 기준 조사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보유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정책적 노력이 엿보임. 그러나 도시-농촌 간 격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균형 배치, 지역 자체 육성시스템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

- 문화 활동인력 양성은 지역문화 육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 있음. 현재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재관리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제 4 절 향유 지표

지표의 의미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 조성 여부와 실제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기회제공 현황, 대상자 맞춤형 문화복지 등의 실시 여부 등을 분석하여 지역 문화향유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 지역문화향유 지표는 지역주민, 소외계층 등 **2개 중분류 내 7개 지표**로 구성됨.

세부 지표

〈표 III-60〉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부문 세부 지표

중분류	세부지표	자료출처
지역주민	천 명당 무료공연 관련 건수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¹⁾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건수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¹⁾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건수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기초자치단체 입력자료

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된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연간 총 이용자 수를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2)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집행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여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1 지역주민

- ①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 ②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 ③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규모
- ④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건수

1)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 지표의 의미

▶ 문화예술 무료공연 진행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의 관심도 반영

- 지방자치단체 내 무료공연은 문화 향유의 지역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서비스임.
- 기초자치단체의 무료 공연 진행 건수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무료공연

- '무료공연'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기획 및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실내·외 공연을 의미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모든 관람객의 금전적인 부담이 없어야 함.
 -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되어야 함(「공연법」 제2조)
- 집계 단위는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콘텐츠의 공연을 반복 공연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집계함.
- 민간기업의 후원 또는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진행되는 무료공연의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야 함.
- 타부서에서 진행하는 무료공연의 경우도 포함.

▶ '인구 천 명당' 단위 인구 보정 산출

-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지자체간 형평성을 위하여 '인구 천 명당'으로 보정하여 지표 값을 산출함.

※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 \text{무료공연 진행 건수} \times \frac{1,000(\text{명})}{\text{기초자치단체 총 인구수}}$$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사업명-사업내용 및 세부프로그램-공연 횟수-통 참여자 수-소관부서’로 이루어진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정보를 입력
- 이때 동일한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을 가진 공연이 반복 개최된 경우 1건으로 계산함.
- 타부서에서 진행하는 무료공연의 경우도 포함(단, 부서명 필히 기입)

▶ 현황 분석

▶ 2014년 연간 기초자치단체 평균 약 43.1건 제공되었으며, 시 단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를 높이기 위한 무료공연은 2014년 한 해 동안 기초자치단체 평균 43.1건이 개최되었음.
- 시·군·구 단위로 살펴본 결과, 시 단위 평균 72.7건, 군 단위 평균 14.7건, 구 단위 평균 43.4건인 것으로 나타남.

▶ 인구 천 명당 단위 인구 보정 산출 결과 기초자치단체 평균 0.26건

-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 천 명당’ 보정 지표 값을 산출한 결과, 인구 천 명당 평균 0.26건의 무료공연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인구 천 명당 시 단위 평균 0.26건, 군 단위 평균 0.35건, 구 단위 평균 0.16건 무료공연이 개최되고 있어 군 단위 지자체에서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무료공연이 진행되었음.

〈표 III-61〉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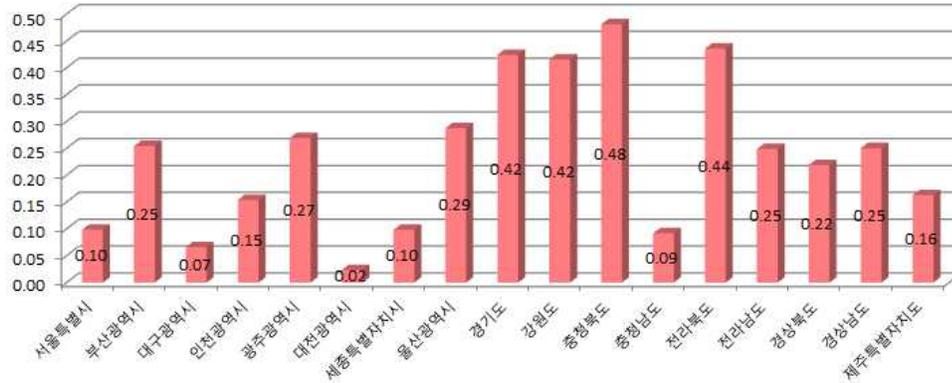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0.26	0.26	0.36	0.16

(단위: 건)

▶ 시도별 인구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현황 분석 결과 1위는 충북

- 충청북도는 관내 11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0.48건의 천 명당 무료공연을 진행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 순임.

(단위: 건)



[그림 III-16]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인구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현황

▶ 전국 179개(78.2%)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료공연을 진행, 평균(0.26건) 이상 공연을 진행한 기초자치단체는 65개

- 전국 평균인 0.26건 이상 무료공연을 운영한 기초자치단체는 64개임. 이 중 시 단위 20개, 군 단위 31개, 구 단위 13개로, 군 단위에서 무료공연이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됨.

〈표 III-62〉 기초자치단체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건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20)	경기도(10)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평택시, 광명시, 구리시, 포천시, 안성시, 하남시, 동두천시	
	강원도(2)	춘천시, 동해시	
	전라북도(2)	익산시, 김제시	
	전라남도(3)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1)	상주시	
	경상남도(2)	창원시, 밀양시	
	인천광역시(1)	옹진군	
	경기도(2)	양평군, 가평군	
	강원도(6)	황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충청북도(5)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증평군	
군 (32)	충청남도(1)	금산군	
	전라북도(5)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라남도(3)	곡성군, 강진군, 진도군	
	경상북도(4)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경상남도(5)	의령군	
	구 (13)	서울특별시(3)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부산광역시(4)	서구, 영도구, 수영구, 사상구
		인천광역시(2)	중구, 연수구
		광주광역시(2)	동구, 남구
		울산광역시(2)	중구, 남구
계		65개 기초자치단체	

2)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 지표의 의미

▶ 문화기반시설의 실제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제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문화기반시설을 방문하며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지표는 지역 내 각 문화기반시설별 참여자 수를 파악함으로써 단순 문화기반시설 수의 측정을 넘어 실제 참여인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를 짐작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된 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

- 2014년에 발행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의 명칭과 그에 해당하는 연간 이용자 수를 DB시스템에 입력함.
- ‘대분류-시설명-연간 총 이용자 수’ 정보를 수집
 - 대분류 :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가운데 해당 시설이 포함되는 대분류상의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

▶ 기초자치단체별 연간 문화기반시설 총 이용자 집계 후 인구기준 적용

- 입력된 각 시설의 총 이용자 수를 합산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문화기반시설 총 이용자수를 집계한 후, 이를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적용하여 본 지표 값을 도출함.

※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산식

$$= \frac{\text{기초자치단체 내 문화기반시설 연간 총 이용자수(계)}}{\text{기초자치단체 총 인구수}}$$

▶ 현황 분석

▶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는 전국 평균 7.5회

- 지자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총 인구 수 대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1인당 이용횟수는 평균 7.5회인 것으로 파악됨.
- 시군구별 현황 분석 결과 시 단위 평균 7.7회, 군 단위 평균 7.3회, 구 단위 평균 7.6회로 시 단위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63〉 시군구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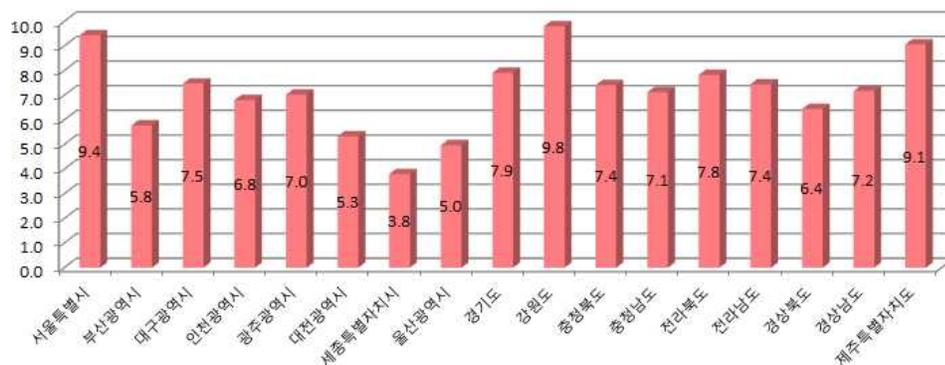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7.5	7.7	7.3	7.6

(단위: 회)

▶ 시도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 광역시도 단위로 살펴본 결과 강원도의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는 1인당 평균 9.8회의 평균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보여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강원도에 이어 서울특별시 9.4회, 제주특별자치도 9.1회, 경기도 7.9회 순이었음.

(단위: 회)



[그림 III-17]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현황

▶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 중구

- 전국 229개 자치단체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가 약 42회의 1인당 평균 문화기반시설 이용 횟수를 보여 전국 지자체중 가장 높음.
- 서울특별시 중구에 이어 강원도 고성군 약 3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약 34.9회, 경기도 과천시 약 34.7회 순인 것으로 파악됨.
- 상위 10위 기초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3곳 포함되었으며, 강원도 2곳(고성군, 영월군), 경기도 2곳(과천시, 양평군)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64〉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 횟수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회)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 횟수
1	서울 중구	42.0
2	강원 고성군	38.9
3	서울 종로구	34.9
4	경기 과천시	34.7
5	대구 중구	29.5
6	경남 고성군	21.1
7	강원 영월군	18.8
8	경기 양평군	17.1
9	경북 문경시	17.0
10	전북 무주군	16.8

3)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규모

▶ 지표의 의미

▶ 지역기반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성과 파악 가능

-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문화적 감성과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국민 모두가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즉,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의 활동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임.
-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전달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반하므로,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문화예술교육 추진 현황을 확인함.

▶ 지표의 정의

▶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교육강좌**

- ‘문화예술교육강좌’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기획, 운영,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강좌 및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향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문화교육사업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는 문학, 미술(응용 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해당하며(「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않는 컴퓨터(정보화) 활용, 생활체육 등은 제외함.
 - 하지만 예산은 강좌 단위가 아닌 전체 사업예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강좌 운영과 관련된 예산 세목을 기준으로 수집함.

▶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 해당 지자체 내의 문화예술교육강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총합인 연간 예산의 총액을 집계함.
- 본청, 소속기관, 출연기관에서 주관하는(예산을 집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을 포함함.

▶ **단위 인구 보정**

-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지자체간 형평성을 위해 ‘인구 천 명당’으로 보정하여 지표에 반영함.

<p>※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p> $= 2014\text{년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총액} \times \frac{1,000(\text{명})}{\text{기초자치단체 총 인구수}}$
--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사업명-예산액-주관기관-기관명’으로 이루어진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정보를 DB시스템에 입력함.
- 이때 주관기관에는 본청, 소속기관, 출연기관, 기타(민간)기관이 포함되며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공적영역의 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여 민간기관에서 교육 사업을 대행한 경우를 포함함.

- 지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하며, 다문화가정 지원 운영예산(지표 28)과 중복된 사업은 지표 28에만 포함 시킨 후 중복건은 제거함.

▶ 현황 분석

▶ 인구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는 군>구>시 순으로 나타남

- 인구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의 전국 평균은 약 706천 원으로 파악됨.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시 평균 549천 원, 군 평균 853천 원, 구 평균 708천 원으로 인구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군’이 가장 많음.

〈표 III-65〉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현황

기준연도	구분	전국	시	군	구
2014	평균	706	549	853	708

(단위: 천원)

▶ 인구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가 전국 평균(706천 원)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64개

〈표 III-66〉 기초자치단체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가 평균 이상인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16)	경기도(5)	안산시, 평택시, 포천시, 안성시, 여주시	
	강원도(1)	춘천시	
	충청남도(1)	당진시	
	전라북도(2)	전주시, 익산시	
	전라남도(2)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3)	경주시, 김천시, 문경시	
	경상남도(1)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1)	서귀포시	
	군 (27)	부산광역시(1)	기장군
대구광역시(1)		달성군	
경기도(2)		양평군, 가평군	
강원도(5)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충청북도(4)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충청남도(1)		금산군	
전라북도(3)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전라남도(4)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경상북도(4)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경상남도(2)		고성군, 거창군	
구 (21)		서울특별시(5)	성동구,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
		부산광역시(9)	중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3)	동구, 남구, 달서구
	인천광역시(2)	중구, 동구	
	광주광역시(2)	동구, 서구	
	계	64개 기초자치단체	

▶ **인구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 달성군**

- 전국 229개 자치단체별로 살펴본 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약 6,099천원으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았음.
- 대구 달성군에 이어 전북 완주군 약 5,987천 원, 인천광역시 동구 5,501천 원, 충청북도 옥천군 약 5,278천 원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0위 기초자치단체에는 군과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군 단위의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67〉 전국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천원)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구 분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1	대구 달성군	군	6,099
2	전북 완주군	군	5,988
3	인천 동구	구	5,501
4	충북 옥천군	군	5,278
5	전남 강진군	군	4,730
6	서울 노원구	구	4,130
7	부산 서구	구	4,011
8	부산 연제구	구	3,801
9	서울 성동구	구	3,598
10	충남 금산군	군	3,418

4)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건수

▶ **지표의 의미**

▶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이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임.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자체 사업의 기획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향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지표의 정의**

▶ **문화가 있는 날**

-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원년인 2013년,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13. 10. 25.)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 제공,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의 확대 등임.
-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된 사업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 분야는 상당수가 향후 관람객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본 지표에서는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지자체 자체 기획 사업만을 포함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 국공립문화시설에서 당일 관람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는 사업은 지자체 독자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 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사업명-사업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개최일-예산액(천원)-주관기관-기관명’으로 이루어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관련 정보를 DB 시스템에 입력
 -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기획 및 운영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등 사업명, 세부프로그램, 소요예산, 소관부서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문서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함.
- 이때 주관기관에는 본청,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공적영역의 기관만이 포함되며, 민간기관에 지원해 준 경우는 제외함.
- 본 지표에 입력하는 내용은 반드시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 사업만을 입력하며 반복 개최된 경우 개최일을 모두 입력함. 이때 사업 건수의 계산 기준은 ‘사업명’ 단위임.
 - 개최일 단위로 건수를 계산하지 않으며, 동일 사업 명으로 반복 개최되는 사업은 동일 사업으로 간주함.
 - 개최일은 동일하나 다른 사업명, 사업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1개 개최일에 2개 이상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인정함.

▶ **현황분석**

▶ **229개 자치단체 중 98개(42.8%)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 사업을 추진**

- 본 사업 추진이 활발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문화 시설을 활용하여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군·구간 추진 유무 현황을 비교하면 구(44.9%) 단위 지자체에서 기획사업 추진이 가장 활발한 반면, 군(40.2%)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추진율을 보였음.

〈표 III-68〉 기초자치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구분	전국	시	군	구
유	98 (42.8%)	34 (43.6%)	33 (40.2%)	31 (44.9%)
무	131 (57.2%)	44 (56.4%)	49 (59.8%)	38 (55.1%)

▶ **2014년 한 해 동안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1.97건의 기획사업 추진**

- 2014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1.97건의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 사업을 추진함.
-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18건, 군 단위는 1.00건, 구 단위는 2.90건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을 추진함
- 특별·광역시에 소속된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보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추진의지가 높아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노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됨.

〈표 III-69〉 기초자치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추진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전국	시	군	구
평균	1.97	2.18	1.00	2.90

▶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한 곳은 경기도 구리시**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도 구리시는 40건의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1위를 기록함.
- 상위 10위권에 부산광역시의 5개 구가 포함되어 타 광역시도에 비해 부산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추진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남.

〈표 III-70〉 전국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건수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건)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건수
1	경기 구리시	40
2	부산 사상구	31
3	부산 서구	27
4	부산 북구	26
5	경기 부천시	24
6	경기 창원시	19
7	서울 성동구	16
8	부산 영도구	14
9	부산 중구	11
10	전북 무주군	10

5) 시사점

▶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노력이 엇보임

- 분석 결과, 기존에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되던 농촌지역(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대상 무료공연,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확대 및 프로그램 마련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2012년 기준 조사에 비해 문화향유 부문에 있어서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문화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및 투자의 확대를 병행해야 함.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필요

-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임. 공공분야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참여율(42.8%)은 여전히 5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한 부분임.
-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공공 영역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하에 진행되는 핵심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로 지역민에게 문화를 통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인력·투자 지원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

2 소외계층

- ①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②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건수
- ③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1)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지표의 의미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의 노력을 파악

- 통합문화이용권의 예산대비 집행률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임.
- 즉,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이유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에게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통합문화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존의 문화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이용권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2014년부터 도입됨.
 - 2014년 기준 연간 총 730억 원(기금 518억 원, 지방비 212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국비(70%), 지방비(30%)로 편성
- 2014년 기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며, 총 324만 명, 184만 가구에 해당됨.
 - 수급자(139만 명, 82만 가구), 차상위(185만 명, 102만 가구)
-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1매 발급됨.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산식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산식

$$\text{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frac{\text{통합문화이용권 집행액}}{\text{통합문화이용권 예산배정액}} \times 100$$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연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자료 요청을 통해 자료수집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및 집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유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에 2014년 기초자치단체 단위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사용률 통계 자료를 요청함.

● 연구기관에서는 2014년 각 기초자치단체별 통합문화이용권 예산배정액 및 집행액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산식에 따라 산출함.

▶ 현황 분석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은 군>시>구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당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평균은 93.3%이었음.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군 단위 94.8%, 시 단위 93.3%, 구 단위 91.5%로 군>구>시 순으로 통합문화이용권 평균 집행률을 보임.

〈표 III-71〉 시군구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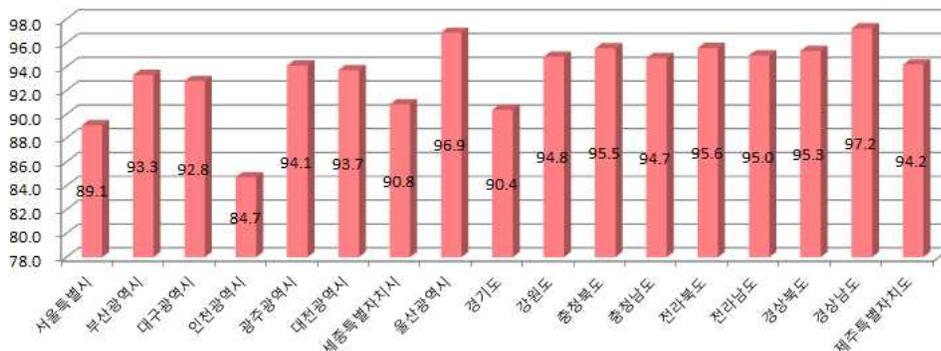
기준연도	구분	시	군	구
2014	평균	93.3	94.8	91.5

(단위: %)

▶ 시도별 분석 결과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가 97.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어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이 뒤를 이음.

(단위: %)



[그림 III-18]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현황

▶ 전국 집행을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기초자치단체는 133개

- 전국 평균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인 93.3%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총 133개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41개, 군 단위 68개, 구 단위 24개임.

〈표 III-72〉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이 평균 이상인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41)	경기도(3)	포천시, 광주시, 양주시
	강원도(2)	태백시, 속초시
	충청북도(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청남도(6)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라북도(5)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라남도(4)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상북도(9)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상남도(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1)	제주시
군 (68)	부산광역시(1)	기장군
	울산광역시(1)	울주군
	강원도(11)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8)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4)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7)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14)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경상북도(12)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상남도(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구 (24)	부산광역시(8)
대구광역시(3)		중구, 서구, 수성구
광주광역시(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4)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4)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계	133개 기초자치단체	

▶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담양군

-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99.6%를 기록한 전라남도 담양군이었으며, 10위권 내에는 ‘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만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가 특별·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혜택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됨.

- 비교적 규모가 작고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되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나, 농촌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이 높은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표 III-73〉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순위

(단위: %)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1	전남 담양군	99.6
2	전남 보성군	99.4
3	전북 남원시	99.2
4	강원 양구군	99.1
5	경남 사천시	99.0
6	강원 영월군	98.9
7	전남 구례군	98.9
8	충북 진천군	98.7
9	충남 계룡시	98.5
10	전북 무주군	98.5

2)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건수

▶ 지표의 의미

▶ 지역 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 파악

-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음.

▶ 지표의 정의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 문화관련부서에서 집행한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관련사업의 예산총액으로 예산서상 소관부서가 문화관련부서인 사업만 포함함.
-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및 향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계획, 운영,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함.

▶ 단위 인구 보정

-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모든 지자체의 형평성을 위하여 '인구 천 명당'으로 보정하여 지표에 반영함.

※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건수

$$= \text{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건수} \times \frac{1,000(\text{명})}{\text{기초자치단체 총 인구수}}$$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DB입력 사이트에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관련 '사업명-사업내용 및 세부프로그램-소관부서' 정보를 DB시스템에 입력함
- 본 지표에는 지역주민 가운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문화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문화관련 부서에서 진행한 문화프로그램의 사업명칭을 의미하므로 지역민 전체 혹은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추진 건은 제외함

▶ 현황 분석

▶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0개(34.9%)가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진행

- 본 사업 추진이 활발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시·군·구간 프로그램 유무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50.0%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군 단위의 경우 23.2%에서만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추진률을 보임.

〈표 III-74〉 기초자치단체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추진 현황

구분	전국	시	군	구
유	80 (34.9%)	39 (50.0%)	19 (23.2%)	22 (31.9%)
무	149 (65.1%)	39 (50.0%)	63 (76.8%)	47 (68.1%)

▶ 인구 천 명당 단위 인구 보정 산출 결과 기초자치단체 평균 0.007건

-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 천 명당’ 보정 지표 값을 산출한 결과, 인구 천 명당 평균 0.007건의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시·군·구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 단위 평균 0.007건, 군 단위 평균 0.011건, 구 단위 평균 0.003건으로, 군 단위 지자체에서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표 III-75〉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진행 건수

(단위: 건)

기준연도	구분	전체	시	군	구
2014	평균	0.007	0.007	0.011	0.003

▶ 전국 평균(0.007건) 이상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 43개

〈표 III-76〉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건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

구분	기초자치단체명	
시 (18)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시
	경기도(3)	부천시, 화성시, 구리시
	강원도(1)	동해시
	충청북도(1)	제천시
	충청남도(2)	공주시, 논산시
	전라북도(3)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라남도(2)	여수시, 광양시
	경상북도(2)	경주시, 영천시
	경상남도(3)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군 (18)	경기도(1)
강원도(4)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충청북도(1)		음성군
충청남도(1)		금산군
전라북도(4)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전라남도(3)		곡성군, 해남군, 진도군
경상북도(1)		울릉군
경상남도(3)		의령군, 산청군, 거창군
구 (7)	서울특별시(5)	용산구, 성동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부산광역시(1)	사상구
	광주광역시(1)	동구
계	43개 기초자치단체	

(3)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 지표의 의미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정책 추진 성과를 파악

-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을 통하여 지역 소외계층인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보장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다문화센터가 설립된 지역은 총 217개로 그 설립률이 94.8%를 넘었음
- 이에 단순히 다문화센터 운영 및 설립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센터 운영예산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을 모두 포함함.

▶ 지표의 정의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에 의거한 대한민국국적 취득자로 정의되며, 본 지표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한 사업의 경우를 의미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함.
 - 본 지표에서는 공적영역에서 다문화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기관만을 포함함.
- 2014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7개 설립(설립율: 94.8%)되어 있음(여성가족부 공시, 「2014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운영예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운영예산’은 대부분 여성·가족·복지 관련 부서의 일반운영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사업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의 명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DB입력 사이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

- 지자체에서는 ‘사업명-소관부서-예산(천원)’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정보를 DB시스템에 입력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은 문화 관련부서 이외에 여성·가족·복지 관련 부서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명칭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함.
- 지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함.

▶ 현황 분석

▶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규모는 시>군>구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의 전국 평균은 약 242,032천 원임.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시 평균 356,628천 원, 군 평균 186,765천 원, 구 평균 178,168천 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액은 시가 가장 높음.
- 다문화센터운영예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문화소외계층 관련 사업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됨.

〈표 III-77〉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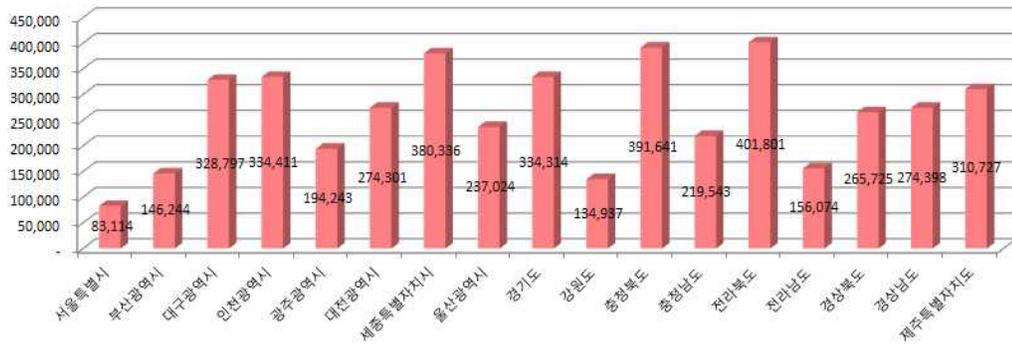
(단위: 천원)

기준연도	구분	전국	시	군	구
2014	평균	242,032	356,628	186,765	178,168

▶ 시도별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액이 가장 큰 곳은 전라북도

- 시도별 관내기초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현황 분석 결과,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은 401,801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이어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이 뒤를 이었으며, 전반적으로 특별·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액 평균이 큼.

(단위: 천원)



[그림 III-19]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자원운영예산 평균 현황

4) 시사점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상승에 따른 양질의 콘텐츠 마련 필요

- 2012년 기준 조사보다 본 조사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이 대폭 상승 (77.8%→93.3%)함. 이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은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임.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 교육,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양질의 콘텐츠 마련 및 공급을 시도하고, 정부에서는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임.

▶ 다문화가정 확대에 따른 맞춤형 문화정책 필요

- 행정자치부의 전국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 수 대비 3.1%(1,569,470명, 2014.1.1.기준)의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가 있음.
 - 특히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국인-한국인 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등 다문화가정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주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및 정부에서는 지역별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역문화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대상자에 따라 문화향유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함.

04

제4장 지역문화지수 분석

제1절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수 분석 결과 I : 종합지수

1. 지자체간 종합지수 분석
2. 다양한 분석기준을 적용한 지역문화종합지수 비교

제2절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수 분석 결과 II : 대분류별

1. 정책지수
2. 자원지수
3. 활동지수
4. 향유지수

제3절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수 분석 결과 III : 격차분석

1. 지역격차의 개념
2. 지역간 격차분석 결과

제4절 종합 결과

1.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2. 지역문화실태조사 대분류별 지수 분석 결과
3. 지역간 격차분석 결과

※ 지표 값의 표준화, 가중치 및 지수 산출 등 지역문화지수 분석방법은 「제2장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을 참조

1 지자체간 종합지수 분석

1) 전체 (2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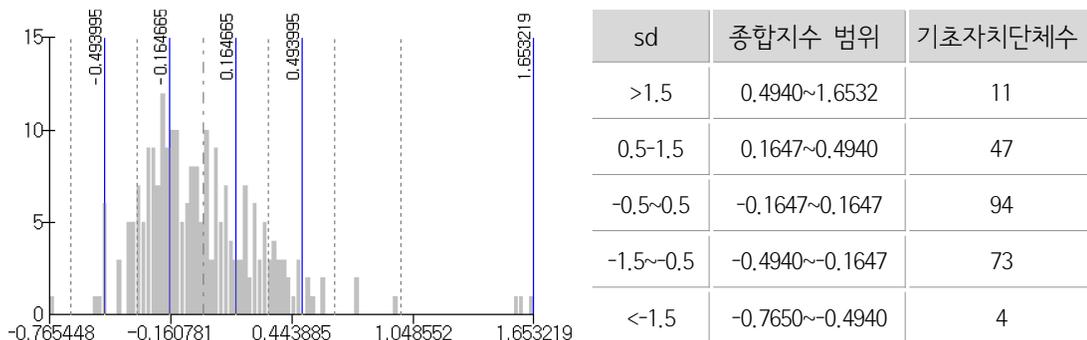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문화지수 1위는 전라북도 전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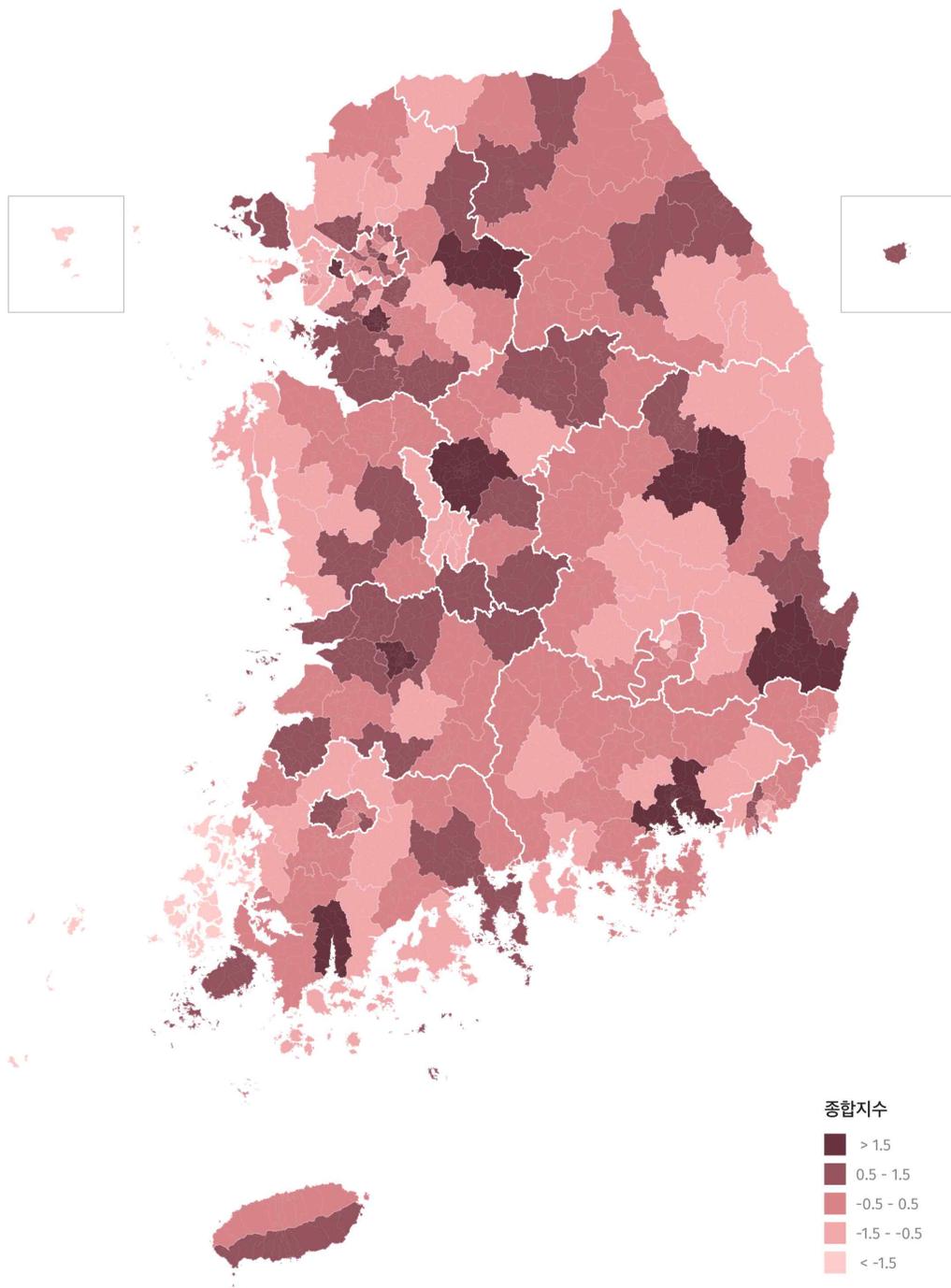
- 시군구의 구별 없이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종합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전라북도 전주시가 1.65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수원시 1.5814, 경상남도 창원시 1.5268, 경기도 부천시 0.96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위권 내에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3개가 분포하고 있음. 이는 2012년 기준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역량이 여전히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1〉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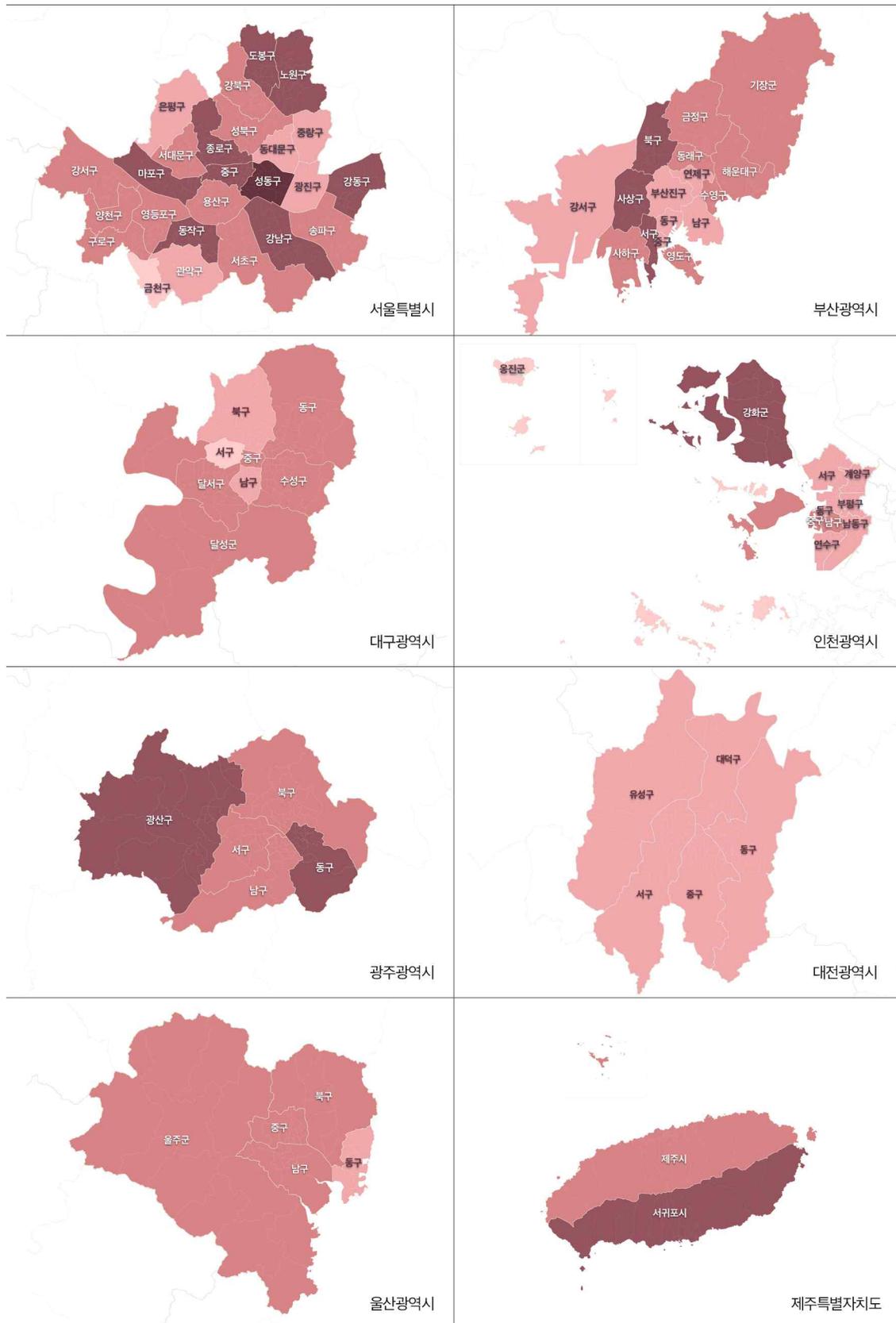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북 전주시	1.6532	6	전남 강진군	0.7753
2	경기 수원시	1.5814	7	충북 청주시	0.6119
3	경남 창원시	1.5268	8	경북 경주시	0.5937
4	경기 부천시	0.9674	9	서울 성동구	0.5571
5	경북 안동시	0.7807	10	경기 양평군	0.5328

〈표 IV-2〉 종합지수 단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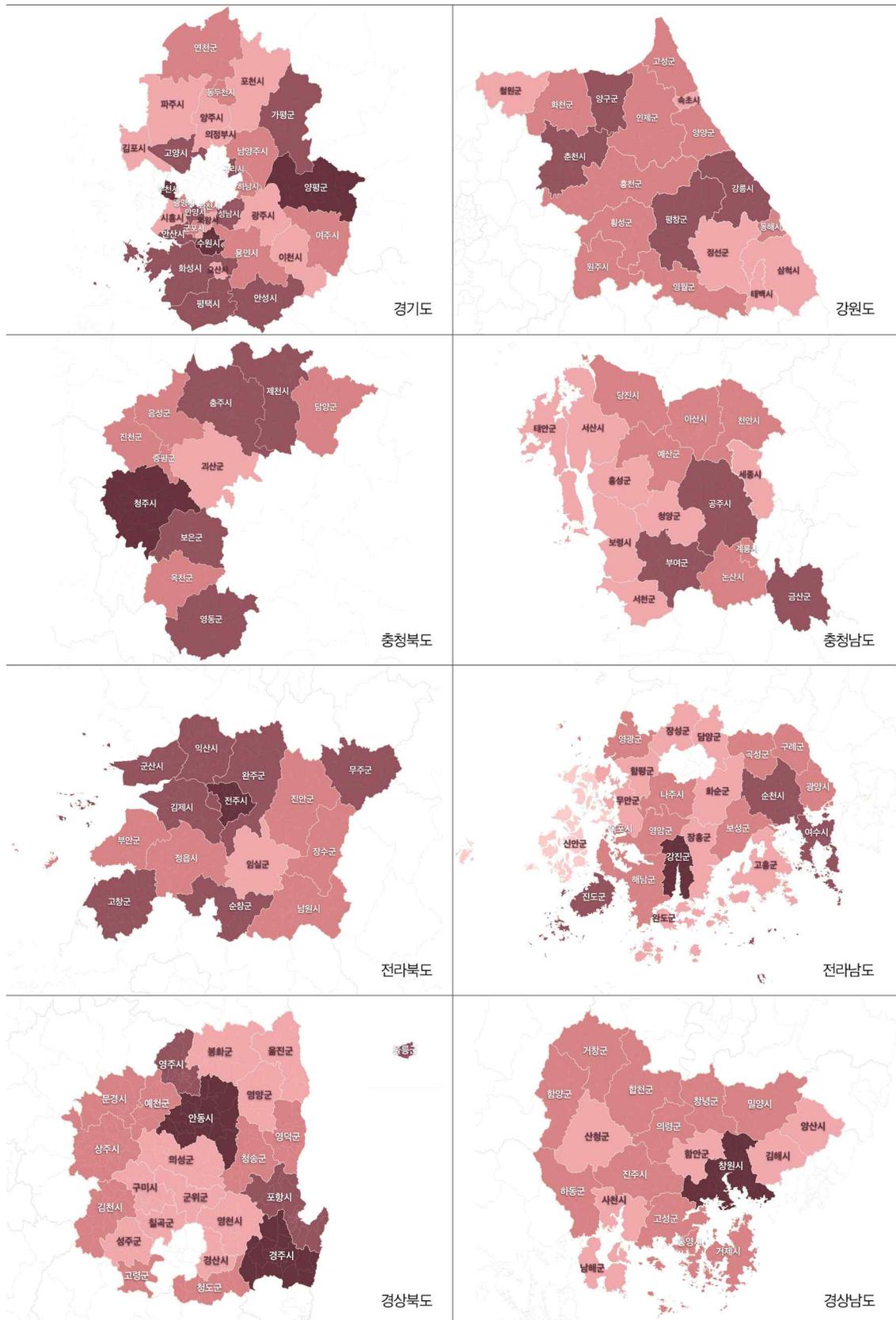




[그림 IV-1]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2]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3]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2) 시(市) 단위 (76개)

▶ 전국 76개 시 중 ‘전라북도 전주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상위 10위권에 경기도 소재 시가 다수 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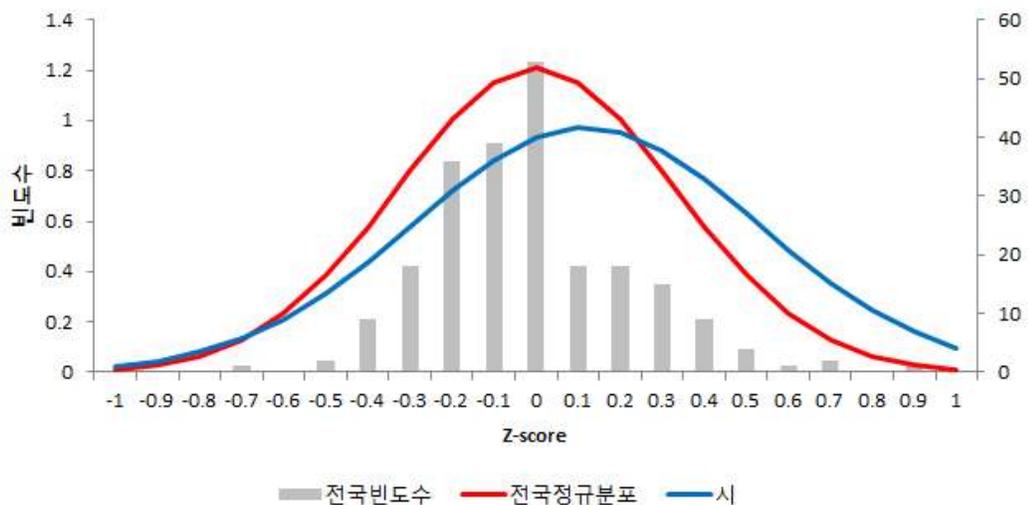
-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6개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종합지수 상위 10개를 도출한 결과, 전라북도 전주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10위권 내에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 4개가 분포하고 있음(40%). 이는 2012년 기준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역량이 여전히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3〉 시 대상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북 전주시	1.6532	6	충북 청주시	0.6119
2	경기 수원시	1.5814	7	경북 경주시	0.5937
3	경남 창원시	1.5628	8	전북 익산시	0.4875
4	경기 부천시	0.9674	9	경기 고양시	0.4596
5	경북 안동시	0.7807	10	경기 구리시	0.4354

▶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지수를 정규분포화(붉은 선)한 것과 76개 시 단위의 정규분포(파란 선) 간을 비교하면, 파란 선(시 단위)이 붉은 선(전국)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을 의미함.



[그림 IV-4] 시 단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 (전국과 비교)

3) 군(郡) 단위 (82개)

▶ 전국 82개 군 중 '전라남도 강진군' 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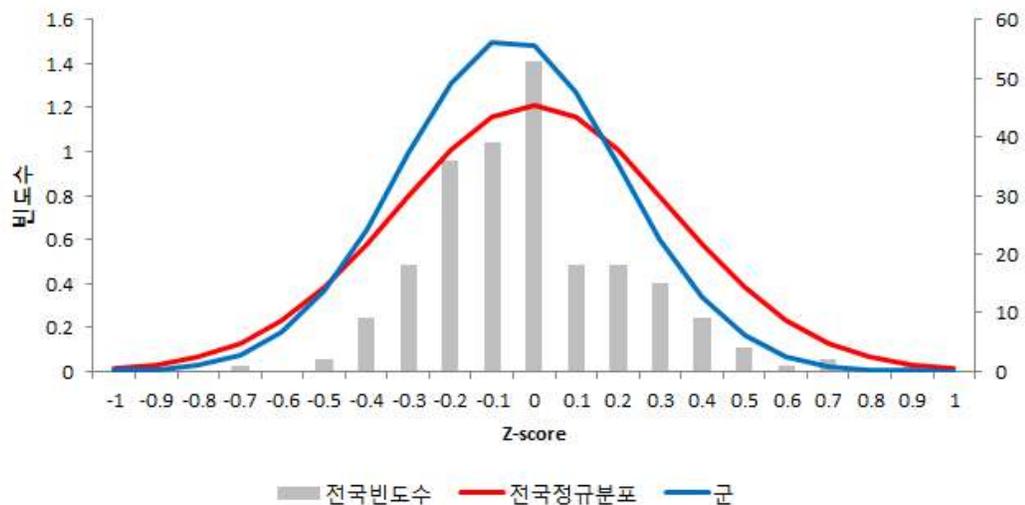
-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82개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종합지수 상위 10개를 도출한 결과, 전라남도 강진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 2012년 기준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임.
- 강진군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0.5328), 전라남도 진도군(0.5247), 전라북도 무주군(0.4344) 등이 뒤를 이음.

〈표 IV-4〉 군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남 강진군	0.7753	6	충북 보은군	0.3774
2	경기 양평군	0.5328	7	경북 울릉군	0.3710
3	전남 진도군	0.5247	8	강원 양구군	0.3314
4	전북 무주군	0.4344	9	전북 순창군	0.2847
5	전북 완주군	0.4160	10	충북 영동군	0.2726

▶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지수를 정규분포화(붉은 선)한 것과 82개 군 단위의 정규분포(파란 선) 간을 비교하면, 파란 선(군 단위)이 붉은 선(전국)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함.



[그림 IV-5] 군 단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전국과 비교)

4) 구(區) 단위 (69개)

▶ 전국 69개 구 중 '서울시 성동구' 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69개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종합지수 상위 10개를 도출한 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부산 소재 구의 분포가 높게 나타남

● 상위 10위권을 살펴본 결과 서울특별시에 속한 6개 구인 성동구, 중구, 노원구, 동작구, 종로구, 강동구가 순위권 내에 위치하였으며, 부산광역시에 속한 3개 구인 사상구, 서구, 북구 또한 순위권 내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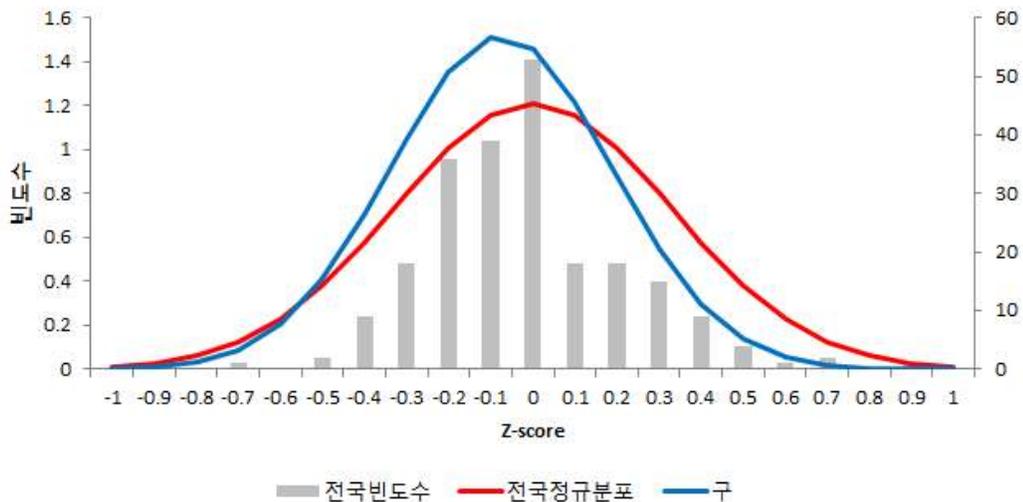
〈표 IV-5〉 구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서울 성동구	0.5571	6	부산 서구	0.3670
2	부산 사상구	0.4889	7	서울 종로구	0.3425
3	서울 중구	0.4845	8	서울 강동구	0.3170
4	서울 노원구	0.4196	9	부산 북구	0.3149
5	서울 동작구	0.3740	10	광주 동구	0.2949

▶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지수를 정규분포화(붉은 선)한 것과 69개 구 단위의 정규분포(파란 선) 간을 비교하면, 파란 선(구 단위)이 붉은 선(전국)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함.



[그림 IV-6] 구 단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전국과 비교)

5) 특별시(서울)

▶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성동구' 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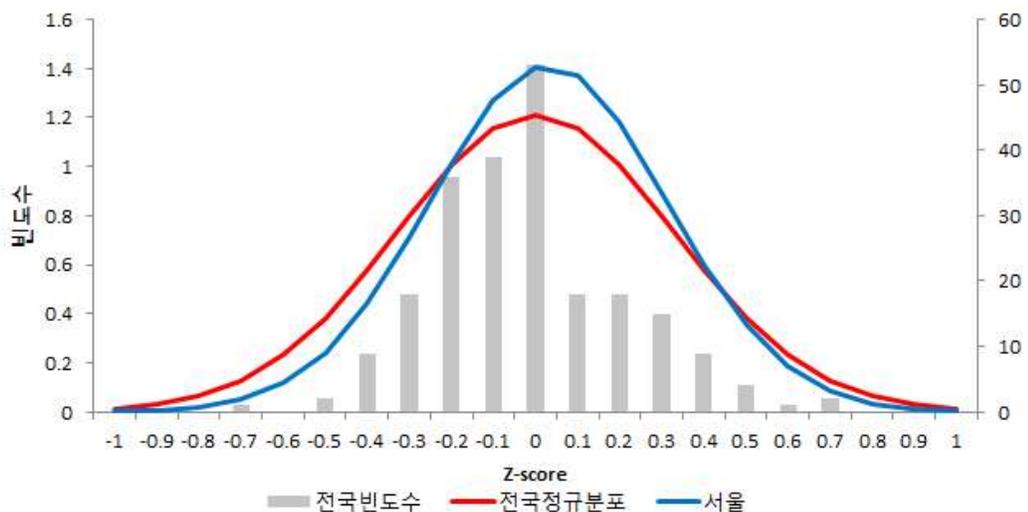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순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성동구(0.55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0.4845), 노원구(0.4196) 순으로 나타남.
- 성동구의 문화복지 및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임.

〈표 IV-6〉 서울특별시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서울 성동구	0.5571	6	서울 강동구	0.3170
2	서울 중구	0.4845	7	서울 마포구	0.2737
3	서울 노원구	0.4196	8	서울 강남구	0.2068
4	서울 동작구	0.3740	9	서울 도봉구	0.1832
5	서울 종로구	0.3425	10	서울 강서구	0.0765

▶ 서울시는 전국대비 지역문화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분포함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지수를 정규분포화(붉은 선)한 것과 25개 서울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정규분포(파란 선) 간을 비교하면, 파란 선(서울)이 붉은 선(전국)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서울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의미함.



[그림 IV-7] 서울특별시 지역문화지수(종합) 정규분포표(전국과 비교)

6) 특별자치시·광역시

▶ 7개 특별자치·광역시 50개 시·군·구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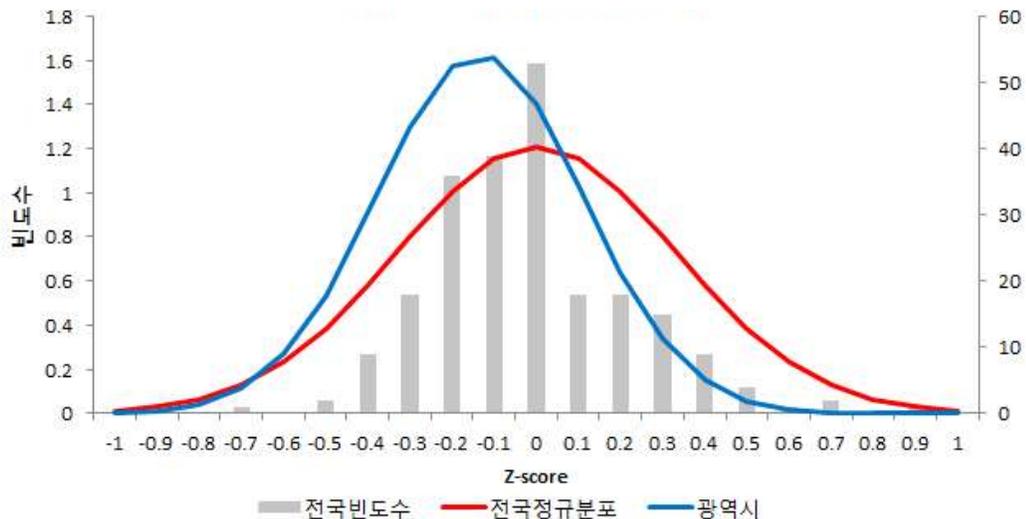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7개 특별자치·광역시 50개 시군구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0.489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산시 서구(0.3670), 부산시 북구(0.3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천 강화군과 대구 달성군은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10위권 안에 들어 지역문화지표가 단순히 지역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

〈표 IV-7〉 특별·광역시 대상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부산 사상구	0.4889	6	광주 광산구	0.1770
2	부산 서구	0.3670	7	대구 달성군	0.1120
3	부산 북구	0.3149	8	부산 금정구	0.1114
4	광주 동구	0.2949	9	광주 서구	0.0701
5	인천 강화군	0.2127	10	광주 북구	0.0305

▶ 광역시는 전국대비 지역문화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분포함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지수를 정규분포화(붉은 선)한 것과 50개 특별자치·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정규분포(파란 선) 간을 비교하면, 파란 선(특별자치·광역시)이 붉은 선(전국)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특별자치·광역시(세종시 포함)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그림 IV-8] 특별자치·광역시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전국과 비교)

7) 광역도

▶ 9개 도의 154개 시·군·구 중 '전라북도 전주시' 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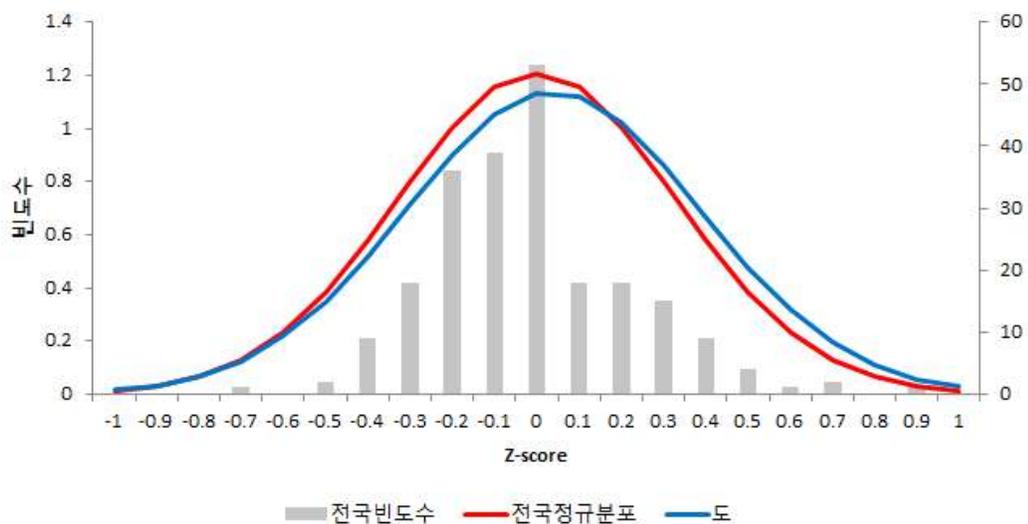
- 경기도를 비롯한 9개 도를 대상으로 순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종합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전라북도 전주시가 역시 1위를 차지함
-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수원시(1.5814), 경상남도 창원시(1.5628), 경기도 부천시(0.96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8〉 광역도 대상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북 전주시	1.6532	6	전남 강진군	0.7753
2	경기 수원시	1.5814	7	충북 청주시	0.6119
3	경남 창원시	1.5628	8	경북 경주시	0.5937
4	경기 부천시	0.9674	9	경기 양평군	0.5328
5	경북 안동시	0.7807	10	전남 진도군	0.5247

▶ 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포함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지수를 정규분포화(붉은 선)한 것과 154개 특별·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정규분포(파란 선) 간을 비교하면, 파란 선(도 기초자치단체)과 붉은 선(전국) 중심축이 매우 유사하게 위치함
- 이는 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함.



[그림 IV-9] 광역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정규분포표(전국과 비교)

2 다양한 분석기준을 적용한 지역문화종합지수 비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집단 간 다각적인 비교분석을 실시

- ① 인구 50만 명 기준 시(市)
- ② 인구 10만 명 기준 군(郡)
- ③ 도시형-농촌형-도농통합형
- ④ 재정자립도

▶ 지역문화지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 비교분석 실시

-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비교하기보다 다양한 기준을 통해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함.
- 인구규모/도시·농촌/재정자립도에 의거하여 유사조건 하에 놓인 비교분석하여 상대적 우위를 보인 지자체를 도출함.

〈표 IV-9〉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지역 간 비교기준

	기 준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 수
적용기준	인구 50만 명 기준 시(市)	15개/63개
	인구 10만 명 기준 군(郡)	5개/77개
	도시형-농촌형-도농통합형	21개/56개/77개
	재정자립도 상-중-하	77개/76개/76개

1) 시(市) : 인구 50만 명 이상/미만

▶ 행정자치부의 ‘시 단위 인구 규모별 행정구역 구분’ 기준 적용

- 행정자치부의 기준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을 적용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 시와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로 구분하여 분석함.

▶ 50만 명 이상 시 : 전라북도 전주시, 50만 명 미만 시 : 경상북도 안동시

-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 총 15개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전주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위권 내에 경기도 내 시가 5개나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인 강세를 보임.

-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 총 63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 안동시가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구리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N-10〉 인구 50만 명 이상/미만 시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인구 50만 명 미만 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북 전주시	1.6532	1	경북 안동시	0.7807
2	경기 수원시	1.5814	2	경북 경주시	0.5937
3	경남 창원시	1.5628	3	전북 익산시	0.4875
4	경기 부천시	0.9674	4	경기 구리시	0.4354
5	충북 청주시	0.6119	5	제주 서귀포시	0.3757
6	경기 고양시	0.4596	6	전남 순천시	0.3688
7	경기 화성시	0.4012	7	충남 공주시	0.3265
8	경기 성남시	0.3601	8	강원 강릉시	0.3184
9	경북 포항시	0.3064	9	강릉 춘천시	0.3005
10	경기 안양시	0.2112	10	경기 평택시	0.2865

2) 군(郡) : 인구 10만명 이상/미만

▶ 행정자치부의 '군 단위 인구 규모별 행정구역 구분' 기준 적용

● 행정자치부의 기준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적용하여 인구 10만 명 이상 군과 10만 명 미만인 군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인구 10만 명 이상 : 경기도 양평군, 10만 명 미만 : 전라남도 강진군

●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 총 5개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 10만 명 미만인 군 총 77개 가운데 전라남도 강진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북도 무주군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N-11〉 인구 10만 명 이상/미만 군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인구 10만 명 이상 군			인구 10만 명 미만 군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경기 양평군	0.5328	1	전남 강진군	0.7753
2	대구 달성군	0.1120	2	전남 진도군	0.5247
3	울산 울주군	-0.0571	3	전북 무주군	0.4344
4	부산 기장군	-0.1084	4	전북 완주군	0.4160
5	경북 칠곡군	-0.3077	5	충북 보은군	0.3774
			6	경북 울릉군	0.3710
			7	강원 양구군	0.3314
			8	전북 순창군	0.2847
			9	충북 영동군	0.2726
			10	경기 가평군	0.2708

3) 지자체 특성 : 도시형-농촌형-도농통합형

▶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시-농촌-도농통합형 구분 적용

- 도시는 하위 행정구역이 동으로 표시된 기초자치단체, 농촌은 읍 또는 면으로 표시된 기초자치단체, 도농통합은 지방자치법 상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시로 구분함.
- 도시형에서 특별·광역시에 속한 구는 제외함.

▶ 도시형 : 전라북도 전주시, 농촌형 : 전라남도 강진군, 도농통합형 :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 수는 총 21개임. 이 가운데 전라북도 전주시가 1위를,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고양시 순으로 나타남.
- 농촌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수는 총 77개임. 이 가운데 전라남도 강진군이 1위를,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북도 무주군 순으로 나타남.
- 도농통합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수는 총 56개임. 이 가운데 경상남도 창원시가 1위를, 그 뒤를 이어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순으로 나타남.

〈표 IV-12〉 도시-농촌-도농통합형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순위	도시형		농촌형		도농통합형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북 전주시	1.6532	전남 강진군	0.7753	경남 창원시	1.5628
2	경기 수원시	1.5814	경기 양평군	0.5328	경북 안동시	0.7807
3	경기 부천시	0.9674	전남 진도군	0.5247	충북 청주시	0.6119
4	경기 고양시	0.4596	전북 무주군	0.4344	경북 경주시	0.5937
5	경기 구리시	0.4354	전북 완주군	0.4160	전북 익산시	0.4875
6	경기 성남시	0.3601	충북 보은군	0.3774	경기 화성시	0.4012
7	경기 안양시	0.2112	경북 울릉군	0.3710	제주 서귀포시	0.3757
8	경기 안산시	0.1983	강원 양구군	0.3314	전남 순천시	0.3688
9	경기 과천시	0.1378	전북 순창군	0.2847	충남 공주시	0.3265
10	경기 광명시	0.1020	충북 영동군	0.2726	강원 강릉시	0.3184

4) 재정자립도 : 상-중-하

▶ 행정자치부(2014) 재정자립도 기준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의 회계연도 2014년 기준 공시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순위분석을 실시함.

▶ **재정자립도 상위 : 전라북도 전주시, 재정자립도 중위 : 경기도 양평군, 재정자립도 하위 : 경상북도 안동시**

● 재정자립도 **상**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7개임. 이 중 전라북도 전주시가 1위를 기록, 뒤를 이어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부천시 순임.

● 재정자립도 **중**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6개임. 이 중 경기도 양평군이 1위를 기록, 뒤를 이어 부산 사상구,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순임.

● 재정자립도 **하**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6개임. 이 중 경상북도 안동시가 1위를 기록, 뒤를 이어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순임.

〈표 IV-13〉 재정자립도 상-중-하 지역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재정자립도 상			재정자립도 중		재정자립도 하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북 전주시	1.6532	경기 양평군	0.5328	경북 안동시	0.7807
2	경기 수원시	1.5814	부산 사상구	0.4889	전남 강진군	0.7753
3	경남 창원시	1.5628	전북 익산시	0.4875	전남 진도군	0.5247
4	경기 부천시	0.9674	전남 순천시	0.3688	전북 무주군	0.4344
5	충북 청주시	0.6119	충남 공주시	0.3265	서울 노원구	0.4196
6	경북 경주시	0.5937	강원 강릉시	0.3184	충북 보은군	0.3774
7	서울 성동구	0.5571	강원 춘천시	0.3005	경북 울릉군	0.3710
8	서울 중구	0.4845	광주 동구	0.2949	부산 서구	0.3670
9	경기 고양시	0.4596	충북 영동군	0.2726	강원 양구군	0.3314
10	경기 구리시	0.4354	경기 가평군	0.2708	부산 북구	0.3149

1 정책지수

▶ 전남 강진군, 전북 전주시, 강원 평창군이 상대적 우위

- 전남 강진군은 문화예산비율과 천 명당 문화예산규모 등이 순위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 정책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함.
- 전북 전주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제정, 문화예산 관련 지표 등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경쟁우위를 보여 정책지수 상위에 오름.
- 강원 평창군은 지역문화 진흥기관 설립 유무, 문화예산 관련 지표가 경쟁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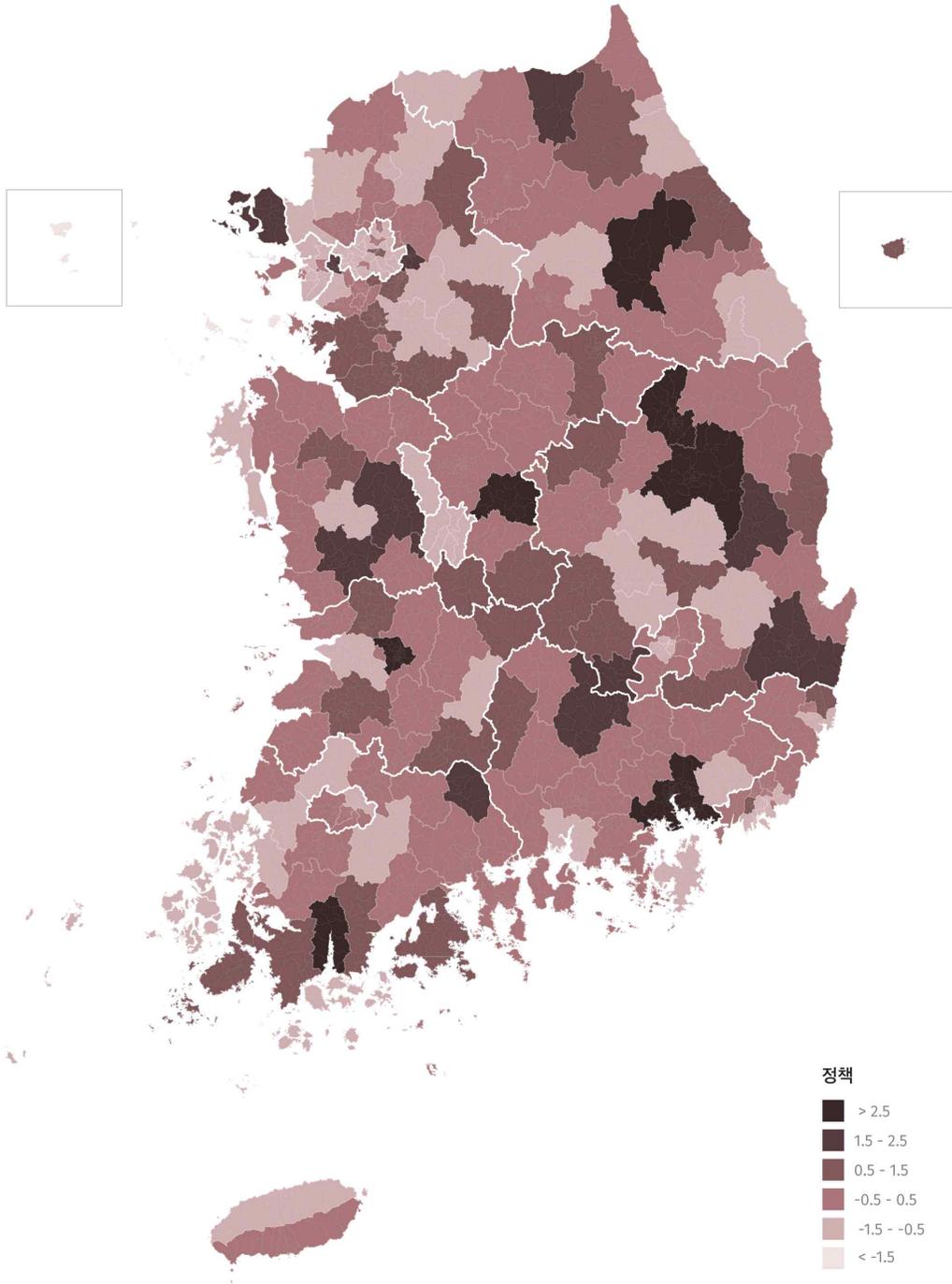
〈표 IV-14〉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수 순위 (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남 강진군	0.5387	6	경남 창원시	0.3702
2	전북 전주시	0.4382	7	충북 보은군	0.3581
3	강원 평창군	0.4250	8	충남 공주시	0.3388
4	경북 영주시	0.4192	9	경기 부천시	0.3384
5	경북 안동시	0.3877	10	충남 부여군	0.3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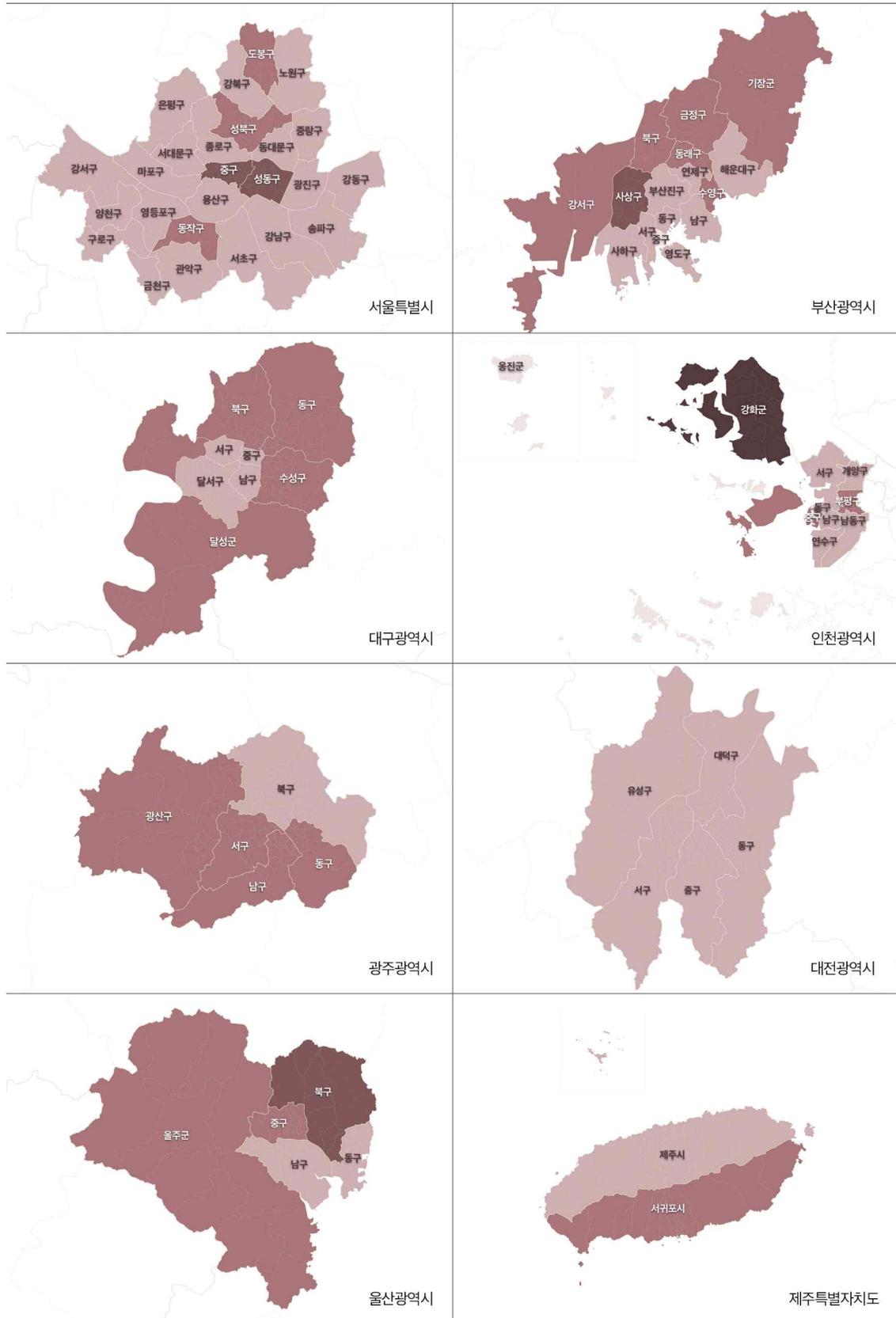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지수의 단계구분도를 작성함

▶ ‘standard deviation’ 기법을 적용하여 단계구분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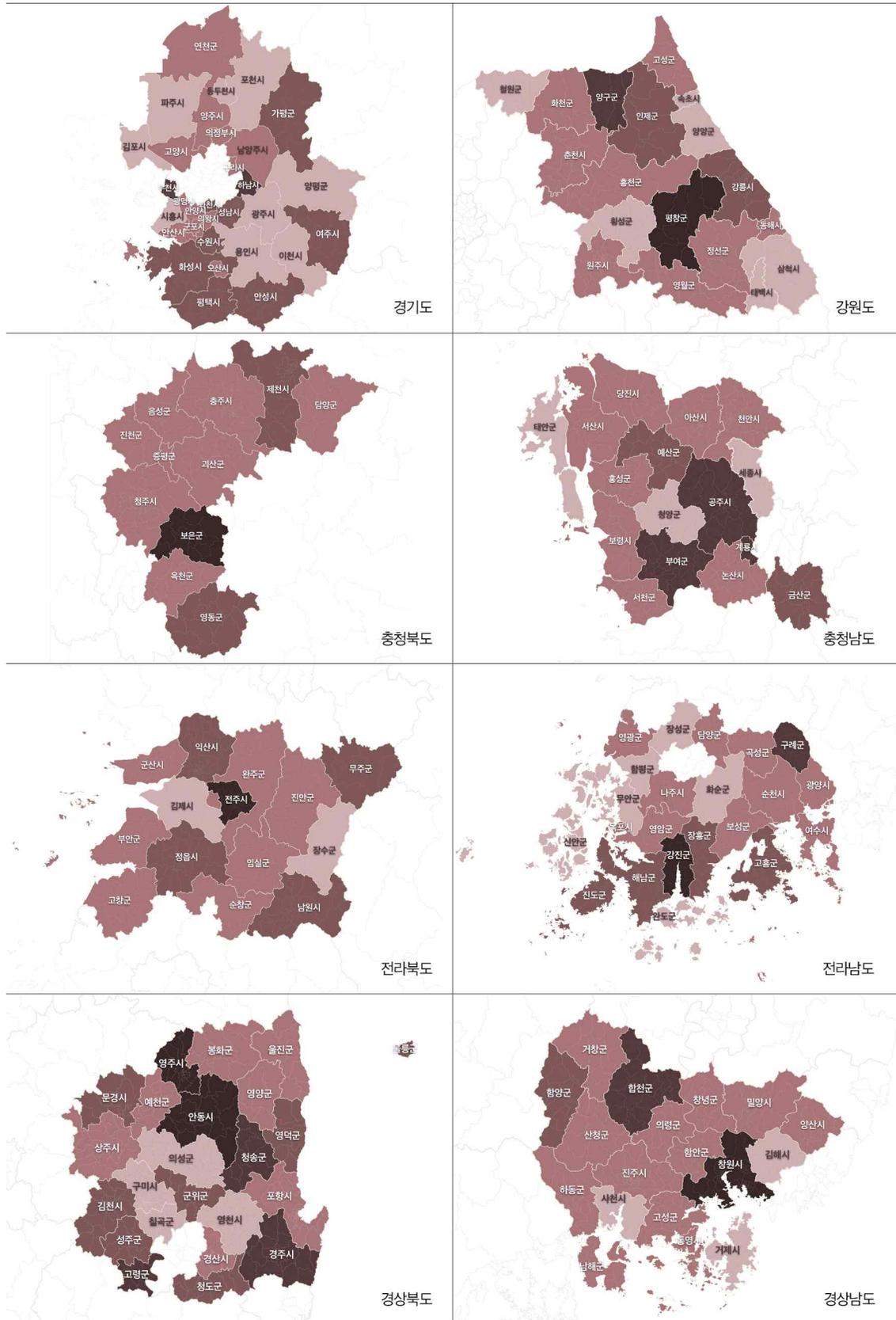
- 각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지수는 하위 3개 중분류의 표준화 값(Z-score)을 더한 것으로 상대적 비교·구분이 가능한 지수이며, 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 정책지수는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등급화하기 적합함.
- 지도의 등급화는 ArcMap 10.2.2의 data classification methods 중 ‘standard deviation’을 이용함.
 - 정책지수를 표준화한 다음 평균(0)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1 단위로 구분하여 등급화 함. 등급화 결과 정책지표는 6단계로 구분함.



[그림 IV-10]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11]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수 결과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12]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수 결과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2 자원지수

▶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가 상대적 우위

- 경남 창원시는 문화기반시설 수(전국 2위), 생활문화시설 수(전국 1위),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수(전국 1위) 등 문화자원 지표 내 대부분의 항목이 전반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여 자원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함.
- 경기 부천시는 문화기반시설 수(전국 5위),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보유, 전국 평균 이상 장애인 좌석 비율 보유 등 전반적으로 전국 20위권 이내에 든 것이 순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경기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수(전국 8위), 문화기반시설 수(전국 6위) 및 기타 자원 지표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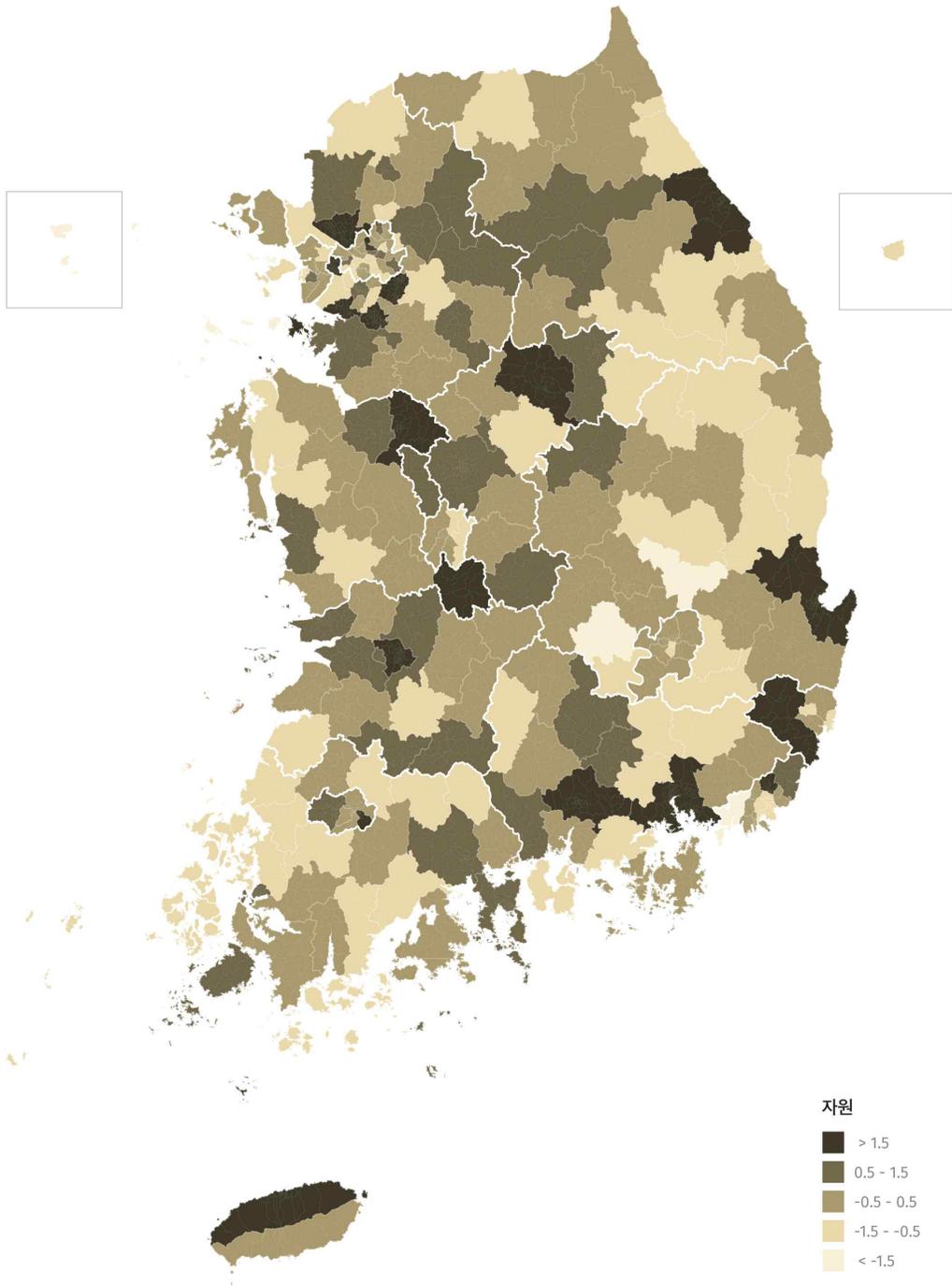
〈표 IV-15〉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수 순위 (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경남 창원시	0.2320	6	충남 금산군	0.1383
2	경기 부천시	0.1746	7	경기 수원시	0.1367
3	경기 고양시	0.1497	8	전북 전주시	0.1327
4	경북 포항시	0.1433	9	서울 종로구	0.1278
5	광주 동구	0.1391	10	충북 충주시	0.0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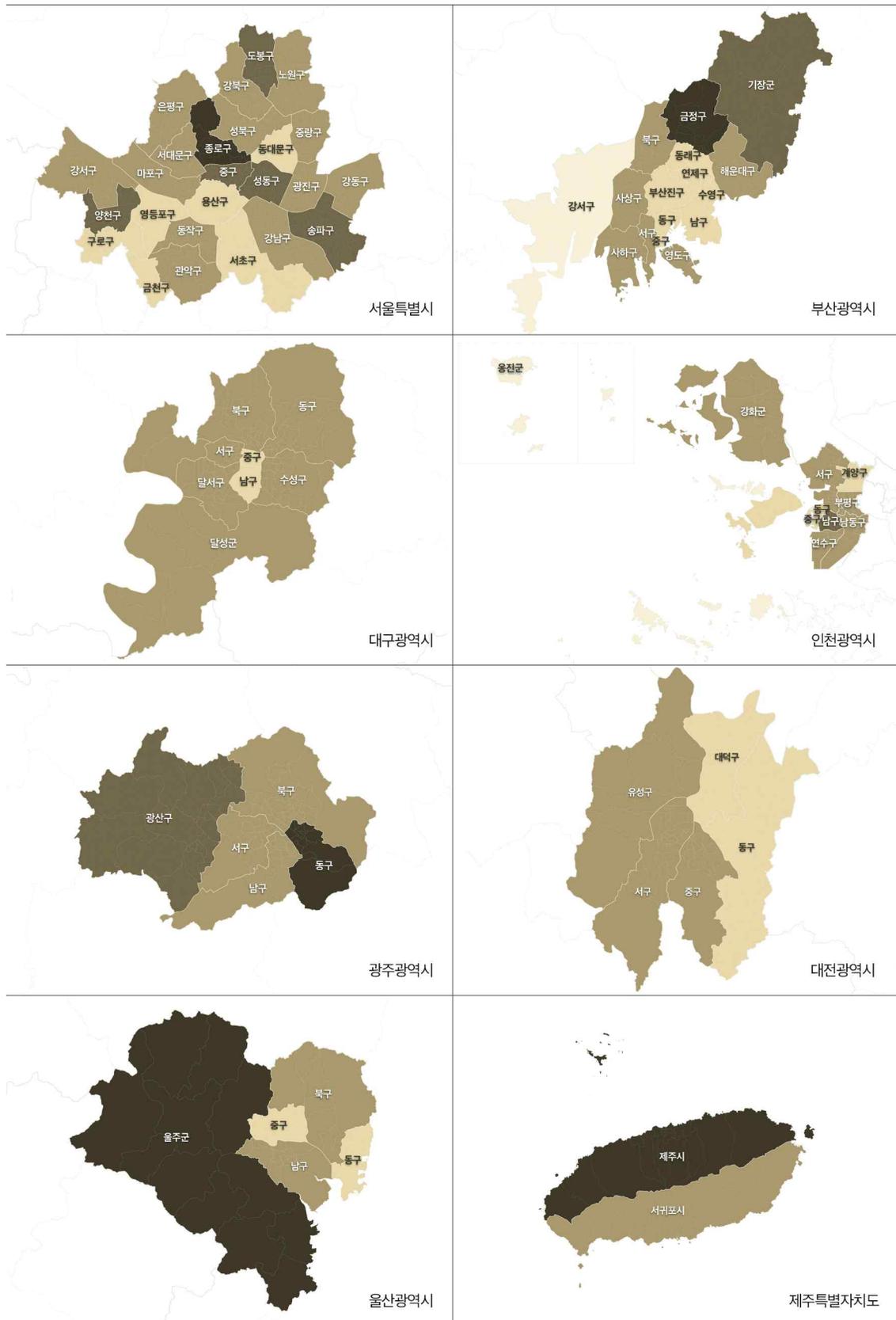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원지수의 단계구분도를 작성함

▶ ‘standard deviation’ 기법을 적용하여 단계구분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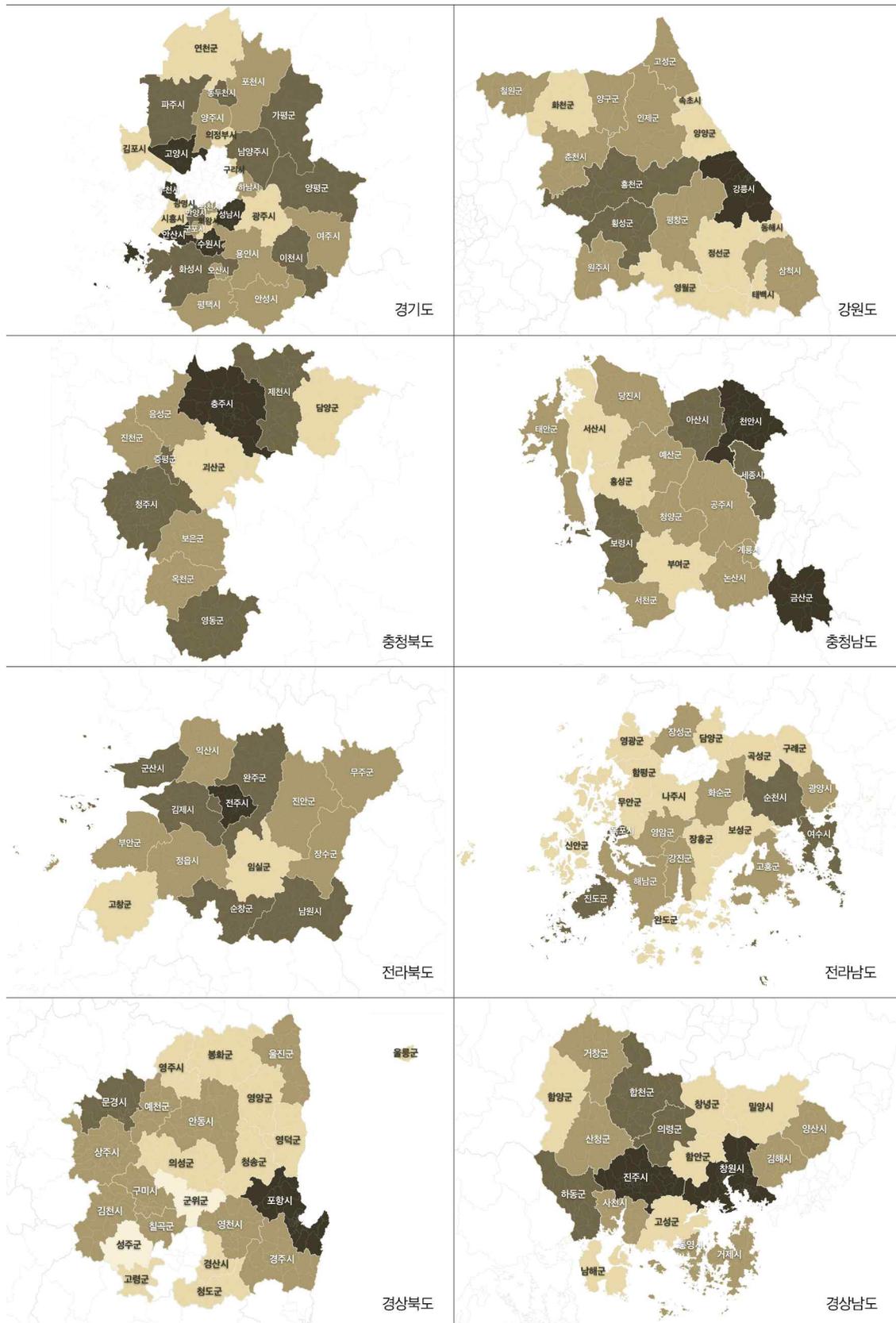
-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원지수는 하위 3개 중분류의 표준화 값(Z-score)을 더한 것으로 상대적 비교·구분이 가능한 지수이며, 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 자원지수는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등급화하기 적합함.
- 지도의 등급화는 ArcMap 10.2.2의 data classification methods 중 ‘standard deviation’을 이용함.
 - 자원지수를 표준화한 다음 평균(0)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1 단위로 구분하여 등급화 함. 등급화 결과 자원지표는 5단계로 구분함.



[그림 IV-13]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14]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수 결과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15]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수 결과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3 활동지수

▶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가 상대적 우위

- 경기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 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전국 1위), 문화관광해설사 수(전국 1위)를 포함하여 지역문화 활동지표 내 대부분의 항목이 전반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여 활동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함.
- 전북 전주시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전국 5위), 문화예술교육사 수(전국 1위), 지역문화복지 인력 상위권 등을 기록하여 순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경남 창원시는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전국 2위),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전국 2위) 등이 순위 결정에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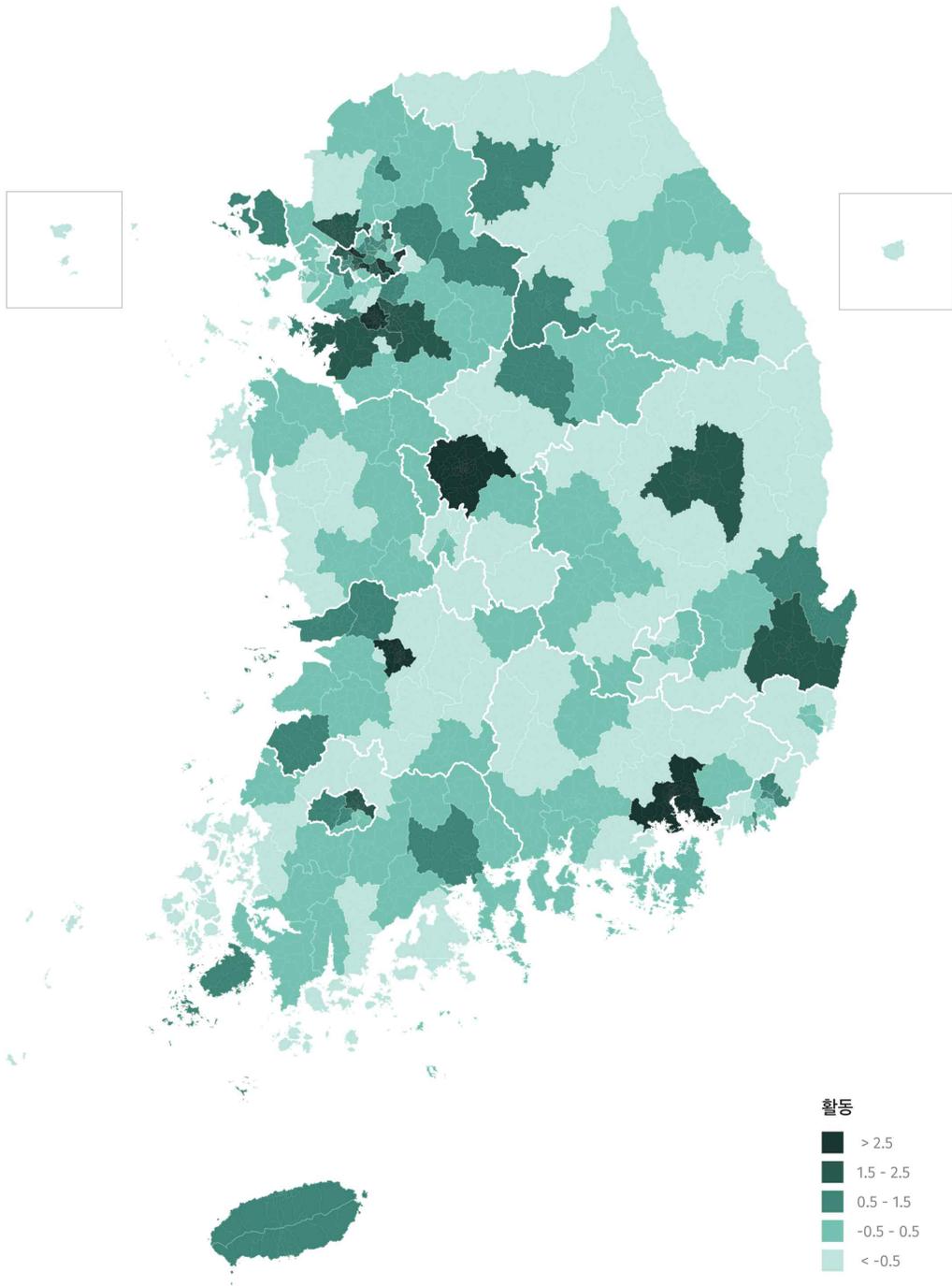
〈표 IV-16〉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지수 순위 (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경기 수원시	1.2003	6	서울 마포구	0.4814
2	전북 전주시	0.9419	7	서울 강동구	0.4702
3	경남 창원시	0.5543	8	서울 강남구	0.4701
4	서울 동작구	0.5092	9	경북 안동시	0.4392
5	충북 청주시	0.492	10	서울 노원구	0.3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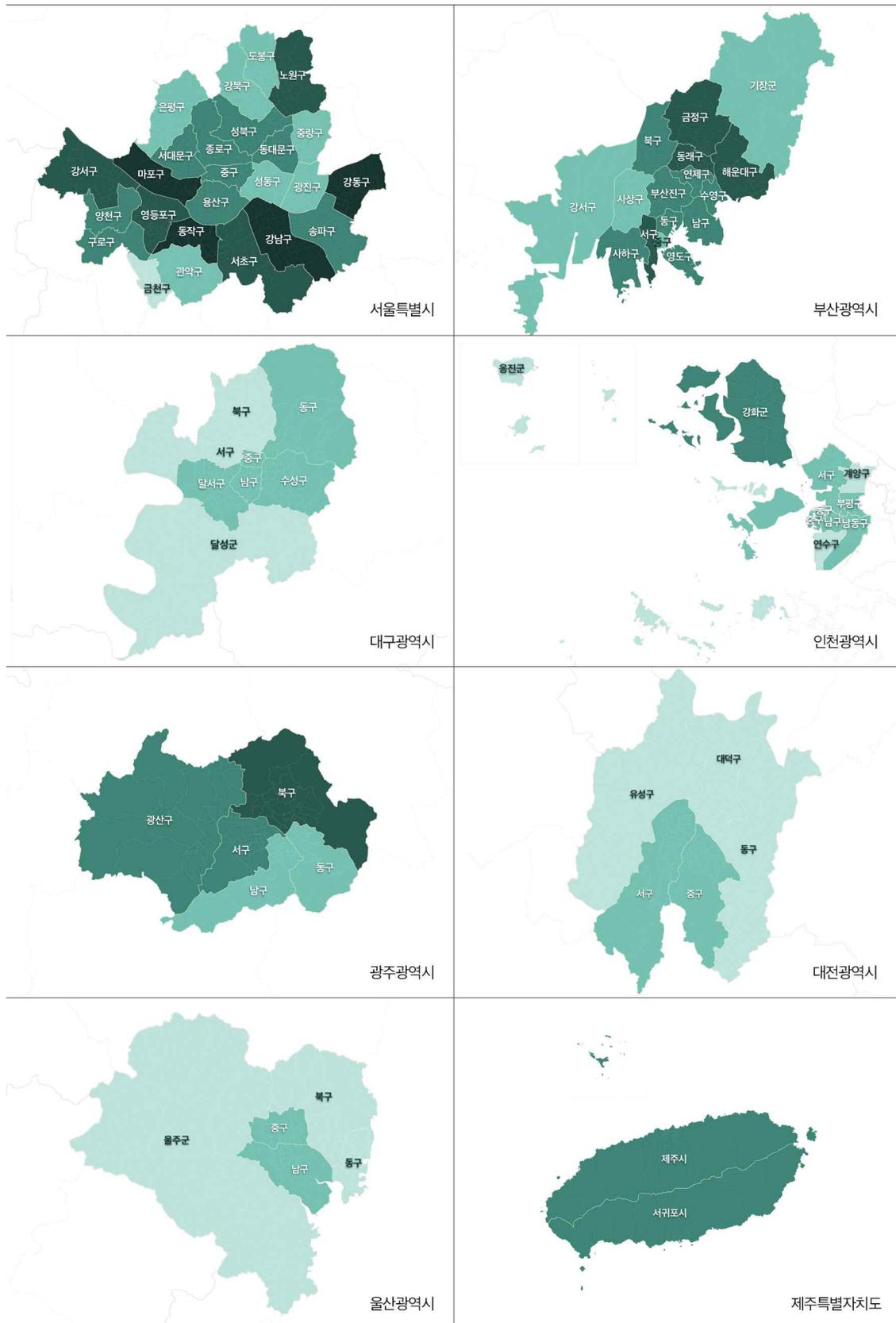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활동지수의 단계구분도를 작성함

▶ ‘standard deviation’ 기법을 적용하여 단계구분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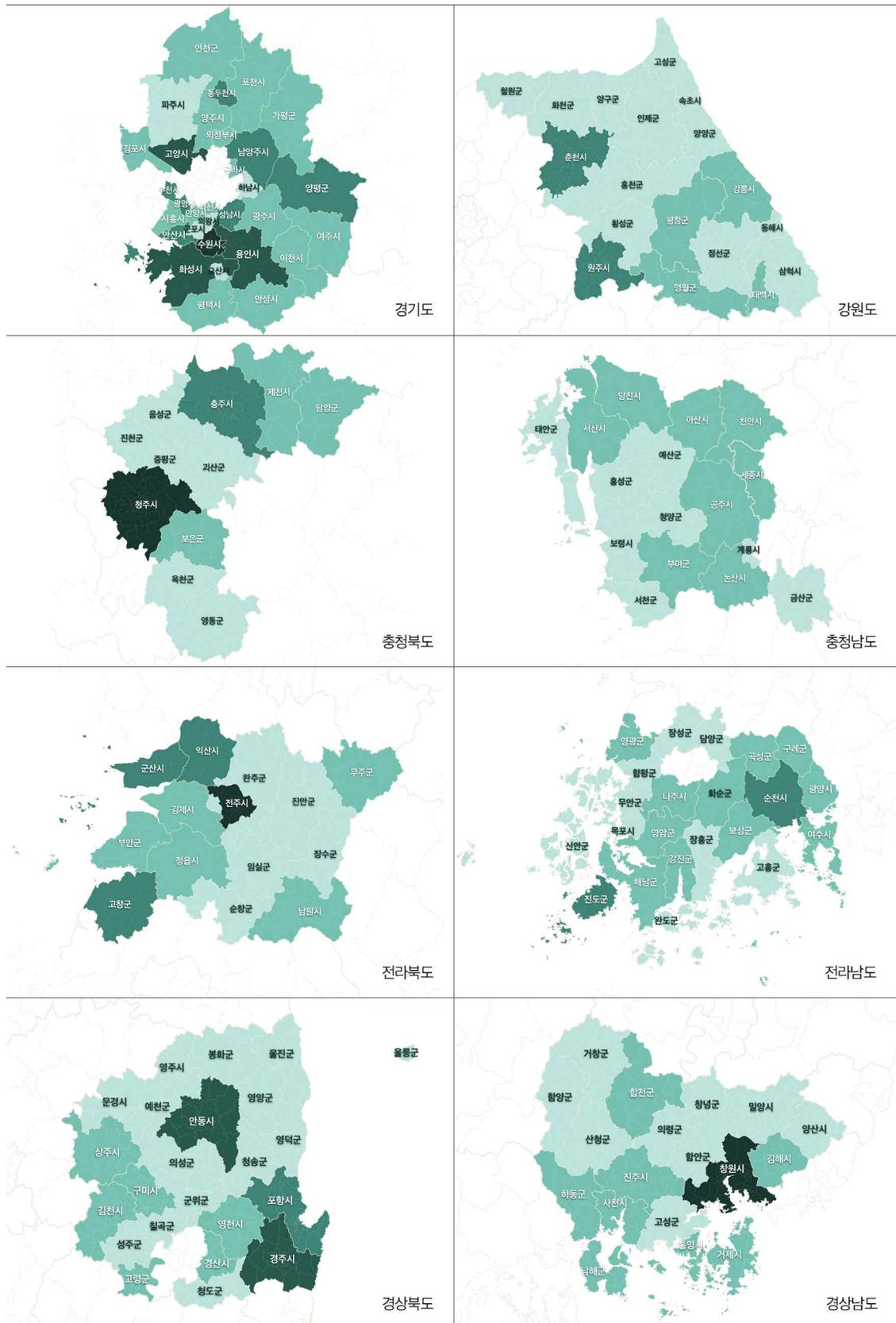
- 각 기초자치단체의 활동지수는 하위 2개 중분류의 표준화 값(Z-score)을 더한 것으로 상대적 비교·구분이 가능한 지수이며, 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 활동지수는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등급화하기 적합함.
- 지도의 등급화는 ArcMap 10.2.2의 data classification methods 중 ‘standard deviation’을 이용함.
 - 종합지수를 표준화한 다음 평균(0)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1 단위로 구분하여 등급화 함. 등급화 결과 활동지표는 5단계로 구분함.



[그림 IV-16]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17]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 활동지수 결과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18]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지수 결과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4 향유지수

▶ 부산 사상구, 전북 완주군, 경기 구리시의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남

- 부산 사상구는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전국 8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건수(전국 2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향유 지표 내 순위가 상위권에 위치해 향유지수 전국 1위를 차지함.
- 전북 완주군은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전국 2위),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건수(전국 3위) 등 프로그램 관련 지표에서 강세를 보였음.
- 경기 구리시는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건수(전국 1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지수를 기록해 높은 점수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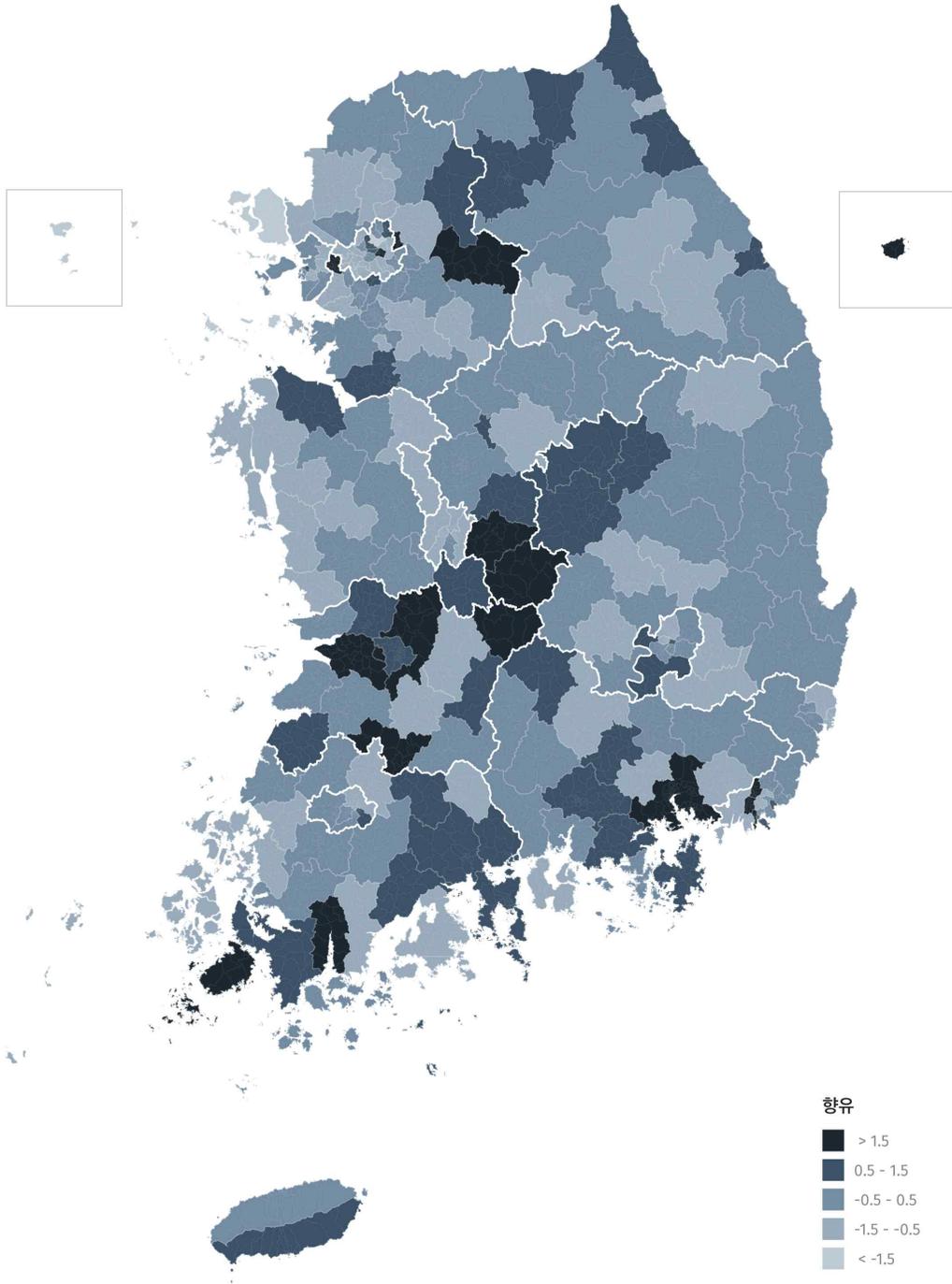
〈표 IV-17〉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수 순위 (상위 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부산 사상구	0.5011	6	경남 창원시	0.4063
2	전북 완주군	0.4851	7	경북 울릉군	0.3707
3	경기 구리시	0.4551	8	전북 김제시	0.3664
4	경기 양평군	0.4274	9	부산 서구	0.3555
5	전북 무주군	0.4267	10	서울 성동구	0.3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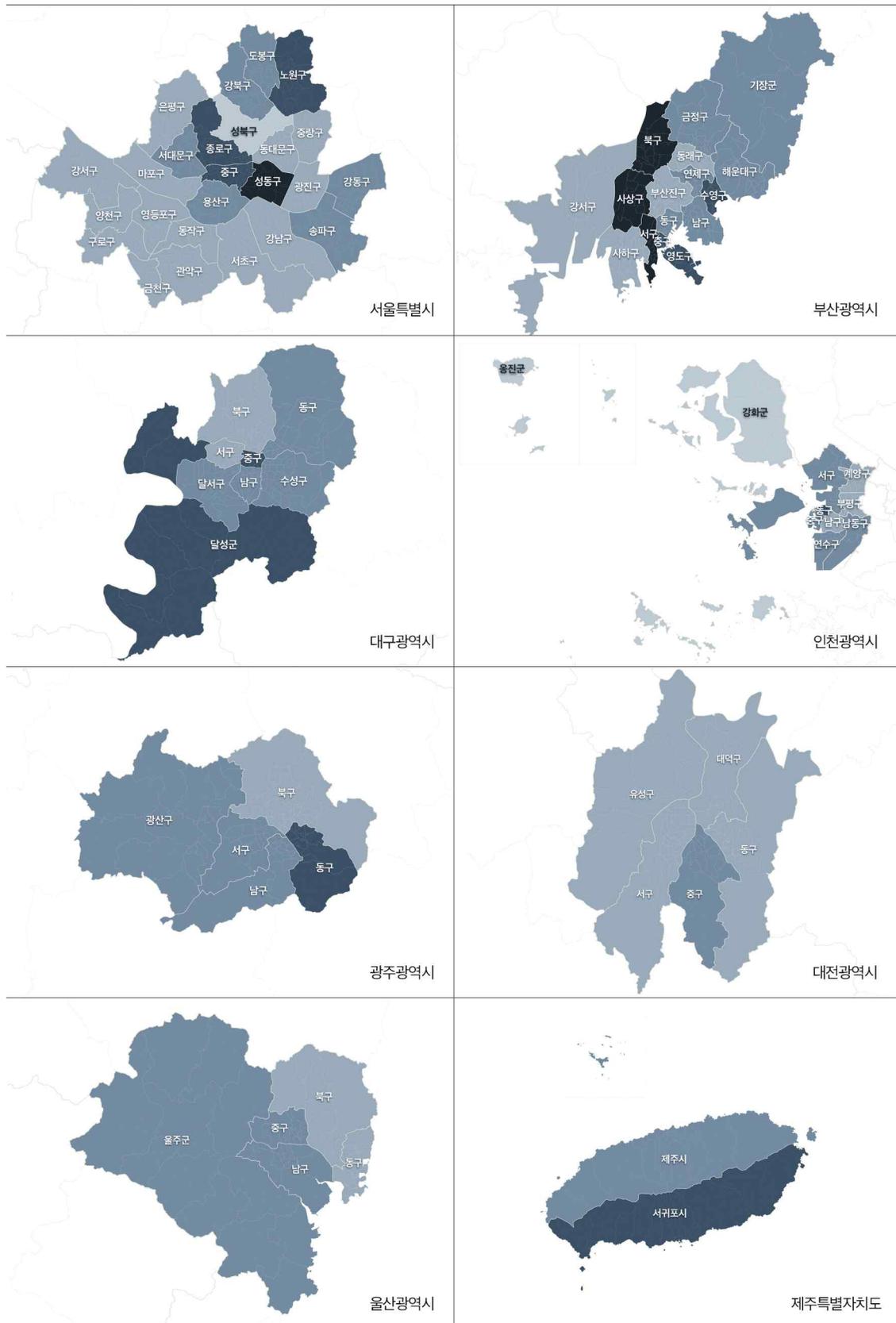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향유지수의 단계구분도를 작성함

▶ ‘standard deviation’ 기법을 적용하여 단계구분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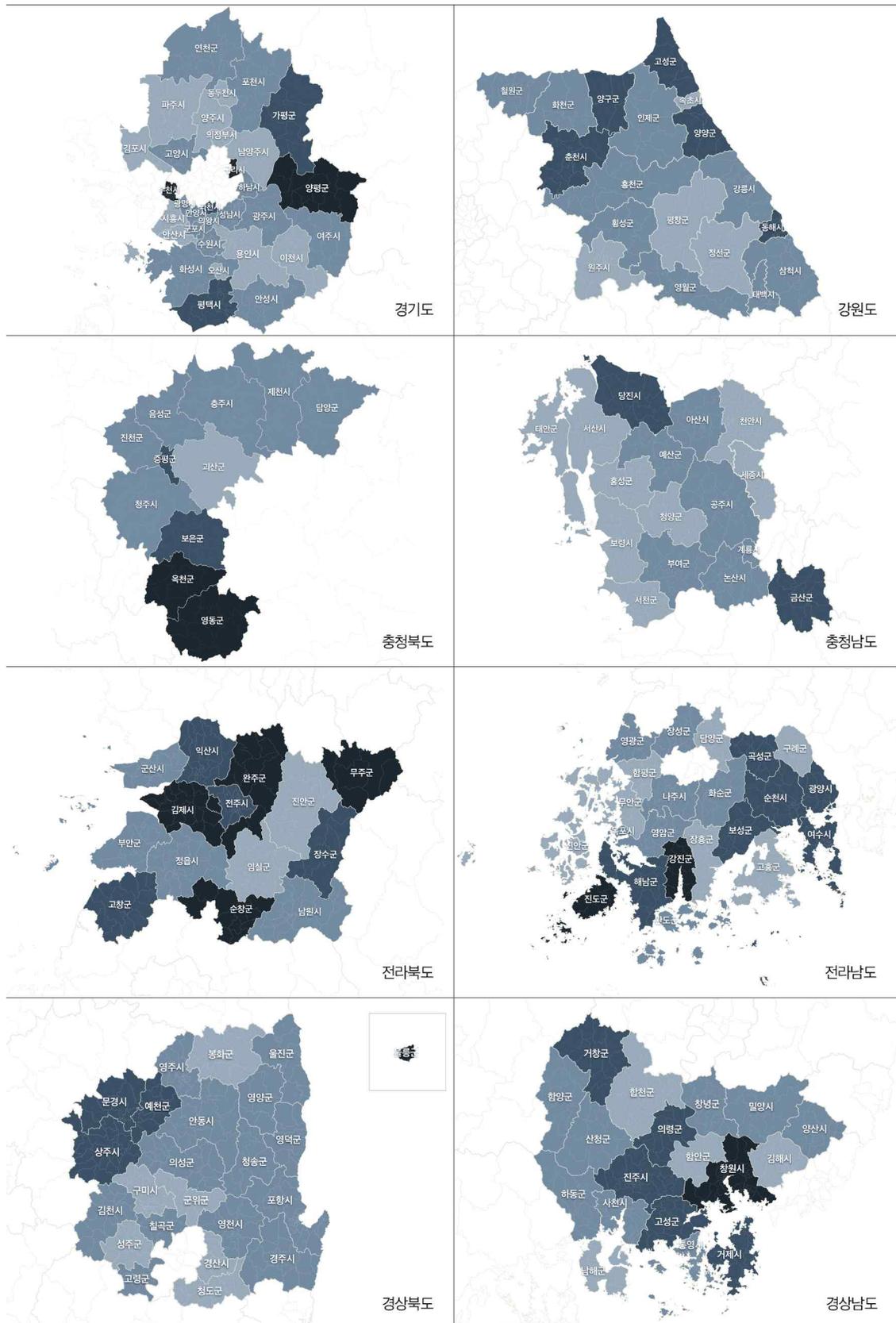
- 각 기초자치단체의 향유지수는 하위 2개 중분류의 표준화 값(Z-score)을 더한 것으로 상대적 비교·구분이 가능한 지수이며, 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등급화하기 적합
- 지도의 등급화는 ArcMap 10.2.2의 data classification methods 중 ‘standard deviation’을 이용
 - 향유지수를 표준화한 다음 평균(0)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1 단위로 구분하여 등급화 함. 등급화 결과 향유지표는 5단계로 구분함.



[그림 IV-19]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수 결과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20]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수 결과1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그림 IV-21] 광역시도별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수 결과2 (지리정보시스템 (GIS) 분석)

1 지역격차의 개념

▶ 문화 관련된 요소들의 지역적 편중 및 불균형의 여부·정도 파악

- 지역격차는 지역마다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지역 간 차이를 의미하는 지역분화(areal differentiation)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넘어, 어떤 이유로든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이 가지는 유무형의 자원·서비스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지역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함.
- 즉 지역격차는 일종의 사회 불균등을 의미하며, 지역격차에 대한 주류적 담론은 이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관점을 취함.
- 국내의 지역격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경제개발을 통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소득격차의 의미나, 주민 소득의 차이를 비롯한 경제적 지표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지역적 편중 혹은 과밀화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규모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함.

▶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지역격차의 개념에 접근

- 경제개발, 소득격차 등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협의의 지역격차 개념은 지역주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 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격차의 개념을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개념이 아닌,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등을 중심으로 한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지역격차로 접근하고자 함.

2 지역간 격차분석 결과

1)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분석

▶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적 차이가 없거나 미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격차 완화**

- 종합지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문화의 지역적격차가 지난 조사 대비 완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2 종합지수) 수도권: 0.140 > 비수도권: -0.057
→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t=3.506^{**})
 - (2014 종합지수) 수도권: 0.028 ≒ 비수도권: -0.011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t=0.819)

〈표 IV-18〉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문화지수 격차분석 결과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종합	2012	수도권 ¹⁾	0.140	3.506 ^{**}
		비수도권 ²⁾	-0.057	
	2014	수도권	0.028	0.819
		비수도권	-0.011	
정책	2012	수도권	-0.015	-0.917
		비수도권	0.006	
	2014	수도권	-0.040	-2.810 ^{**}
		비수도권	0.016	
자원	2012	수도권	0.017	2.423 [*]
		비수도권	0.006	
	2014	수도권	0.008	1.580
		비수도권	-0.003	
활동	2012	수도권	0.047	3.770 ^{***}
		비수도권	-0.019	
	2014	수도권	0.102	4.728 ^{***}
		비수도권	-0.041	
향유	2012	수도권	0.091	3.424 ^{**}
		비수도권	-0.037	
	2014	수도권	-0.042	-2.915 [*]
		비수도권	0.017	

*=p<0.05, **=p<0.01, ***=p<0.001

1) 수도권 : n=66, 2) 비수도권 : n=163

▶ **문화정책, 문화향유 부문에서는 오히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우위**

- 정책지수와 향유지수의 평균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우위
 - (정책지수) 수도권 -0.040 < 비수도권 0.016
 - (향유지수) 수도권 -0.042 < 비수도권 0.017

-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활동지수) 수도권 0.102 > 비수도권 -0.041
- ‘문화자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2) 특별·광역시와 도 간 격차 분석

▶ 특별·광역시보다 광역도의 문화지수가 높게 나타남

- 광역도의 종합지수는 특별·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기준 조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 (종합지수) 특별·광역시 -0.080 < 광역도 0.039
- 대분류별 지역문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정책과 향유는 광역도가 우위, 자원은 통계학적으로 격차가 거의 없었으며 활동지수는 특별광역시가 우위를 보였음.
 - (정책지수) 특별·광역시 -0.083 < 광역도 0.040
 - (자원지수) 특별·광역시 -0.006 ≒ 광역도 0.003
 - (활동지수) 특별·광역시 0.047 > 광역도 -0.023
 - (향유지수) 특별·광역시 -0.038 < 광역도 0.018

〈표 IV-19〉 특별·광역시-도간 지역문화지수 격차분석 결과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종합	특별·광역시 ¹⁾	-0.080	0.268	-2.834**
	도 ²⁾	0.039	0.351	
정책	특별·광역시	-0.083	0.100	-6.974***
	도	0.040	0.137	
자원	특별·광역시	-0.006	0.042	-1.329
	도	0.003	0.054	
활동	특별·광역시	0.047	0.177	2.733**
	도	-0.023	0.186	
향유	특별·광역시	-0.038	0.143	-2.862**
	도	0.018	0.138	

*=p<0.05, **=p<0.01, ***=p<0.001

1) 특별·광역시 : n=75, 2) 도 : n=154

3) 재정자립도에 따른 격차 분석

- ▶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상·중·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간 차이 분석

- 재정자립도는 문화정책의 과감한 추진 및 정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격차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함.
- 행정자치부(2014)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229개 지자체를 상(30.9%~71.6%, n=77), 중(17.7~29.9%, n=76), 하(7.6%~17.4%, n=76)위 집단으로 구분함

▶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일부 지역격차 발생

-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하지만 재정자립도 중간수준인 지역의 문화지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보다 문화지수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종합지수) 재정자립도 上 0.081 > 下 -0.006 > 中 -0.075

〈표 IV-20〉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문화지수 격차분석 결과

구분	재정자립도 상 (n=77)	재정자립도 중 (n=76)	재정자립도 하 (n=76)	F	p
종합	0.081 ¹⁾	-0.075	-0.006	4.467	0.013
	0.418 ²⁾	0.264	0.268		
	H ³⁾	L	M		
정책	-0.019	-0.030	0.051	8.231	0.000
	0.127	0.126	0.149		
	L	L	H		
자원	0.017	-0.004	-0.013	7.836	0.001
	0.060	0.040	0.043		
	H	L	L		
활동	0.095	-0.022	-0.075	19.210	0.000
	0.247	0.128	0.108		
	H	L	L		
향유	-0.011	-0.018	0.030	2.699	0.069
	0.146	0.120	0.154		
	M	L	H		

1) 평균, 2) 표준편차, 3) DMR-TEST(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에 근거하여 H(high)>M(middle)>L(low)

- 자원과 활동부문은 재정자립도 高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재정자립도 중간수준과 낮은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지 않았음.
 - (자원지수) 재정자립도 上 0.081 > 下 -0.006 > 中 -0.075
 - (활동지수) 재정자립도 上 0.081 > 下 -0.006 > 中 -0.075
- 문화정책 부문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정책 추진의지가 상대적으로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정책지수) 재정자립도 上 0.081 > 下 -0.006 > 中 -0.075

4) 시·군·구 간 지역격차

▶ 시·군·구에 따라 유의미한 지역 격차 발생

● 지역문화 종합지수 및 대분류 세 개 영역에서 시·군·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지역문화활동 영역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1〉 시·군·구에 따른 지역격차 분석 결과

구분	시 (n=78)	군 (n=82)	구 (n=69)	F	p
종합	0.118 ¹⁾	-0.049	-0.075	8.158	0.000
	0.411 ²⁾	0.260	0.263		
	H ³⁾	L	L		
정책	0.037	0.042	-0.092	26.605	0.000
	0.142	0.135	0.087		
	H	H	L		
자원	0.021	-0.013	-0.008	11.848	0.000
	0.058	0.044	0.039		
	H	L	L		
활동	0.054	-0.099	0.057	21.251	0.061
	0.231	0.068	0.178		
	H	H	L		
향유	0.006	0.021	-0.032	2.825	0.000
	0.123	0.158	0.138		
	M	H	L		

1) 평균, 2) 표준편차, 3) DMR-TEST(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에 근거하여 H(high)>M(middle)>L(low)

- 종합지수 결과, 시 지역이 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합지수) 시 0.118(H) > 군 -0.049(L) ≒ 구 -0.075(L)
- 정책지수의 경우, 시·군 지역이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정책지수) 시 0.037(H) ≒ 군 0.042(H) > 구 -0.092(L)
- 자원지수는 시 지역이 군·구가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자원지수) 시 0.021(H) > 구 -0.008(L) ≒ 군 -0.013(L)
- 향유지수의 경우, 세 집단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군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
 - (향유지수) 군 0.021(H) > 시 0.006(M) > 구 -0.032(L)

5) 도시-농촌-도농통합 간 지역격차

▶ 도시-도농통합-농촌 지역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 발생

- 지역문화 종합지수에서 도시-도농통합-농촌 간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2012년 기준 조사와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남.
 - (2012 종합지수) 도시 0.414(H) > 도농통합 0.134(M) > 농촌 -0.116(L)
 - (2014 종합지수) 도시 0.187(H) > 도농통합 0.098(M) > 농촌 -0.044(L)
- 대분류별 세부영역으로 살펴보면, 문화자원과 문화활동 분야에서 도시와 도농통합시의 평균이 높고 농촌은 낮게 양분화 되는 결과를 보임.

〈표 IV-22〉 도시-도농통합-농촌 간 지역격차 분석 결과

구분	도시 (n=21)	도농통합 (n=56)	농촌 (n=77)	F	p
종합	0.187 ¹⁾	0.098	-0.044	5.065	0.007
	0.585 ²⁾	0.328	0.253		
	H ³⁾	M	L		
정책	0.048	0.034	0.043	0.106	0.899
	0.148	0.141	0.132		
	-	-	-		
자원	0.024	0.017	-0.015	9.562	0.000
	0.077	0.005	0.041		
	H	H	L		
활동	0.101	0.038	-0.102	17.716	0.000
	0.357	0.163	0.060		
	H	H	L		
향유	0.013	0.005	0.029	0.507	0.603
	0.148	0.114	0.151		
	-	-	-		

1) 평균, 2) 표준편차, 3) DMR-TEST(Duncan Multiple Range Test: $p < 0.05$)에 근거하여 H(high)>M(middle)>L(low)

▶ 단, 문화정책과 문화향유 부문은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문화정책과 문화향유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문화정책의 추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향유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과는 상관없이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사료됨.

제 4 절 종합 결과

1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표 IV-23〉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결과

기 준		1위	2위	3위	4위	5위
전국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시		전북 전주시	경기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군		전남 강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구		서울 성동구	부산 사상구	서울 중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울 성동구	서울 중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서울 종로구
특별광역시		부산 사상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광주 동구	인천 강화군
광역시도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인구50만 (시)	이상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미만	경북 안동시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기 구리시	제주 서귀포시
인구10만 (군)	이상	경기 양평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칠곡군
	미만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충북 보은군
도시형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	경기 구리시
농촌형		전남 강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도농통합형		경남 창원시	경북 안동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재정 자립도	상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중	경기 양평군	부산 사상구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하	경북 안동시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전남 무주군	서울 노원구

2 지역문화실태조사 대분류별 지수 분석 결과

〈표 IV-24〉 지역문화실태조사 대분류별 지수 분석 결과

기 준	1위	2위	3위	4위	5위
정책지수	전남 강진군	전북 전주시	강원 평창군	경북 영주시	경북 안동시
자원지수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	경북 포항시	광주 동구
활동지수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서울 동작구	충북 청주시
향유지수	부산 사상구	전북 완주군	경기 구리시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3 지역간 격차분석 결과

〈표 IV-25〉 지역간 격차분석 결과

기 준	격차 유무	지수 평균 비교
수도권-비수도권	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지난 조사 대비 완화)
특별·광역시-도	유	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재정자립도 상·중·하	유	재정자립도 上 > 재정자립도 下 > 재정자립도 中
시-군-구	유	시 > 군-구
도시-농촌-도농통합	유	도시 > 도농통합 > 농촌

05

제5장 종합분석 및 향후 과제

제1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대분류별 종합분석 및 시사점
2. 격차분석 주요결과 및 시사점

제2절 향후 과제

제1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대분류별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문화정책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지표 강점지역 및 주요특징

- 문화정책 강점 지역은 본 지표 조사 대분류 기준인 지역문화의 정책, 자원, 활동, 향유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정책지수의 값이 높게 나타난 곳**을 의미함.
- 즉, 문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의지, 정책수행을 위한 환경 및 그에 따른 지원 수준 등이 타 기초자치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
- 지역문화정책 지표는 문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 3개 중분류(사업 수립 및 실행, 정책환경, 문화예산) 내 7개 지표로 구성됨.
- 지역문화정책 지수가 높게 나타난 대표 지역은 '전남 강진군', '전북 전주시', '강원 평창군', '경북 영주시', '경북 안동시' 등임.

문화정책지표별 주요 특징

- (종합계획 수립) 229개 중 35개(15.3%) 지역 수립 → 다소 미진, 확대 필요
- (중앙·광역 문화사업 선정) 전국 평균 1.89건 사업 선정, 120개(52.4%) 지역 선정
- (지자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전국 평균 9.49건 사업 추진, 152개(66.4%) 지역 추진
-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전국 총 133개 기관, 이전 조사 대비 상승(34개→133개)
- (문화관련 조례제정) 229개 중 49개(21.4%) 지역 조례 제정 → 조례제정 유도 필요

▶ 정례적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활성화 필요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정책실행 및 예산 편성 등을 위한 기반사항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229개 중 35개(15.3%)에 불과함.
- 기초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문화 관련 정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진행하여야 함.
- 각 지역의 성격에 적합한 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맞춤형 예산·인력 지원 등 정책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지방 문화재정의 지속 확충과 실효적 정책개발 지원 필요

- 2012년 기준 조사보다 본 조사에서의 인구 천 명당 문화정책 예산규모 평균액이 약 5,939천원 상승(74,350천원→80,289천원)함.
-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문화문화재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1.93% 수준임. 지자체별로 2% 이상의 문화재정 확보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연구개발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문화재정의 확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산을 점진 증액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이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효과적인 지역문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임.

2) 문화자원

지역문화실태조사 자원지표 강점지역 및 주요 특징

- 문화자원 강점 지역은 본 지표 조사 대분류 기준인 지역문화의 정책, 자원, 활동, 향유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자원지수의 값이 높게 나타난 곳을 의미함.
-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기반시설 등 문화적 자원의 조성여부와 활성화 정도가 타 기초자치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
- 지역문화자원 지표는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잠재적 역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3개 중분류(문화유산, 기반시설, 자원활용) 내 7개 지표로 구성됨.
- 지역문화자원 지수가 높게 나타난 대표 지역은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 '경북 포항시', '광주 동구' 등임.

문화자원지표별 주요 특징

-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등록문화재 등록지역 수 : 시도지정문화재 35개(15.3%), 등록문화재 40개(17.5%), 문화재자료 20개(10.5%)
- (문화기반시설 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 평균 7.5개
- (생활문화시설 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 평균 7.9개
- (모유수유시설 설치유무) 229개 중 60개(26.2%) 지역 설치 → 다소 미진, 확대 필요
- (장애인좌석 설치) 229개 중 161개(70.3%) 지역 설치 → 법적의무사항, 개선 필요
- (공연장 가동일 수) 전국 평균 151.65일 가동, 시(206.05일) > 구(151.03일) > 군(95.38일)
- (평균 지역축제 예산) 평균 846백만원, 시(1,230백만원) > 군(962백만원) > 구(275백만원)
- (장서수 증가율) 일인당 장서 수 평균증가율 8.56%, 전자자료 마련으로 장서수 증가율 ↑

▶ 문화기반시설 이용 제약 지역의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수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10위 권 이내에 포함되지 않음.
- 특히 재정자립도, 인구 수, 면적 등의 측면에서 도시 규모가 비교적 작고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군 단위의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을 확인함.
- 군 단위 지역주민들의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제약 해소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생활문화시설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강화

-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생활문화시설은 규모가 큰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일상생활 속 주민 문화향유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임.
- 수적으로 봤을 때 생활문화시설의 절대적인 수는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혹은 서울·경기 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을 기준으로 하면 시 단위(3.15개) 보다 군(6.87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시설 수를 보유하고 있음.
- 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발전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임. 지역에서는 주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문화향유의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2016년에 설립된 (재)생활문화진흥원의 기능강화로 생활문화시설 운영·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모든 지역주민의 차별 없는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조성 필요

- 인구 수 대비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수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시설 설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임.
- 모유수유시설 및 장애인좌석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의 설치율은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특별·광역시-도 단위 기초자치단체간 편차가 존재함.
- 모유수유시설·장애인좌석 등의 신규 설치는 물론이고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문화향유를 둘러싼 차별적 요소 제거에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3) 문화활동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지표 강점지역 및 주요특징

- 문화자원 강점 지역은 본 지표 조사 대분류 기준인 지역문화의 정책, 자원, 활동, 향유 네 가지 영역 가운데 **활동지수의 값이 높게 나타난 곳을 의미함.**
-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기반시설 등 문화적 자원의 조성여부와 활성화 정도가 타 기초자치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
- 지역문화활동 지표는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2개 중분류(활동현황, 활동인력) 내 5개 지표로 구성됨.
- 지역문화활동 지수가 높게 나타난 대표 지역은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서울 동작구', '충북 청주시' 등임.

문화활동지표별 주요 특징

-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사회적기업) 전국 평균 4.35개, 군 단위 상대적 부족(0.83개)
- (학예전문인력·문화재관리인력) 151개(65.9%) 지역에서 고용, 평균 1.99명
-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확보율 평균 93.6%, 평균이상 법정사서직원 확보지역 32개
- (문화관광해설사 수) 전국 평균 9.28명 고용, 구 단위 상대적 부족(2.46명)
- (지역문화전문인력 수) 문화복지인력수 + 문화예술교육사 수
: 문화복지인력 평균 0.24명, 문화예술교육사 평균 9.24명 → 균형있는 인력확보 필요

▶ 지역사회 내 문화단체 설립 및 활동 지원 확대 필요

- '서울 종로구',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 '서울 서초구', '전북 전주시'는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 내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 관련 단체의 수가 많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지역문화 활동지수가 높았음. 지역문화관련 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체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지역문화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필요

-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등 지역문화 활동인력의 확보율이 높은 지역은 지역문화 종합지수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함.
- 문화활동 인력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복지 증진, 지역문화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므로 인력의 균형적 배치와 체계적인 육성

이 필요함. 또한 문화 활동인력 양성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획득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문화이모작’,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지역문화인력 발굴 및 교육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임.
- 따라서 이상의 인력양성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문화인력을 배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4) 문화향유

지역문화실태조사 향유지표 강점지역 및 주요특징

- 문화자원 강점 지역은 본 지표 조사 대분류 기준인 지역문화의 정책, 자원, 활동, 향유 네 가지 영역 가운데 **향유지수의 값이 높게 나타난 곳을** 의미함.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 조성 여부와 실제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기회제공 등이 타 기초자치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
- 지역문화향유 지표는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조성 여부와 지역주민 대상 기회 제공, 문화복지 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2개 중분류(지역 주민, 소외계층) 내 7개 지표로 구성됨.
- 지역문화향유 지수가 높게 나타난 대표 지역은 ‘부산 사상구’, ‘전북 완주군’, ‘경기 구리시’,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등임.

문화향유지표별 주요 특징

- (천명당 무료공연 건수) 전국 평균 0.26건, 인구수 대비 군 단위(0.36건)에서 활발
- (일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이용횟수) 전국 평균 7.5회, 시·군·구 간 격차가 크지 않음
- (천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전국 평균 70만 6천원, 군>구>시 으로 군 단위 활발
- (문화가 있는날 기획사업) 229개 중 98개(42.8%) 지역 추진 → **전국적 활성화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이전 조사 대비 집행률 대폭 상승(77.8%→93.3%), 정책 성과
- (천명당 소외계층대상 문화프로그램) 80개(34.9%)지역 추진, 평균 0.007건 → 확대 필요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평균 242,032천원, 시>군>구 순 → 편차 축소 필요

▶ 도시-농촌 간 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이번 조사 결과, 시·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보다 군 단위의 인구 천 명당

무료공연 수와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됨. 문화기반시설 이용 횟수 또한 시(7.7회), 군(7.3회), 구(7.6회)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에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되던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대상 무료공연,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확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중앙정부는 이상의 긍정적인 상황을 지속 유지하고 문화의 지역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정책 및 예산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지역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와 지역문화역량 강화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임. 이에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지자체가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은 2012년 기준 조사보다 대폭 상승(77.8%→93.3%)함.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한 인식제고와 실효적 전달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제고와 더불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지속 공급하여 문화의 일상생활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춘 능동적 문화정책 마련이 시급

- 행정자치부의 전국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 수 대비 3.1%(1,569,470명, 2014.1.1.기준)의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가 있음. 또한 매년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주민의 일상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기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정책을 기획 추진해야 할 것이며, 문화향유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임.

지역문화지수 해석 시 유의사항

※ 절대적 우위 비교가 아닌 지역문화 현황 파악 및 정책 기반 마련에 활용

- 본 지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Z-score라는 상대적 수치를 도입함에 따라 순위에 대한 언급이 필수불가결하게 포함됨
- 하지만 본 지수의 정도는 지역 문화역량과 수준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음
- 즉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기초자치단체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라고 해석하거나,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없음
- 지수화의 목적은 기준연도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문화역량의 현황을 파악 및 진단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시·군·구 지표 값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예측할 수 없음

-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 단위는 228개 기초자치단체와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시)이며, 광역자치체인 시·도 단위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행정단위임.
- 따라서 시·군·구 지표 값의 총합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역량과 동일하지 않으며, 이를 분석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없음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속한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추진건수의 총합으로 서울특별시의 문화사업 추진 건수를 예측할 수 없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지수 평균값으로 서울특별시의 정책지수 예측이 불가함
- 또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정책/자원/활동/향유 관련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파악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문화관련 사업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사업 건수로 계산되지 않음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지표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별도의 연구를 실시하여야 함

2 격차분석 주요결과 및 시사점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완화 → 지방의 문화적 여건 개선 추정

*재정자립도, 시군구 기준 등에서는 지역 격차 발생 → 지속적인 지역격차 해소 필요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격차 해소

▶ 문화정책, 문화향유 영역에서는 비수도권의 평균이 우세, 문화 활동 영역은 수도권의 평균이 우세

- 이번 조사의 지역문화 종합지수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해소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문화정책과 문화향유 부문은 비수도권의 평균이 수도권 지역 평균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임.
 -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문화정책 수립·실행 노력 강화,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강좌무료공연 등의 사업이 이들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방증함.
- 한편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단체의 설립 및 활동, 문화전문 인력확보 등에서 우위를 보였기 때문임.

〈표 V-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적 지역격차 분석 결과

기 준	수도권 (n=66)		비수도권 (n=163)	지역격차
종합지수	0.028	≐	-0.011	격차없음
지역문화 정책지수	-0.040	<	0.016	격차있음
지역문화 자원지수	0.008	≐	-0.003	격차없음
지역문화 활동지수	0.102	>	-0.041	격차있음
지역문화 향유지수	-0.042	<	0.017	격차있음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그 외 광역자치단체

▶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근거 자료 확보

- 이상과 같이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양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비수도권의 취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균형 있는 지역문화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비수도권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설립·활동, 전문인력 확보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활동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여건 개선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2)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격차 : 격차 발생

▶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재정 여건에 따른 문화 격차는 발생

- 지역문화 향유부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격차가 발생함.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수 평균이 낮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정자립도 상: 0.081(H) > 하: -0.006(M) > 중: -0.075(L)

〈표 V-2〉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문화격차 분석 결과 (종합)

기 준	재정자립도 상 (n=77)	재정자립도 중 (n=76)	재정자립도 하 (n=76)	지역격차
종합지수	0.081 H ¹⁾	-0.075 L	-0.006 M	격차 있음
지역문화 정책지수	-0.019 L	-0.030 L	0.051 H	격차 있음
지역문화 자원지수	0.017 H	-0.004 L	-0.013 L	격차 있음
지역문화 활동지수	0.095 H	-0.022 L	-0.075 L	격차 있음
지역문화 향유지수	-0.011 M	-0.018 L	0.030 H	격차 없음

* DMR-TEST(Duncan Multiple Range Test: $p < 0.05$)에 근거하여 H(high)>M(middle)>L(low)

▶ 지방 재정 상황이 열악하나 문화진흥 정책의지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재정적정 책적 지원 확대 필요

- 한편 재정자립도 하(下) 지역의 지역문화 정책지수(0.051)는 그 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이들 지역의 정책적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방증하는 것임.
- 실제 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재정자립도(2014년 행자부 기준)가 12.28%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수에서 전국 1위, 종합지수에서 전국 6위를 차지하였음
- 하지만 정책적 의지가 높다하더라도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우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제반 문화환경 개선 및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책의지가 높고 활동적이나 재정확보가 어려운 지역, 혹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지역 문화콘텐츠의 가치나 문화적 역량이 높은 지역은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1)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

▶ 지역문화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분석의 신뢰도 개선 필요

- 2014년 수행된 '2013 지역문화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과 대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표 수집 기준에 의한 편차발생 가능성 해소 및 개선',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표 재구성' 등을 진행, 지표의 신뢰도를 높임.
- 또한 지역 간 격차와 관련한 T-test, ANOVA 등의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비교, 재정자립도 기준별 비교, 도시-농촌 간 비교 등 지역 간 특화점과 취약점을 분석함.
-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측정 및 분석 방법을 개발·보완하여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지표이자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사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

2) 지역문화 현황의 정기적 점검

▶ 시의적 자료 획득과 축적을 위한 정기 조사 실시

-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 최초의 조사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역문화진흥정책 수립, 지역 차원의 장단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여건에 관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2년 혹은 3년에 1회 정도도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자료를 행정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해야 함.

▶ 지자체의 지역문화실태조사 적극 참여 유도

-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각 지표별 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자료, 유관기관 행정자료, 지역별 공시자료 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다수의 행정자료로 구성됨. 따라서 자료의 생산과 취합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함.

- 지역자료 취합을 담당하는 공무원 혹은 유관기관 담당자의 인식와 태도가 데이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데이터 입력 방식 교육을 위한 지역설명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문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담당공무원 변경 등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월별·분기별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자료 입력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함.

3)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의 지속적 보완 실시

▶ 지역사회 환경 및 정책변화 등을 반영한 지표 개선 추진

- 문화정책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행정·정치적 개편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가변적(volatile) 정책분야 중 하나임.
- 따라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사의 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즉 실태조사의 전체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조사 결과가 환경 변화를 선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세부 지표의 유지 및 수정, 보완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 재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자료 수집을 위한 대상과 법적용어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의 수정, 법적 용어의 변경, 기관의 통폐합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해 행정자료 수집의 대상이나 용어가 변경될 수 있음.
- 자료수집 대상과 범위를 조사 시행 전에 점검하여 자료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분석 혼란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안정적 DB 구축과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지역문화 DB 시스템의 안정화

- 본 연구에서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위한 ‘온라인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수집한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시행했던 2012년 기준 조사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임.
- 온라인 DB 시스템은 이전 조사에서 채택한 설문지 직접기입 방식의

행정자료 수집에 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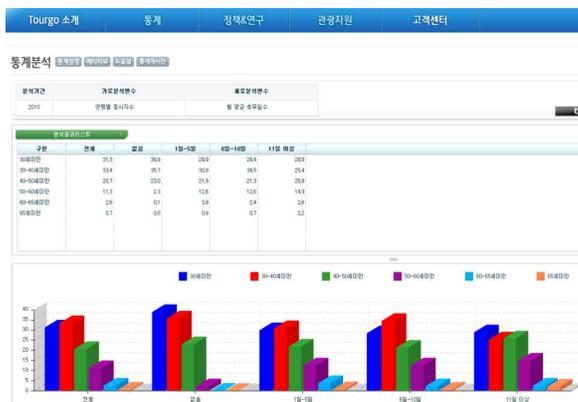
- 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오류를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문화 데이터 입력시스템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데이터 입력시스템의 상설 운영을 추진하여 실시간으로 문화 관련 지역행정자료의 획득을 모색함.

▶ 문체부 실국간, 타 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별 통계 및 행정자료, 각 정부부처의 승인통계 및 정책자료, 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재단 생산 자료의 안정적인 획득을 위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지역문화정보 제공이 가능한 온라인 포털시스템 구축

- 조사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지역문화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적절히 활용하고 지역문화 향유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가칭)지역문화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지역문화포털’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 혹은 ‘문화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역문화 DB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 심볼, 표 등을 통해 시각화된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함.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출처: GIS United(2014), 공공정책을 위한 빅데이터 전략지도, 더숲

[그림 V-1] DB 자료를 시각화한 사례 (그래프 및 지역문화지도)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참고문헌

문헌자료

- 노영순·윤주(2013).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종합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지표 재설정 및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신두섭·박승규(2012).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문화경제연구』. 15(3): 139-159.
- 양혜원(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순자(2015). 지역행복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국토정책 Brief』. 514: 1-8.
- 황재훈·권영환·안희철(2014). 충청북도 공공체육시설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건설기술논문집』. 33(1): 23-30.

홈페이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청 홈페이지(2014년 예산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국가통계포털: <https://www.kosis.kr>

내고장알리미: <http://www.laiis.go.kr>

다누리(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http://www.liveinkorea.kr>

문화센터: <http://stat.mcst.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www.gokams.or.kr>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http://www.smalllibrary.org>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 <http://www.artsdb.or.kr>

지방재정365(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lofin.moi.go.kr>

지역문화실태조사 DB입력 사이트: <http://tour.go.kr/newlocultur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acei.art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부 록]

[부록] 전문가 AHP 설문조사지

본 조사표에 기재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됩니다.

「2014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 중요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4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 간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분석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및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설문지는 **1월 12일~15일 까지 kgy@kcti.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연구책임 : 노영순 연구위원, 융합연구실장
 연구원 : 김가운 위촉연구원, 융합연구실(02-2669-8982, kgy@kcti.re.kr)

주 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수 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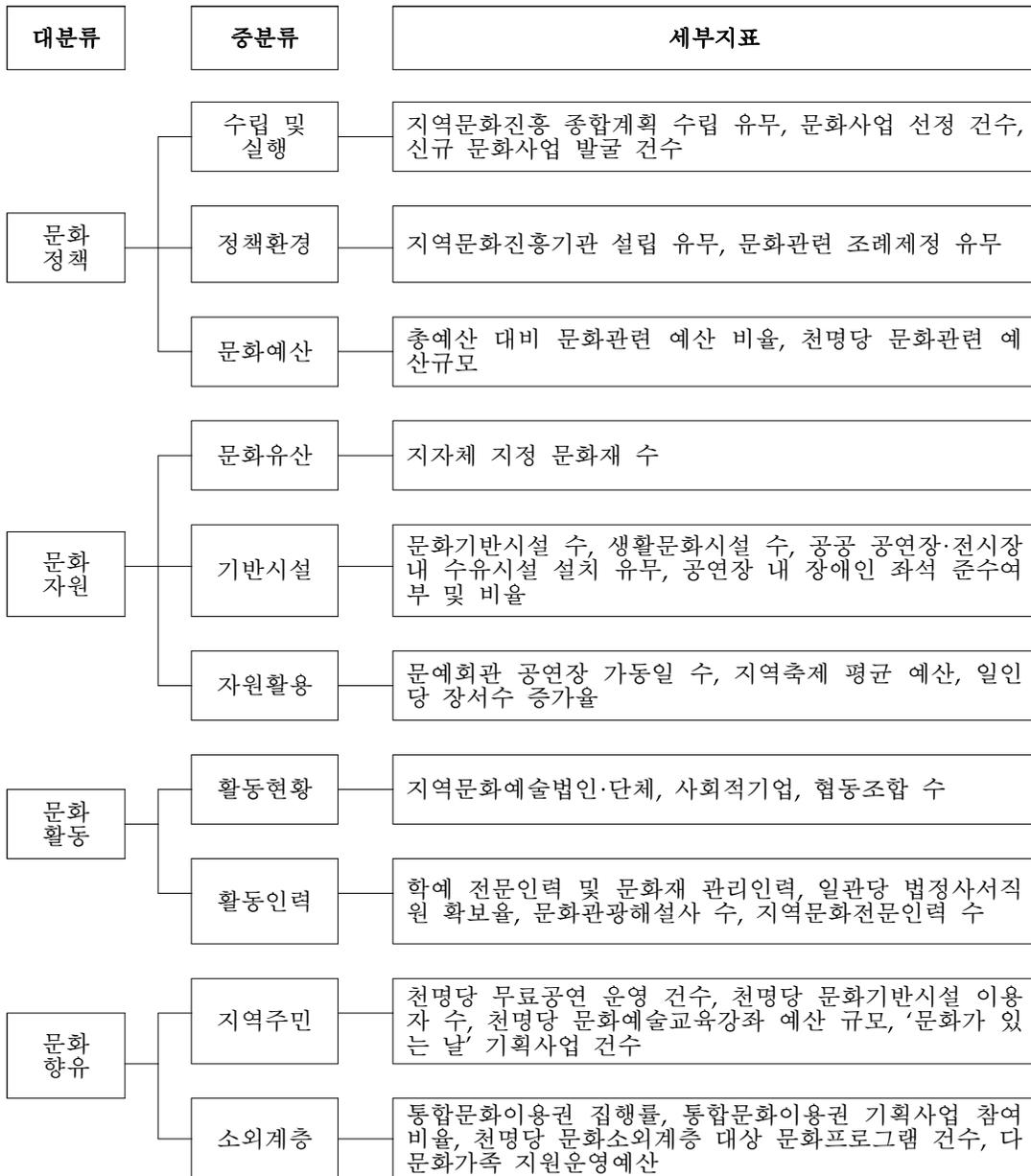
응답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 소 (답례품송부처)			

■ 다음의 지역문화지표 체계를 참고하여 각 문항별로 제시된 항목에 대해서 “A”와 “B”를 비교한 후 그 중요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속성 A가 속성 B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A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B
	매우 중요함	(중간)	중요함	(중간)	조금 중요함	(중간)	같음	(중간)	조금 중요함	(중간)	중요함	(중간)	매우 중요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지역문화지표 체계 】



1. 대분류 중요도 비교

■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 ① 문화정책, ② 문화자산, ③ 문화활동, ④ 문화향유 4개의 대분류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정책 : 문화와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 인식(예: 조례제정) 및 정책적 지원수준 (예: 문화부문 예산) 등을 파악
② 문화자원 :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와 관련된 유·무형 자원(예: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설 (예: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등을 파악
③ 문화활동 :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단체, 문화전문인력 등 문화활동의 주체를 파악
④ 문화향유 : 지역주민과 지역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및 복지 현황과 그 정책성적을 파악

no.	대분류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대분류
1	문화정책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자원
2	문화정책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활동
3	문화정책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향유
4	문화자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활동
5	문화자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향유
6	문화활동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향유

2. 중분류 중요도 비교

1) 문화정책

■ 지역의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중분류 항목 중 ① 수립 및 실행, ② 정책환경, ③ 문화예산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립 및 실행 : 문화관련계획 수립, 문화사업 선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수립 및 실행과 관련
② 정책환경 : 문화진흥기관, 문화조례제정 등 정책환경 조성과 관련
③ 문화예산 :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 등 문화재정지원과 관련

no.	중분류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중분류
1	수립 및 실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환경
2	수립 및 실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예산
3	정책환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예산

2) 문화자원

- 지역의 문화자원을 구성하는 중분류 항목 중 ① 문화유산, ② 기반시설, ③ 자원활용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유산 : 시도지정문화재 등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수준 관련
② 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문화시설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 시설 관련
③ 자원활용 : 시설건립 이후 활용도 파악을 위한 가동일 수, 장서수 증가율 및 대표적 무형자원인 지역축제 관련

no.	중분류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중분류
1	문화유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반시설
2	문화유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원활용
3	기반시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원활용

3) 문화활동

- 지역의 문화활동을 구성하는 중분류 항목 중 ① 활동현황, ② 활동인력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활동현황 : 문화예술법인(임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활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체 관련
② 활동인력 : 지역의 문화관리인력, 지원인력, 전문인력 등 관련

no.	중분류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중분류
1	활동현황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동인력

4) 문화향유

- 지역의 문화향유를 구성하는 중분류 항목 중 ① 지역주민, ② 소외계층 가운데 어느 집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주민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관련
② 소외계층 : 지역주민 가운데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정책 추진 노력과 관련

no.	중분류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중분류
1	지역주민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외계층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 연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노영순 창조여가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양혜원 정책통계평가실 연구위원

연구진 김가윤 창조여가연구실 연구원

김다연 창조여가연구실 연구원

자문위원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가나다순) 나도삼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본부장

장세길 전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